

“통성경 포플라” 를 적용한 내러포 설교가 회중개발에 미치는 영향

함안 중앙 감리교회의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고승모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Seungmo Ko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Impact of “Narraphor Preaching” with the “Tong Bible Formula” on the Congregat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f Haman Jungang Methodist Church

Seungmo Ko

Haman Jungang Methodist Church

This study got started from the question and reflection of what the right biblical sermon is. The right biblical sermon is preaching the whole bible to convince the audience of God’s own heart embedded in the Bible, depending on the historical flow of the Bible. To make a well-balanced delivery of the whole bible with God’s own heart, ‘Narraphor Preaching’ according to ‘Tong Bible Formula’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this study, documentary research is used to combine, organize and analyze the related literature. In this way,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on ‘Narraphor Preaching’ according to ‘Tong Bible Formula’ is present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Narraphor Preaching’. ‘Tong Bible Formula’ is a methodology for ‘TongBiblization’ and a formula for specific applications, designed by Byungho Jo who has led Bible reading for 25 years, so that parents can teach their children by understanding exactly and acquainting themselves with the content of the Bible. ‘Narraphor Preaching’ according to ‘Tong Bible Formula’ is to preach ‘40 Tong Bible Story Line’ among ‘Tong Bible Formula’ which are the main topics of the bible using Narrative and Metaphor. 52 Sunday service sermons were drawn up on the basis of the ‘40 Tong Bible Story line’ and were preached to church members for 52 weeks in 2015. To research the impact of the sermons on the church members, a survey, a forum and a round-table discussion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compiled and analyzed. Through this, it was understood how ‘Narraphor Preaching’ according ‘Tong Bible Formula’ had influenced on each member of the church, the representatives of the laity among the existing group of the church

members, and the new believers. As a result, 'Narraphor Preaching' according 'Tong Bible Formula' was helpful to make the church members understand the flow of the Bible on the historical order, figure out essential topics of the Bible, and realize God's own heart embedded in the Bible. Besides, this sermon led the church to growth in quantity,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settlement of new believers. And it made the church members arouse enthusiasm in reading through the Bible, a quarter of whom read through the Bible more than once a year. It was confirmed that 'Narraphor Preaching' could be an effective tool to educate children with the Bible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local community.

국문초록

“통성경 포물라”를 적용한 “내러포 설교”가 회중의 성경 이해에 미친 영향:
함안 중앙 감리교회의 사례연구

고승모

함안중앙교회, 경상남도

이 연구는 올바른 성경적 설교에 대한 고민과 반성으로부터 시작했다. 올바른 성경적 설교는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것,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설교하는 것,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하기 위해서 통성경 포물라(Tong Bible Formula)에 따른 내러포 설교(Narraphor Preaching)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를 위하여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성서적 ·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통성경 포물라 (Tong Bible Formula)는 조병호가 25년간 성경통독을 인도해오면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 통성경화(TongBiblization)를 위한 방법론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공식(公式)이다. 그리고 통성경 포물라 가운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인 40개의 통성경 스토리 라인(Tong Bible Story Line)을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방법으로 설교하는 것이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이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52회 분량의 주일예배 설교를 개발하였고, 2015년 52주 동안 회중에게 설교하였다. 이 설교가 회중의 성경 이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토론회 및 좌담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통계 내고 분석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회중 전체에 미친 영향과 교회 기존 성도 그룹인 평신도대표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교회 새신자 그룹인 새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는 회중들에게 성경의 흐름을 역사순으로 파악하게 하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거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 새신자가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고, 회중들이 성경통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실천하여 27.5%의 성도가 성경 1독 이상을 실천하였다. 또한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하며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 차

감사의 글	vii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연구	6
연구의 방법	14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15
II. 통성경 포물라와 내러포 설교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	17
통성경 포물라와 내러포 설교에 관한 이해	17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성서적 이해	25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신학적 이해	35
III.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티브 설교의 실행	42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실행 절차	42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실행과 평가	55
IV. 회중의 삶의 자리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 반응도	67
함안중앙교회 회중의 상황	67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에 대한 반응 조사	77
전체 평가	101
V. 요약 및 결론	106
연구의 요약	106
연구의 결론	108

부록	112
참고문헌	167

표 목차

<표1> 목회자의 한 주간 공식예배 설교 횟수	2
<표2> 통성경 포물라 5 단계	20
<표3> 통(通)성경 FORMULA 40 Story Line	42
<표4> 통성경 포물라 스토리 라인에 따른 설교 주제와 추가될 설교 주제	46
<표5> 2015 전반기 주일예배설교 제목 및 본문(1월~6월)	48
<표6> 2015 후반기 주일예배설교 제목 및 본문(7월~12월)	49
<표7> 2015 전반기 주일예배설교에 대한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의 적용	50
<표8> 2015 후반기 주일예배설교에 대한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의 적용	51
<표9> 최근 5년간 주일예배설교 본문 선정 상황	62
<표10>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 구약성서 구분별 상황	63
<표11>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 신약성서 구분별 상황	63
<표12> 함안군 종교단체 현황	68
<표13> 함안군 연도별 인구추이	71
<표14> 응답자의 배경 변인	79
<표15>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	80
<표16> 개인의 신앙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82
<표17>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	83
<표18> 설교는 본 교회성장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84
<표19> 회중은 설교자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85
<표20> 회중이 설교를 돕기 위해 해야 할 일은?	87
<표21> 후보에 기록된 ‘통성경 포물라’ 가 설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88

<표22> 설교 시간의 전체 회중의 집중도	89
<표23> 설교 시간의 회중 개인의 집중도	90
<표24> 설교를 듣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	91
<표25> 이전 설교와의 비교	92
<표26> 설교에 대한 호감도	93
<표27>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를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94
<표28>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가 전달되는 측면의 장점은?	95
<표29> 매 주일 예배 설교에 대한 만족도	96
<표30> 설교가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가?	97
<표31>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98
<표32> 설교자의 설교준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99
<표33> 설교와 성령의 역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100

감사의 글

2014년 여름, 목회학박사과정 인텐시브 코스를 수강하기 위해 드류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숲 속에 자리 잡은 드류 대학 캠퍼스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 남을 소중한 추억입니다. 개강예배를 드리며 100년도 넘는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의 사인복을 넘기다가, 한국에 감리교 선교사로 첫발을 내디뎠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사인을 확인하며, 거기 제 이름을 기록할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리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의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조금 바꿔 ‘하늘을 A4지(紙)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교수님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삶의 방식으로 믿음을 보여주신 통(通) 박사 조병호 교수님, 미련한 학생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자 애쓰신 놀랄만한 통찰력과 그 보다 더 놀라운 동안(童顏)의 김영래 박사님, 미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탁월한 신학자이지만 너무나 소탈하신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박사님. 세 분에게 잠시나마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저에게 영광입니다.

창원에서 서울과 가평의 먼 길을 오가며 함께 공부했던 이진석 목사님, 최정규 목사님, 강동구 목사님과 드류 D.Min. 1기의 목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짧지 않은 목회학박사 과정 동안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함안중앙교회 교우들에 대한 감사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교우들은 부족한 목회자에게 너무나 과분한 신뢰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후원자이며 자랑입니다. 성실한 동역자인 이성민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고순경 장로님, 어머니 정사라 권사님, 부모님의 기도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학창시절 후원자였던 누님과 목회자의 길을 함께 가는 동생 내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흥에 계신 장인 김윤두 장로님과 장모 이상심 집사님께는 사랑과 기도의 많은 빛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세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이,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은이, 다정하고 친근한 웃음을 주는 훈이. 아이들은 힘든 삶에 위로가 되고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끝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모로 아이들의 엄마로, 부족한 남편의 돕는 배필로 곁을 지켜준 아내 김혜경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20년 남은 제 목회의 후반전을 앞두고 이렇게 소중한 ‘하프타임’ 을 갖게 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눈물겹게 감사를 드리며 서툰 글을 맺습니다.

2016. 5.

아라가야(阿羅伽伽)의 고도(古都) 함안

고 승 모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교회 목회자의 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이다.¹ 예배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순서도 설교이다.² 그러나 설교는 목회자의 핵심적인 역할이면서도 한편 부담스러운 역할이다. 왜냐하면 설교는 여타 사역과 달리 성도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에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교회 목회자는 강단에서 거의 ‘살인적인 분량’의 설교를 소화해 내야 한다.⁴ <표 1>에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는 최소한 일주일에 12번의 공

¹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의 본질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 ‘설교자’는 본질적인 직무였다. 루터는 1512년부터 설교 강단에 서기 시작하여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설교하였다. 이 일이 루터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직무였으며 루터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과제였다.” 권진호 외, *루터, 겨울에 설교하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10.

² “교회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설교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John Stott, *The Bible for Today* (Leicester, : IVP, 1982), 57.

³ “설교는 목회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설교야말로 목회사역 가운데서 가장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회중의 그리스도교적 훈련의 질과 깊이는 설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Ambrose, NPNF 제2판, 제10권, 13편 이하). Thomas C. Oden, *Pastoral Theology*, 이기춘 역, *목회신학* 6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94.

⁴ 과도한 설교 횟수로 인한 설교자의 위기에 관해서는 다음 두 곳을 참고하라. 정인교, *설교 살리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61-68. / 정인교, *설교자여 승부수를 던져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7.

식예배 설교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심방예배 설교나 예식 설교, 교회학교 설교 등을 포함시킨다면 일주일에 15번 이상의 설교를 해야 한다.

<표1> 목회자의 한 주간 공식예배 설교 횟수

분 류	주일예배 (낮, 오후 또는 밤)	수요저녁예배	금요심야예배	새벽기도	소그룹예배 (속회 또는 구역예배)
설교 횟수	2	1	1	7	1

이러다 보면 목회자는 하루에 두 편 가량의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 이는 목회자에게 막중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⁵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⁶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설교를 위해, 목회자는 자신의 시간 전체를 설교에 투자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설교에 관한 사도들의 고백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⁷는 자세가 아니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⁸ 그러나 목회자는 현실적으로 ‘설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회

⁵ 과도한 설교 횟수로 인한 스트레스는 회중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엄청난 횟수의 설교를 동일한 설교자에게 듣는 것도 부담인데 하물며 항상 똑 같은 수용 통로만 가용되고 있다면 식상함의 속도는 배가되기 마련이다.” 정인교, *현대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 개정증보판 (서울: 청목출판사, 2010), 13.

⁶ 설교 준비 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나는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 독서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술하기 위해 15~20시간을 소요한다...설교를 준비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의 증가와 내용과 표현의 질적 향상은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믿는다.” Adam Hamilton, *Unleashing the Word*, 유성준 역, *말씀을 해방시켜라: 계시 목적 열정이 있는 설교* (서울: 도서출판 KMC, 2009), 54.

⁷ 사도행전 6: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⁸ 크리소스톰(J. Chrysostom)은 성직자의 사역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임을 강조했다. “...기적을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때문에 오직 설교를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설교자로서 목회자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이로 인하여 “목회적 비중의 왜곡”⁹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받으며 직면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¹⁰ 따라서 설교자는 제한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그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돕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¹¹ 목회자에게 ‘설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인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사역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에서도 설교자로서의 목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설교의 원칙은 카이퍼(R. B. Kuiper)가 주장한 대로 ‘올바른 성서적 설교’이다. 올바른 성서적 설교는 성서만을 설교하며(Scriptura Sola), 성서 전부를 설교하고(Scriptura Tota), 오직 말씀과 더불어 설교해야 한다(Sola Cum Verbo)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가 행한 이적들로 인하여 놀라움을 자아냈지만 꼭 말씀을 사용하였던 것이다...사도들은 과부를 돌보는 일은 스테반과 그 동료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John Chrysostom, *De Sacerdotio*, 김성호 역, *성직론*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134-135.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62.에서 재인용.

⁹ “목회적 비중의 왜곡’이란 설교하는 일이 목회자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차선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한다.”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1-19.

¹⁰ “좋은 설교에 대한 갈망, 좋은 설교에 대한 수요는 있다.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늘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는 설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설교를 통해 뭔가를 얻고 싶어’하며,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싶어 한다.” Achim Härtner, *Predigen Lernen*, 손성현 역,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124.

¹¹ “지혜로운 설교자는 설교 준비 이전에, 설교를 들은 결과로 청중이 실천에 옮겨주기 바라는 바를 결정한다...설교는 귀를 위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으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청중으로 하여금 결심하도록,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헌신을 하도록 초청하는 설교를 작성해야 한다.” Harold T. Bryson · James C. Taylor, *Building Sermons to Meet People's Needs*, 정성영 역,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8), 90-91.

다.¹²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성경에 관하여(about the bible)”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성경 자체(the bible itself)” 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¹³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성서적 설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 했다. “설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청중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설교의 유일한 주제이며, 설교자가 끊임없이 일해야 할 유일한 밭이다.”¹⁴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성서적 설교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편향적인 성경읽기이다. 성경을 부분으로만 보면, 자신이 보고 싶은 말씀만을 보게되는 경향성이 생긴다. 즉 편향적인 성경읽기로 치우치기 쉽다.¹⁵ 그 결과 설교자는 ‘편향적 성경 본문’ 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균형을 상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성경의 일부만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선물하신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¹⁶ 따라서 그 선물의 일부만을 중박해서 전달하는 일은 명백히 옳지 않은 일이다.

설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를 통한 복음 선포는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¹⁷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연중 자기주장과 생각의 인용문으로 여기고, 말씀 그 자체를 조

¹² 정장복, *설교학 서설* (서울: 엠마오, 1992), 80.

¹³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214.

¹⁴ William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 The calling of the ministry*, 채천석 역,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14.

¹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9), 20.

¹⁶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머릿속에서 드라마가 펼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란 글자나 문장을 읽는 것이기보다는 성경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 인물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기회이다.”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서울: 두란노서원, 2015), 30.

¹⁷ “설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문화를 바꾸고, 설교자가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사실, 설교자의 공동체에 희망, 치유, 빛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설교자 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다.” Hamilton, *말씀을 해방시켜라*, 7-8.

명하고 강화하는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 설교자의 현실이다.¹⁸

설교자의 자기주장과 생각의 인용문으로 삼는 부분적이고 편향적인 설교는 편향적인 성경 읽기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연구자는 편향적 성경읽기의 문제를 해결하여 편향적 설교를 치료하는 대안으로 ‘성경통독’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⁹ 왜냐하면 설교자는 성경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²⁰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본 논문에서는 설교자로서의 목회자가 성경 전부를 역사순²²에 따라 균형 있게 설교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경 전부를 균형 있게 설교하기 위하여 조병호의 통성경 읽기에 기초하며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40개의 ‘통성경 줄기(Tong

¹⁸ John MacArthur jr., *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김동완 역, *강해설교의 재발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18.

¹⁹ ‘성경통독’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을 기계적으로 읽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스윗의 말을 참고하라. “우리는 성경의 행뿐만 아니라 행간과 행이면과 행아래와 행너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되, 마치 우리 삶의 전부가 성경 이해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사실이 그러니까 말이다.” Leonard Sweet,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14), 136.

²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성경의 해석은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야 한다...우리는 문자 이상(以上)으로 믿어야 한다. 문자 이상으로 믿는다는 것은 첫째,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해석을 의미한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해석이다. 장경철, *신학으로의 초대*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09), 273-274.

²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0.

²² ‘역사순’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성경은 본래 사건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구약과 신약 모두 역사적 사건의 뼈대로 구성된다...성경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역사의 조명 아래서만 이해될 수 있다. 성경의 각 책에 나타난 사건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다. 역사적 안목으로 본문을 연구할 때만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Bryson & Taylor, *Building Sermons to Meet People’s Needs*, 정성영 역,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작성법*, 33.

Story Line)’ 를 1년 52주 설교 주제로 삼으려 한다. 또한 그 설교의 형식은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내러포(Narraphor)’ 설교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선행연구

박병도는 그의 논문 “성서정과를 따른 설교를 통한 설교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주의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에서 설교자는 성서정과를 따른 성경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회중은 개인적으로 성경본문을 읽으며 깨달은 것, 질문들을 가지고 설교에 참여하여 대화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설교를 들은 후에 소그룹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은 것과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해 피드백을 나누게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한 회중들은 성서정과를 따른 설교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²³

성서정과(Lectinary) 또는 성서일과(聖書日課)는 기독교에서 교회력에 따라 배치한 성서 읽기 표를 말한다.²⁴ 이 연구는 성경본문이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연중(年中) 설교의 흐름을 회중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는 본 연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력에 의존하다 보니 성경전체의 주제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설교로는 부족함이 드러난다.

전재균은 그의 논문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의 설교론적 활용 방안 연구” 에서 앞의 박병도의 논문처럼 성서일과를 설교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

²³ 박병도, “성서정과를 따른 설교를 통한 설교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주의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3), 국문초록.

²⁴ “성서일과는 영국국교회에서 시작되었고 북미의 교회들이 받아 들여 사용하였다. 그 후, 교회력에 관한 통일을 위해서 초교파 위원회인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위한 북미위원회(NACCL)’가 구성되어 공동으로 만들어 낸 것이 1983년에 완성된 ‘공동성서일과(Common Lectinary)’이다.” 남호,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 (서울: 도서출판 KMC, 2002), 49.

다. 구체적 적용은 박병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 전후에만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를 참조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설교자 임의의 본문과 제목으로 강단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방식으로 주일설교를 진행한다.²⁵ 그에 따라 설교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존하여 설교하게 됨으로 편향적인 본문선택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회력의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계획과 실행이 설교자나 회중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²⁶ 하지만 전재균의 지적처럼, 독창적인 노력을 결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교회력에 종속되어 회중들에게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²⁷ 교회력에 맞춰 설교계획을 세우면 최악의 경우, 3년마다 동일한 본문과 주제의 설교를 되풀이할 개연성이 있다(성서일과에는 가, 나, 다(3년 주기)가 있다).²⁸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력에 따른 설교는 성경을 편향되지 않고 통(通)으로 설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경의 역사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만영은 그의 논문 “한국교회 설교 위기와 극복의 가능성 연구”에서 이 시대 설교의 문제는 설교자의 취향에 따라 매우 불균형적으로 선포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설교자의 설교가 한 가지의 목적, 혹은 몇 가지의 주제에 집중하여 선포된다는 것은 그 불균형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했다.²⁹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

²⁵ 전재균,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의 설교론적 활용 방안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1.

²⁶ Ibid., 133.

²⁷ Ibid., 131.

²⁸ Andy Langford, *Transitions in Worship*, 전병식 역, *예배를 확 바꿔라* (서울: 도서출판 KMC, 2006), 33.

²⁹ 정만영, “한국교회 설교 위기와 극복의 가능성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1), 98.

기 위하여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별히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강해설교’가 대표적인 성서적 설교라고 했다.³⁰

전만영은 특히 데니스 레인(Denis J. V. Lane)의 정의를 인용하여 강해설교가 성경적 설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이라고 주장했다. 데니스 레인(Denis J. V. Lane)은 “성서의 강해란 성서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그 회중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설명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³¹라고 강해설교에 대하여 정의했다. 강해설교가 성서적 설교인 것은 사실이지만, 레인의 정의처럼 ‘성서의 특정한 구절’에만 국한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설교가 성경의 특정한 구절에 머물게 될 때 성경전체의 도도(滔滔)한 본류에서 벗어난 한 지류(支流)로 제한되어 연속성을 상실할 수 있다. 출판되어 있는 수많은 강해설교집을 살펴보면 성경 66권 전체가 아니라 특정 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레너드 스윗은 특정한 구절에 얽매이는 것을 ‘구절병’이라는 다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지적했다.³² 본 논문은 성경을 통으로 읽고 설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에, 전만영이 강조하는 강해설교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유광진은 그의 논문 “성경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내러티브 본문설교의 원리 및 실제”에서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러티브 장르에 맞는

³⁰ Ibid., 100.

³¹ Denis J. V. Lane, *Preach the Word*, 최낙재 역, *강해설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90), 31.

³²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지적을 참고하라. “지금까지 서구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를 ‘통(通)’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이 아니라 구와 절을 분석하고 나누어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9), 189.

설교 방법을 선택한다면 실제 설교에 있어서 회중들의 감성 혹은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 가슴에 오래 남고 기억될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했다.³³ 유광진은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에 맞는 설교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설교인데, 그 기초와 전제가 다소 불안하고 위험한 자유주의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대안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성경 중심적인 건전한 신학의 기초 위에 스토리텔링 설교가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유광진은 스토리텔링 설교가 회중의 감성을 자극하여 그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서 생각, 감정, 말과 행위와 습관을 담은 삶을 변화시켜 성경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했다.³⁴

이러한 내러티브 본문의 스토리텔링 설교는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내러티브 설교’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성경을 통(通)으로 읽고 통(通)으로 전하고자 하는 통성경 포물라와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설교는 그것이 가능한 ‘내러티브 본문’에 국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러티브 장르가 아닌 본문의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설교화(說教化)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유광진은 스토리텔링 설교를 위해서 성경에서 내러티브 본문들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³⁵ 문제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분류하면 결국 성경을 전체로 통(通)으로 보고 설교하는 것에는 실패하게 되리라고 본다. 스토리텔링적 요

³³ 유광진, “성경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내러티브 본문설교의 원리와 실제,”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78.

³⁴ Ibid., 77-79.

³⁵ Ibid., 176-177.

소가 없는 비(非) 내러티브본문은 사장되고 말 것이며 그에 따라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설교하려는 통성경 포물라의 주제들과는 너무 협소한 교집합(交集合) 영역이 남겨질 뿐이다.

로이드 존스(Lloyd-Jones)는 *목사와 설교*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며, 그것은 역시 명백하게도 세상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⁶ 그런데 이 진정한 설교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임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동안에는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³⁷고 말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애호하는 구절만을 읽으려는 경향이 있어 성경전체를 읽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성경을 전체로 읽는 것의 절대적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³⁸고 로이드 존스는 말했다. 또한 설교본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설교자의 ‘나쁜 버릇’이라고 경고하며³⁹ 늘 성경을 읽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는 본론문이 지향하는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본문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다가오면 계속 읽어 나가지 말고 멈춰 서서 그 구절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설교 뼈대를 완성할 때까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하며, 성경을 통으로

³⁶ D.M.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1.

³⁷ Ibid., 15.

³⁸ Ibid., 189.

³⁹ Ibid., 214.

읽는 것과 통으로 설교하는 것에 반(反)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사실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특정본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에 대한 집착은 심각한 수준이다. 총 6장 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가 8권으로 출간되었다.⁴⁰ 요한복음 17장의 강해설교는 네 권으로 출판되었는데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26절로 기록된 말씀을 그토록 많이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당성은 없다. 오히려 그 한 장에 집착함으로써 전체 성경을 균형 있게 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쁜 버릇’이다.⁴¹

김동환은 그의 책 *목사 웨슬리에게 설교를 묻다*에서 성경의 주제를 44편의 표준설교로 작성하여 회중들에게 전했던 웨슬리의 설교에 대하여 분석한다. 웨슬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늘가는 길’, 즉 ‘구원의 도리’를 아는 일이었다. 웨슬리는 소원대로 마침내 ‘하늘가는 길’을 알게 되었는데 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 그는 성경에 ‘하늘가는 길’이 있음을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 오직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 곧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되었다.⁴²

웨슬리는 1746년경, 자신이 행한 여러 설교에서 표준이 될 만한 설교를 선정했다.⁴³ 웨슬리는 자신이 14년 동안 행한 여러 설교를 추려서 4권의 설교집을 편찬한

⁴⁰ D.M. Lloyd-Jones, *An Exposition of Ephesians*, 서문장 역, *에베소서강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전8권.

⁴¹ 이와 관련한 워런 W. 위어스비의 말을 참고하라.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10년 간 설교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W. 그레이함 스크로지(W. Graham Scroggie)는 그의 사역 초기에 로마서에 대한 기나긴 연속 시리즈를 시작하였는데 회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성경 전체 중 한 권을 구구절절 끝까지 설교할 수 있는 재능을 부여받은 영혼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Warren W. Wiersbe, Howard F. Sugden, *Answers to Pastors' FAQ's*, 조천영 역, *목회자 지침서*, 제9판 (서울: 종합선교 나침반사, 1991), 55-56.

⁴²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설교를 묻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5), 4.

⁴³ Albert C. Outler, *John Wesley's Sermons : An Introduction*, 조종남 역, *웨슬리 설교 해설*,

다. 이 설교집은 모두 4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표준설교’ 라고 부른다. 웨슬리는 이 44편의 표준설교가 다른 메도디스트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웨슬리는 표준설교가 성경에 내포된 진리, 곧 하늘가는 길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 로 제시하기 위해 엄선한 것임을 밝혔다.⁴⁴ 웨슬리가 엄선한 44편의 표준설교는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구원의 도리’ 의 핵심인 것이다.

웨슬리의 44편의 표준설교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성경 포물라’ 에 따른 40개의 ‘통성경 줄기(Tong Story Line)’ 와 그것을 토대로 세운 1년 설교 계획과 형식상 부합할 수 있다고 하겠다. 40여개의 성경 주제는 일 년 간 설교 계획의 틀에 잘 들어맞는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엄선했기에 ‘통성경 줄기’ 와 의미상 공통점이 있다. 김동환은 초기 메도디스트 공동체처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려면 웨슬리의 표준설교 44편에 주목해야 하고 또 다시 읽고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⁵

그런데 김동환이 말하는 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은 성경의 전체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표준설교의 강조점은 ‘하늘가는 길’ , 곧 ‘구원론’ 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지향하는, 성경을 ‘통(通)’ 으로 보고 ‘통(通)’ 으로 설교하려는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생긴다. 웨슬리의 표준설교는 ‘구원론’ 에 집중 하고 있기에, 성경 속에서 흐르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라는 본류(本流)에서 조금 벗어난 지천(支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리중심 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76.

⁴⁴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설교를 묻다*, 5.

⁴⁵ Ibid., 7.

다는 스토리 라인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회중들은 ‘성경’을 모자이크의 단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웅장한 파노라마로 조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대하설교(大河說教)’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하설교는 대하소설이나 대하드라마처럼 성경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 시대적 배경과 함께 넓은 시야로 그리는 설교를 말한다.⁴⁶ 대하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마치,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한다.⁴⁷ 또한 현재 성경은 대체로 주제별로 혹은 종류별로 편집되어서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 시대순으로 재구성하여 읽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했다.⁴⁸ 이러한 주장은 본 논문이 다루는 ‘통성경’의 방식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점이다.⁴⁹

대하설교⁵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通)으로 읽지 않았을 때 설교에

⁴⁶ 대하설교는 노우호가 자신의 설교방송을 녹취한 형태로 구약 17권, 신약 10권, 총 27권으로 출판하였는데 그 내용은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을 참조하면 대하설교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http://www.ezrahouse.org/archive/transcripts.do>), ‘에스라하우스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ezrabiblelecture>).

⁴⁷ 노우호, *성경통독집* (서울: 도서출판 하나, 2007), 26.

⁴⁸ Ibid., 27.

⁴⁹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삼국지』나 『태백산맥』 같은 대하소설을 읽을 때, 순서대로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전체를 읽어내려 가는 것처럼 말이다.”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행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22.

⁵⁰ 대하설교를 주장하는 노우호는 성경에 기록된 설교 6편을 선정하여 (신명기서의 모세의 설교, 전도서를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설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테반의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 현대교회의 설교와 비교했다.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설교는 사소하고 작은 주제들이 중심인데, 이 대표적인 6편의 설교들은 그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있어서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했다.⁵¹ 어떤 설교가는 평생 동안 오바다서나 나훔서 같은 책은 읽지 않고 설교하지도 않은 채 무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레위기는 흥미 없는 책으로 간주하고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영적인 편식’ 습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⁵²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하설교를 제시했다.⁵³ 동일한 관점에서 성경은 사극(史劇)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박진감 넘치는 “역사 드라마의 교본”⁵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한국교회 강단 전반에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의 위기와 연구자가 목회현장에서 설교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극복 대안으로서 조병호의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며,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성경 포플라와 내러포 설교에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하여 정리할 것이다. 설교를 주제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자가 개발한 설교를 실제 목회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현장 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개발된 설교의 반응에 관련된

⁵¹ 대하설교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구절 또는 한 단어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큰 의미를 권위 있고 위엄 있게 선포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레너드 스윗이 현대교회 설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구절병’의 폐해와 같은 견해라고 볼 수 있다.

⁵² 노우호, *성경통독집*, 28. 노우호가 발표한 대하설교를 위한 커리큘럼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총 54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이다. 이 주제들을 주일예배 설교로 전부 시행하려면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요구된다. 545개의 주제들을 주일예배 설교로 적용 하는 동안 처음 주제와의 시간적인 간극(間隙)은 갈수록 심하게 벌어질 것이며, 성경의 역사순 ‘흐름’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www.ezrahouse.org/archive/transcripts.do>.

⁵³ 그러나 대하설교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포플라가 세워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며 성경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통성경 포플라’와 같은 정교한 방법론이 연구 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다음 세대에 믿음을 이어줄 통로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기독교 유산을 전달할 재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⁵⁴ 류모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서울: 두란노, 2013), 17.

부분, 즉 회중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및 좌담회를 개최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된 설교는 총 52회 분량이다. 이 설교는 2015년 52주 동안 주일 낮 11시 예배에서 전달되었다. 설교의 평균시간은 35분에서 40분 사이이며 최대 45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통성경 내러포 설교’에 대한 전체 회중들의 반응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했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 22일 주일 낮 11시 예배 후에 본 교회에서 실시했고, 설문지는 120명의 회중에게 배포했는데 그 중 98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의 문항 수는 총 25문항이고 그 내용은 첫째, 교인의 인적 사항 및 교회에 대한 관심도. 둘째, 설교에 대한 회중의 자세. 셋째,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에 대한 것이었다.

2015년 11월 22일 교회 평신도대표들(총 11명)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의 내용을 조사하여 통성경 내러포 설교에 대한 기존 신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2015년 11월 29일 새가족대표들(총 10명)과 좌담회를 열어서 기존 회중과, 새롭게 등록하고 정착 중인 회중 두 그룹에 대한 설교 반응을 비교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와 방법의 결과는 연구의 3장과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는 한국교회와 연구자의 목회현장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극복해야 할 설교의 위기는, 성서만을 설교하고 성서 전부를 설교하며 성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성경적 설교’에서 벗어난 것에서 비롯된다.⁵⁵ 이와 같은 설교의 위기⁵⁶ 극복을 위하여

⁵⁵ “교회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며, 성서 부분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짓지

조병호의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는 회중이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이해하게 하며, 이야기와 은유의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 모두에게 일어날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통성경과 내러포설교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 자료의 한계성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일반적인 설교의 개념이나 이론, 설교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판단되기에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생략하기로 한다. 같은 이유로 설교학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을 진행시키지 않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인 내러포 설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러티브 설교에 대하여는 그 핵심적인 이론과 주장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는 2015년 1년 52주로 한정하며 공간적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34에 위치한 함안중앙교회와 그 회중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회중에게 선포된 연구자의 설교 가운데 주일 낮 11시 예배 설교를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 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기로 한다.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성서를 사용할 때는 전적으로 일부 선택된 부분들 - 복음서들, 시편, 바울서신과 예언서들의 일부 - 에만 국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마치 그것들이 전혀 쓰여진 바도 없는 것처럼 무시해 버린다. 그 결과 우리는 가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애석하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을 그 본문의 맥락을 떠나 취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가장 깊은 의미를 놓친다.” John Bright, *The Kingdom of God*, 박일영 역, *하나님의 나라*,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컨콜디아사, 1996), 6.

⁵⁶ “오늘날 교회가 겪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설교에서 비롯된다. 설교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는 개신교 전체의 위기이다.” 김동건, *김동건의 신학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05.

제 II 장

통성경 포물라와 내러포 설교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

통성경 포물라와 내러포 설교에 관한 이해

최근의 성경 읽기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와 둘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이다. 산드라 M.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는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의 관심사는 텍스트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언어로 기록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어떤 과정(저자의 진정성, 사본)을 거쳐 전달되었으며, 실제 역사와 기록된 내용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가 제시하는 여러 신학적 입장들과 이 입장들 간의 관계와 이 입장들과 주위의 사상 세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밝혀내는 것이다.¹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의 관심사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의 관심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오직 실존적 진리에 집중한다.²

성경 번역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더 활발하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20세기 “개신교의 선교 폭

¹ 윤철호, *신뢰와 의혹*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29.

² Ibid.

말”³ 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⁴ 이제 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최근에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분히 이데올로기 적 관점으로 경도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⁵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지 못한다. 성경을 오직 하나의 렌즈로만 바라보게 되어 진리를 제한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⁶ 따라서 앞으로의 성경 읽기는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와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의 여러 관점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그 자체로서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통(通)으로 바라보는 성경 읽기가 요청된다. 통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역사적인 모든 성경 읽기 방식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³ 1800년에 들어서며 천주교 선교 사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1773년 예수회는 폐지되었고 프랑스 대혁명과 그 뒤를 이은 혼란으로 인하여 유럽의 경제적 후원이 삭감되었다. 이 시점에서 개신교가 선교 사역을 이어받았고, 개신교 선교사들은 탄탄한 구조의 선교 단체들로 무장했다. 이 개신교의 사역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선교 활동의 폭발로 확장되었다. Richard J. Foster, *Steams of Living Water*, 박조엔 역, *생수의 강*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0), 419-423.

⁴ 김성병, “성경교육으로서의 성경통독 방법론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20.

⁵ Ibid.

⁶ “성경읽기의 편향성은 군사정권이 서양의 근대화를 모방한 경제성장 중심의 산업화를 서둘러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불법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저항 세력을 압제하는 상황 가운데, 지배집단과 소외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져 가던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의 소위 진보진영은 기독교의 사회비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보수진영은 기독교 복음의 선포에 초점을 맞추었다...양 진영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의 본문 역시 편향성이 짙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160-161.

녹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⁷ 모든 그리스도인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 내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통으로 바라보는 성경 읽기이다.⁸

그런 의미에서 조병호는 2006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읽기의 방식으로 ‘통(通)’을 최초로 말했으며, 성경통독과 강해의 장점을 통으로 묶어서⁹

‘통성경화(TongBiblization)’ 하는 것을 통(通)성경의 목적으로 삼았다. 통성경화란 구체적으로 다음 5가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The Bible is a thin book.)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The Bible is the one book worth reading aloud.)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음성으로 읽어야 한다.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 (The Bible is the one book worth reading 10 times in one year.)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The Bible is the one book that contains the Heart of God.)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The Bible is personal, family-oriented, national, and for all nations.)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주신 내용부터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¹⁰

⁷ Ibid., 189.

⁸ “성경통독의 목적은 성경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자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구이자, 실천의 땀을 흘리는 장(場)으로 나아가는 출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받음직한 섬김을 이루어내는 실천, 그 실천의 현장 속에서 성경의 구절구절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병호, *성경통독, 개정증보5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643.

⁹ “성경강해는 서양의 특징인 합리와 이성의 측면을 잘 발달시켜 성경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반면 성경통독은 동양적인 학습방법이다...성경통독은 성경 66권을 계속 읽음으로써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성경이 의미하는 큰 줄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동양적인 학습방법이다.” 이동환, “특집대담 조병호 박사,” *목회와 신학*, 2012. 3, 50.

¹⁰ 조병호, *통(通)성경 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10-11.

‘통성경화’란 이상의 다섯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통성경 포물라(Formula for Tongbible)는 조병호가 25년간 성경통독을 인도해오면서 지향해온 통성경화(TongBiblization)를 위한 방법론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공식(公式)¹¹이다.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1,500공간과 5,000인간을 담은 하나님의 통(通)드라마이다.¹² 이 하나님의 통(通)드라마는 5단계로 나뉘서 공부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통성경화를 위한 공식인 통성경 포물라(Formula for Tongbible)인 것이다. 통성경 포물라의 5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2> 통성경 포물라 5 단계

	명 칭	내 용	해당 교재
1 단계	바이블 통트랙스 7분위기	성경 전체를 7개 고리(trac)로 정리하고 연결하여 성경의 큰 그림을 쉽게 가르친다.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¹³
2 단계	하나님의 마음읽기 20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전체의 흐름에 따라 통으로 읽는다.	『성경통독』
3 단계	성경 내용정리 40과	성경의 핵심내용을 40개의 스토리 라인으로 정리 요약한다.	『통성경 길라잡이』

¹¹ 공식(公式, formula)은 보통 수학이나 과학, 경제학 등에서 어떤 연산을 빠르게 계산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을 말한다. 방정식, 등식, 항등식, 부등식을 포함해서 수학적 기호로 나타낸 규칙 또는 원리이다.

¹² 조병호, *통(通)성경 길라잡이*, 5.

¹³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4 단계	성경 일년일독 365일	365일 동안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한다.	『일년일독 통독성경』 ¹⁴
5 단계	성경과 세계사 27과	성경과 세계역사를 동시에 공부한다.	『성경과 5대제국 스터디북』 ¹⁵

위의 통(通)성경 포물라의 5단계 가운데 제 3단계인, 성경의 핵심 내용을 40과로 정리하는 통(通)성경 ‘40 스토리 라인’을 토대로 연간 주일 예배 설교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그것이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내러포(narraphor)는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성어로 레너드 스윗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스윗에 의하면 내러포는 이야기와 은유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다. 그는 내러포를 “이야기의 접근성과 근접성을 가진 은유적 이미지의 힘”¹⁶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주 이야기와 은유라는 용기(用器)에 담겨 상품화되고 있다. 기업들도 제품 보다는 이야기와 은유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레너드 스윗은 “오늘의 문화는 단어가 아닌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¹⁷ 그리고 『황금 나침반(The Golden Compass)』의 작가인 필립 풀먼(Philip Pullman)의 입을 통해서 훌륭한 이야기의 매력을 이렇게 표현했다. “여러 권의 철학책보다 이야기책 한 권에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¹⁸ 또한 스윗은 내러포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우

¹⁴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¹⁵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스토리북*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¹⁶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37.

¹⁷ Ibid., 156.

¹⁸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Colorado Springs, CO: WaterBrook Press, 2008), 101.

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은유로 만들어진 이야기” 라고 설명했다.¹⁹

우리는 은유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은유는 마음의 일상 언어이다. 문학가와 예술인들의 분야이기도 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방식이기도 하며, 우리의 언어를 동물 세계의 언어와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언어학자 ‘조지 라코프’ (George Lakoff)는 이성은 은유와 이미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²⁰ 은유와 이미지에 대한 필요는 교회에서 더욱 절실하다. C. S. 루이스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은유이다.” 라고 했던 말은 적합하다.²¹

한편, 레너드 스윗은 내러포가 EPIC²²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EPIC적 내러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첫째, 경험적(Experiential) 내러포이다. 스윗은 “사람들이 설교를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단지 지적으로 만이 아니라 감각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고 했다. 이미지와 은유를 기반으로 하는 내러포는 감각

¹⁹ Leonard Sweet, *From Tablet to Table: Where Community is Found and Identity is Formed*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14), 3.

²⁰ Leonard Sweet, Brian D. McLaren, and Jerry Haselmayer, *A is for abductive*, 김영래 역,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187. 이미지와 은유와 관련한 조지 라코프(George Lakoff)의 말을 참고 하라. “전통적인 관점은 이성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으며, 객관적으로 참 혹은 거짓일 수 있는 명제로서 주로 이해하였다. 새로운 관점은 이성의 상상적인 양상 - 은유, 환유, 심상 -을 문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부속물이라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중심으로 받아들인다.”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xi에서 재인용.

²¹ Sweet, *Giving Blood*, 40.

²² 에픽(EPIC)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의미가 살아 숨쉬는 이미지/Images), 관계(Connection). 에픽(EPIC)은 경험과 참여와 이미지와 관계의 첫글자로 만든 약어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 패러다임의 네 가지 핵심요소인, 이해(Understanding), 대리(Representative), 글(Words), 개인(Individual)을 대체하는 것이다.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20-21.

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²³

둘째, 참여적(Participatory) 내러포이다. “참여는 경험의 중재자이며 내러포에게 생기를 주는 요소가 된다.”²⁴ 스윗은 참여가 상상력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현재의 세계에 있는 그들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다른 세계로 옮겨주는 방법인 ‘귀추적 방법’ (Abductive method)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 귀추적 방법²⁵은 설교자들이 비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²⁶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가 만든 ‘귀추적 논증’ (*Peirce’s Theory of Abduction*)이라는 문구는 설교와 모든 의사소통에 있어서 강력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²⁷ 퍼스는 역사상 ‘귀추적 방법’을 완벽하게 발전시키고 활용한 최초의 사람은 나사렛 예수였다고 말한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 13:34)²⁸

셋째, 이미지적(Image Rich) 내러포이다. 요즘의 교회는 지나치게 로고스(Logos)중심적이다. 즉 말에 기초하며, 이미지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이미지-풍요(Image Rich)의 혈통에서 소외되고 있다.²⁹ 글로 표현된 명제적 사고는 모던적 사고방식이고 이것은 오늘의 포스트모던적 상황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²³ Sweet, *Giving Blood*, 48.

²⁴ Ibid., 50.

²⁵ ‘가추적(transductive 또는 transincarnation) 방법’이라고도 부른다.

²⁶ Sweet, McLaren, Haselmayer,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22.

²⁷ Ibid., 23.

²⁸ Ibid., 25.

²⁹ Ibid., 186.

있는 내러포적 표현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³⁰ 설교를 창작할 때도, 글의 “요점이 무엇인가?” 를 묻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³¹

넷째, 연결적(Connective) 내러포이다. “우리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가장 영적인 경험이다. 인간들 사이의 연결,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연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은 모두 상호 연계되어 있다.³²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내러포의 역할이다.³³

이렇게 EPIC적 내러포의 요소들인, “현재 경험, 이야기, 은유 또는 이미지 등이 설교에 도입될 때 그것은 큰 설교의 목적에 공헌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위해 사용된다.”³⁴ 그런 의미에서, 내러포 설교는 성경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지와 은유를 포함시켜 회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³⁵ 그리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에 그 분의 자녀로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내러포 설교의 목적이라고 하겠다.³⁶ 내러포 설교를 통하여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³⁰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년), 535.

³¹ Sweet, McLaren, Haselmayer,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23.

³² Ibid., 75-76.

³³ Sweet, *Giving Blood*, 23.

³⁴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서병채 역, *설교자는 증인이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249.

³⁵ “성경의 언어는 이야기다. 우리는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단어를 쓰지 않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실상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떡과 포도주처럼 이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Leonrd Sweet,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9), 178-179.

³⁶ “핵심 단어는 가입이 아니라 ‘동참’이다...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에 사람들을

그 방식대로 성경을 자녀에게 교육하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³⁷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성서적 이해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 곧 내러포(narraphor)는 세상을 의미 있게 이해하고, 삶을 풍성하게 파악하게 하는 언어적 수사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은유의 대가가 되는 것” 이라고 했다.³⁸ 성경에서도 이야기와 은유는 하나님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었다.³⁹ 성경의 형태는 철학이 아니라 내러티브이며,⁴⁰ 기독교는 철학자와 과학의 세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인과 이야기꾼의 세계다.⁴¹ 성경학자 토머스 슈미트(Thomas Schmidt)는 “성경에서 시와 순수한 교리의 비율은 적어도 5:1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포함하여 - 이야기와 비유로 되어 있다.” 고 추정한다.⁴²

동참시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책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에 관한 책이다.” Leonard Sweet, *The Three Hardest Words*, 윤종석 역,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31.

³⁷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그 맛을 느낀 후에는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찾아 나설 것이다. 또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342.

³⁸ Bruce Mawhinney, *Preaching with Freshness*, 오태용, 김광점 역, *목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6), 332.

³⁹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8.

⁴⁰ Sweet,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54.

⁴¹ “우리는...성경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들려주는 장엄한 이야기에 꼭 빠져든다. 성경에 제시된 명령, 연설, 이야기, 시(詩), 경고, 약속, 완전한 계시의 노래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동을 닮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점차 변해간다.” Eugene H. Peterson, Marva J. Dawn, *The Unnecessary Pastor*, 차성구 역,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서울: 좋은씨앗, 2001), 56-57.

⁴² Thomas E. Schmidt, *A Scandalous Beauty: The Artistry of God and the Way of the Cross* (Grand Rapids, MI: Brazos, 2002), 8. Sweet,,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56에서 재인용.

아힘 에르트너와 홀거 에쉬만은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에서 이야기 설교 즉 내러티브 설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념중심의 추상적 연설방식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잘 드러내기에 충분한 방식이 아니라는 신학적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며,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그분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사람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언어 형식은 ‘이야기’이다.⁴³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식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기호들을 읽고, 기호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셨으며, 우리에게 기호를 배우도록 도전하셨던 것이다.⁴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기호를 배워야 예수님께서 성경이라는 지면(地面)에 ‘손으로 쓴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바르트(Karl Barth)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설교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이것은 설교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⁴⁵고 말했다. 바르트는 4복음서가 지향하는 바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란 결국 이미 일어나 화해 사건을 이야기 식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 무엇으로 우리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⁴⁶ 설교자는 이 복음서의

⁴³ Härtner,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43.

⁴⁴ Leonard Sweet,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10), 277.

⁴⁵ Karl Bart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rans. B. E. Hooke (Philadelphia: Westminster, 1963), 54.

⁴⁶ 이형기,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23.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증언하고 선포해야 한다.⁴⁷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 방식으로 전하지 못하고 원리와 원칙이라는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욱 부각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⁴⁸ 존 맥아더(John McArthur)는 한국교회를 위한 조언에서 “미국이 기독교를 잃어버리는데 300년 걸렸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짧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 그것은 성경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성경의 부재(不在)에서 비롯된다고 했다.⁴⁹ 오늘날 직면한 설교의 문제도 성경 방식의 부재와 직접 관련이 있다.

포사이스(P. T. Forsyth)는 말하기를 “설교자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최대의 설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를 파악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소개받고 신자가 된다. 성경은 다른 어떤 역할에 비해서 탁월한 설교이며 케리그마이다.”⁵⁰ 라고 했다. 포사이스의 말처럼 성경이 이미 하나의 설교라면 그 설교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로서의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큰 그림들이 담고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직면한 설교의 위기도 성경의 방식인 ‘이야기’와 ‘은유’

⁴⁷ Ibid.

⁴⁸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51.

⁴⁹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6.

⁵⁰ P. T. Forsyth,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New York: Eaton and Mains, 1907), 10.

즉, ‘내러포’ 방식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⁵¹ ‘내러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야기와 은유로 만들어졌고, 이야기와 은유로 전달되었으며, 이야기와 은유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⁵² 따라서 설교 방법 역시 이야기와 은유를 이야기와 은유 자체로 읽고 듣고 전하는 내러포 방식이어야 한다.⁵³ “이야기, 이미지, 유추들 그리고 경험은 단순히 설교에서의 장식이 아니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활동적인 요소들이다. 그들은 청중들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⁵⁴ 따라서 ‘이야기’와 ‘이미지’⁵⁵ 그리고 ‘은유’로 전달되는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된다.

휘튼대학의 릴랜드 라이켄(Leland Ryken)교수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설교나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스토리이며, 시이며, 환상이며, 편지이며, 문학형태이며 상상력의 산물이다.”⁵⁶ 이처럼 이야기이며 은유로 표현된 성경을 “특수하고 전문적인 개념들의

⁵¹ “현대 세계는 언어에 근거를 두었다.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겨버린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가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받을 대담고 있다.”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3.

⁵²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46.

⁵³ 할리우드에서 영화 <모세>를 다시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기자가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에게 물었다. “할리우드가 성경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피버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성경은 스토리의 보고이고, 할리우드는 전달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서울: 쿤란출판사, 2015), 17.

⁵⁴ Thomas G. Long, 서병채 역, *설교자는 증인이다*, 242.

⁵⁵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는 상상력을 놀랍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유, 은유, 수수께끼, 비유, 역설 등을 사용하셨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이 땅의 일상적인 것들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하셨다...예수님은 사람들의 ‘귀’에 말씀하시지 않고 ‘눈에다’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보고’ 응답하였다.” 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이미지에 담긴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7), 126-127.

⁵⁶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14. 스윗의 말과 비교하라. “성경은 편지, 비유, 설교, 시, 역사, 전기, 전례(典禮), 노래 등 많은 것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배후, 모든 것의 배경에는 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가 있다. 하나님이 본래 성경을 무슨 명제를 캐내거나...분해하고

체계로 취급한다”⁵⁷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18-19세기 신학이 범한 대표적인 과오라고 할 수 있다. 내러포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전하는 것은 이 잘못된 신학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⁵⁸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대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각 사회문화와 언어적 공동체들과 여기에 속한 개인들의 이야기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일은 설교자에게 중요하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와 인간의 상황과의 관계를 설교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⁵⁹ 설교자는 성경에서 출발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회중들이 깨닫고 그것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한다.⁶⁰ 다시 말하면, “성경의 대하 드라마가 본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그 자체 안에 내포할 수 있음”⁶¹을 가르쳐야 한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중들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하는 청중에 대하여 성경적인 설교를 전달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설교자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비록 설교의 본질은 바꾸지 않더라도 그 방법론의 변화를 도모해서 효과적인 설교 사역을

분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읽어야 가장 맞다.” Sweet, *관계의 영성*, 127-128.

⁵⁷ 이형기, *성경의 내러티브 신학과 교회의 공적책임* (서울: 한들출판사, 2010), 45.

⁵⁸ 이와 관련한 레너드 스윗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고 하라. “포스트모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것은 구속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포장한 ‘비유’가 아니라 현대적 교리와 율법으로 전달했기 때문은 아닌가?”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5.

⁵⁹ “...인류 최고의 경전, 성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난다.” 김중기, *삶에 적용하는 구약*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09), 6.

⁶⁰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굳이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성경을 이야기로 읽지 않고 거기서 교리나 진리를 찾아내려고 했다. 지금도 성경의 개요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사건의 개요를 이해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20.

⁶¹ 이형기, *성경의 내러티브 신학과 교회의 공적책임*, 214.

더욱 왕성하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⁶²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2)

이와 관련하여 레너드 스위트의 말은 주목할 만 하다.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 메뚜기 재앙을 통해, 발람의 당나귀를 통해, 바빌론을 통해, 문설주에 바른 피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여진 조롱의 죄패를 통해, 십자가 자체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면, 데코 건축 양식, 추상적인 표현주의, 버질(Virgil)의 아이네이드(*Aeneid*)같은 고전문학, 매스 미디어, 질병, 디즈니, 기아, 트위터(Twitter)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⁶³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교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전통적인 설교학만을 고수하는 것은 강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동시에 성숙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며 기독교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1971년도에 크래독(Fred B. Craddock)의 『*권위 없는 자처럼*』(*As One without Authority*)⁶⁴을 필두로 일단의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

⁶² 이와 관련한 레너드 스위트의 말을 참고하라. “초기 유대인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정체성과 윤리라는 주성분’(성품)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방식의 차이’(정황)에 그들을 믿음을 활짝 개방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각 정황마다 모습을 달리했다.” Leonard Sweet, *Jesus Drives Me Crazy!*, 윤종석 역,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69-70.

⁶³ Sweet, *Nudge*, 43.

⁶⁴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St. Louis: Chalice Press, 2001), 7.

다. 설교학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을 ‘새 설교학’ (New Homiletics)이라고 부른다.⁶⁵ 그리고 이들의 주요 과제는 역시 변화하는 시대와 청중들에 맞춰 설교 방법론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방법론은 바로 이야기와 은유로 전달하는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방법’ 이고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은 설교자와 청중에게 설교의 내용만이 아니라 설교의 방법까지도 끊임없이 상기 시킨다.⁶⁶

크래독은 설교자가 반복적인 질문에 응답해야 함을 강조한다. 반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설교가 성경 본문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⁶⁷ 이 질문은 설교가 교회 안에서 살아 있는 목소리로 그 본문을 제시해 주고 있느냐의 여부를 밝혀내는 기준이 된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크래독(Craddock)은 설교자가 범하는 죄 가운데 심각한 죄는 다름 아닌 설교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강단에 필요한 것은 이 설교가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게’ 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이다.⁶⁸ 분명한 것은, 설교자가 회중이 성경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 안에 살도록 초대하여, 구원의 놀랄만한 드라마라는 방법에 의해 그 삶과 목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어서 내러포 설교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⁶⁹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

⁶⁵ 1970년대 ‘새설교학’ 운동의 원인은, 1960년 이후 북미교회가 격한 문화 붕괴(culture breakdown)를 경험함에서 비롯된다. 주승중, *성경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05-306. 한광희,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성경적설교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4) 34에서 재인용.

⁶⁶ Fred Craddock, *Preaching*, 이우제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2), 40.

⁶⁷ Ibid., 41.

⁶⁸ 조병호, *통성경 포물라 지도자 노트* (서울: 통독원, 2014), 11.

⁶⁹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7.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은유 또는 이미지다...은유는 상상력 속에 진리를 담는다...”

주 좋아한다는 것은”⁷⁰ 설교자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설교가 ‘어렵고, 지루하고,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설교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크래독(Craddock)의 설교학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그의 목회환경이 연구자에게 주는 공감대와 소망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자의 삶의 자리가 되는 함안중앙교회의 목회 환경은 대도시로부터 떨어진 군(郡)단위 소읍의 시골교회이다. 그런데 크래독(Craddock)의 목회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미국 조지아 북부 산간지역에 있는 ‘체리 록 크리스천 처치’의 설교자로 섬기며 그 곳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설교학적 체계를 잡았다.

현재, 수많은 목회관련 자료들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정당성을 얻어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들이 소개하는 목회 자료들과 목회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도심지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본 교회와 같은 시골 지역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차이점을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크래독(Craddock)의 설교학은 본 연구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함안중앙교회에 소망을 준다. 크래독(Craddock)이 설교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킨, 그 유명한 『권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이라는 책을 저술한 곳이 조지아 북부의 블루리지 마운틴(Blue Ridge Mountain)에 자리 잡은 작은

⁷⁰ Joel B. Green, Michael Pasquarello III, *Narrative Reading, Narrative Preaching: Reuniting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Proclamation*, 이우제 역, *내러티브 읽기·내러티브 설교*, (경기: 크리스찬 출판사, 2006), 226.

산장이었다.⁷¹

크래독의 책을 읽으며 그의 설교학의 산실(産室)이 블루리지 마운틴(Blue Ridge Mountain)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연구자의 머릿속에서는 존 덴버의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s’⁷²의 가사가 떠올랐다. 거기 나오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골 풍경 ‘블루리지 마운틴(Blue Ridge Mountain)’과 ‘셰넌도어 리버(Shenandoah river)’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수 백 번도 넘게 부르며 너무나 친숙하게 된 장소였다. 바로 그 곳이 크래독의 삶의 자리였고 목회현장이었다. 그것을 발견하자 크래독의 책을 읽는 동안 흥분이 가라 앉지 않았다. 그의 저작은 경남의 시골교회를 섬기는 연구자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다. 시골교회의 상황에서 그토록 훌륭한 설교학의 꽃이 피었고, 그 꽃으로 인해서 새로운 설교학의 지평이 열렸다는 것은 동일한 시골교회 설교자인 연구자에게 가슴 벅찬 비전으로 다가왔다. 더불어 설교에 관하여 제 몫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다는 비장함도 생겼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성경적 근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경은 십계명과 산상수훈처럼 많은 명제적이고 교의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비내러티브(nonnarrative) 말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명제들마저도 위대한 이야기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다.⁷³ 신학들과 명제들을 담아내기 위해 이야기를

⁷¹ Craddock, *크래독의 설교 레슨*, 8.

⁷² ‘Take Me Home, Country Roads’,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omma. Take me home, country roads”(by John Denver, 1971)

⁷³ Calvin Miller, *Preaching: The Art of Narrative Exposition*, 박현신 역,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4), 237.

활용하는 것이며 이 이야기는 ‘큰 이야기’ (metanarrative)이다.⁷⁴ “성경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이야기’이다.”⁷⁵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성경의 가르침은 구속사 적인 스토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의 신학을 찾기 위해서는 ‘스토리’로 가야하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⁷⁶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적인 문학적 양식이 아니라 성경이 영감 되도록 하신 하나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빅 스토리(Big Story)’를 전달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⁷⁷ 성경에 담긴 이 “빅 스토리(Big Story)”의 골격과 근육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내러포(narraphor)’, 즉, ‘이야기’와 ‘은유’이다.⁷⁸ 이 사실은 설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교는 이야기(The Story)이고 설교자의 임무는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야기를 만들어 그것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지 조직하는(organize)것이 아니다.”⁷⁹ 그러므로 설교자가 내러포로 이루어진 성경을 내러포 방식으로 설교하는

⁷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던 ‘메타내러티브’란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총체적 체계나 원칙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논문에서는 ‘이야기(내러티브)’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메타내러티브’란 문자적으로 주요 내러티브, 즉 ‘큰 이야기’라는 뜻이다. 현재 끝나가고 있는 모든 세계에서 ‘메타내러티브’는 ‘큰’의 요건은 충분했지만 ‘이야기’ 쪽은 부족했다. 그것은 큰 그림이나 큰 이야기 보다는 오히려 큰 ‘요점’이나 큰 ‘원리’나 심지어 큰 ‘규칙’에 훨씬 가까웠다.” Sweet,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32.

⁷⁵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27.

⁷⁶ Miller,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237.

⁷⁷ Ibid., 239.

⁷⁸ “이야기 신학은 성경이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못지 않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과,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려주고 거듭 설명하는 이야기가 ‘뼈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김기철 역, *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복있는사람, 2014), 305-306

⁷⁹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8-9.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하겠다.⁸⁰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신학적 이해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가 근간이 되는 내러포(narraphor)의 신학적 근거는 고대 교부들의 신학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⁸¹ 이형기는 그의 책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에서 내러티브신학 곧, ‘이야기 신학’의 발자취를 고대 교부들의 신학에서부터 현대신학에 이르기까지 소급 추적하였다.⁸² 그런 방대하고 집요한 추적을 감행한 이유는 성경적 내러티브 신학이 18-19세기 유럽 개신교 신학(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일식(日蝕) 현상으로 빛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⁸³ 그는 근대 이전 시기(pre-modern period)에 속하는 고대 교부들의 신학들 속에는 성경의 내러티브 신학이 빛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⁸⁴ 그래서 이들로부터 “성서 이야기의 몰락”⁸⁵을 중단시

⁸⁰ “우리가 강조하는 ‘내러티브 성경 읽기와 내러티브 설교’는, 다른 설교 방식보다 더 효용 있는 어떤 설교방식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문들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담화의 방식이나 장르와 관계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내러티브’는 창조와 구속, 종말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일관성에 대한…신학적 통일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지칭하는 것이다.” Green, Pasquarello III, *내러티브 읽기·내러티브 설교*, 30.

⁸¹ 이와 관련하여 고대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의 주장을 참고하라. “2세기 리옹(Lyon)의 주교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영지주의자(the Gnostics)의 성경읽기와 설교로부터 교회의 성경읽기와 설교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지주의적 주해는 성경을 종교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획득하고 보여주는 불연속적인 기회의 집합이라고 간주했다. 쟈슨(Robert W. Jenson)은 이것을 성경에서 한 번에 하나씩 스토리와 격언, 지혜, 규율들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적 행위에 비유한다. Green, Pasquarello III, *내러티브 읽기·내러티브 설교*, 229-232.

⁸² 이레니우스의 명저인 “이단에 대한 반론” (*Against Heresies*)은 영지주의적 성경 읽기를 고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한 더 큰 성경이야기의 틀과 스토리 그리고 배우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본질적으로 스토리의 권위, 또는 주요한 내레이터(primary narrator)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대한 이야기(grand story) 안에 기술된 신적 복음(a divine Gospel)이다.” Ibid.

⁸³ 이형기,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 11.

⁸⁴ “이레니우스는 설교자들이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각각의 본문을 읽고, 전체 정경(whole

키고 잃어버린 빛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18-19세기에 나타난 ‘내러티브 신학의 일식 현상’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은, 성경을 구속사를 배경으로 하는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명제 하나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⁸⁶ 즉, 성경의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신학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들, 진리들, 명제들(단어 하나하나, 명제 하나하나 그리고 구절들과 단락들) 그 자체를 교의적 진리의 자료로 삼았다.⁸⁷

빛의 세기(世紀)라는 뜻의 ‘계몽주의(啓蒙主義)’ 로 인하여 이야기 신학은 오히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암흑시대를 경험했다. 계몽주의 성서 해석자들은 성서의 이야기식 구조를 혐오했고, 오로지 성서에서 명제적 진리를 뽑아내는 것에 몰두했다.⁸⁸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 신학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면 경직된 성경관을 계속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⁸⁹ 그 결과 성경읽기와

cannon) 안에서 개별적 설교 본문을 위치시키도록 가르쳤다. 기독교 정경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온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온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 설교자들은 그 전체 스토리의 구성(story's plot)과 등장 인물들(characters)을 알아야 한다.” Green, Pasquarello III, *내러티브 읽기·내러티브 설교*, 232.

⁸⁵ 예일대학 교수였던 한스 프라이(Hans Frei)가 펴낸 책 제목. Hans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Biblical Hermeneu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4).

⁸⁶ 이와 관련한 Elizabeth Achtemeier의 지적을 참고하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도록 성경의 장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설교하려 한다면 반드시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 효과를 낼 수 있는 말과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명제’로 바꾸는가?”.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33.

⁸⁷ 레너드 스윗은 2007년 5월 22일 잠실에서 열린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에서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것은 각 구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과 ‘성경 전체를 읽으면 이야기가 보이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http://www.usaamen.net/news/board.php?board=korea&page=64&command=body&no=552>, (2016년 1월 23일 접속.)

⁸⁸ McGrath, *신학이란 무엇인가?*, 306.

⁸⁹ Ibid., 230.

설교에 있어서도 성경의 모든 ‘사실들’ 또는 ‘진리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직접적으로 신학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여기며,⁹⁰ 교회는 이야기와 은유가 아닌 요점과 원리에 매달려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¹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신학 운동 가운데 하나인 ‘이야기 신학’⁹²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이야기 신학’은 북미에서 크게 발전했고, 특히 예일 신학교와 거기서 활동한 한스 프라이, 조지 린드백, 로널드 티에만 같은 학자들에 의해 유명해졌다.⁹³ 이야기 신학은 학문적 신학 저술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추상(abstraction)이라는 따분한 관념을 거부한다. 그 대신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씩씩하게 만든다.⁹⁴ 그리하여 명제적 진리들은 구속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내러티브)에 굴복하게 하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승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전제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한다.⁹⁵

이형기는 성경적 내러티브 신학을 “5부작 대하 드라마”⁹⁶로 요약하고 이 5부작 대하 드라마는 종말론적인 통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 “5부작 대하 드라마”를 3부작으로 편집한다면 조병호의 통(通)으로 본 “A·The·His

⁹⁰ Ibid., 231.

⁹¹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7.

⁹² 이야기 신학은 20세기 말에 나타난 신학사조로서, 이야기는 성경의 해석과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주(category)가 된다는 사상이다.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86.

⁹³ *신학이란 무엇인가?*, 306-307.

⁹⁴ Ibid., 307.

⁹⁵ 이형기,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 231.

⁹⁶ Ibid., 464.

Kingdom Story(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⁹⁷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성경 전체의 큰 우산인 ‘제사장 나라’ (A Kingdom) 이야기와 신약성경 전체의 큰 우산인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이야기와 사도행전 이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나라’ (His Kingdom) 이야기가 그것이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는 이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성경의 대드라마를 이야기와 은유의 전달방식으로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⁸ 사실, 내러포 설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설교에서 주로 사용하신 “비유(parable)는 내러포의 결정체이다.”⁹⁹ 예수님은 요점을 통해 주지시키는 직설적 교훈보다 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셨다.¹⁰⁰ 설교의 진정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완전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열어 보이는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¹⁰¹

‘은유(metaphor)는 가장 간단한 이야기다.’ 은유는 어떤 낯선 것을 낯익은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를 쉽게 전달하려는 표현법이다. “은유를 구사하는 화법은

⁹⁷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352.

⁹⁸ 다음을 참고하라. “은유적 전도, 은유적 설교 등 이미지화된 언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상 테크놀로지시대 한 가운데 살면서도 인쇄에 붙들린 채로 남아 있다. 성경적인 영성은 은유를 매개체로 하여 새로운 세계에 발맞춰갈 것이다...은유는 사교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다. 은유는 추론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원인 자체다.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9-141.

⁹⁹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39.

¹⁰⁰ Ibid., 540.

¹⁰¹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이다. 예수님은 비유들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드러내시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Simon J. Kistemaker, *The Parables of Jesus*, 김근수, 최갑중 역, *예수님의 비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5.

실제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¹⁰² 예수님은 이런 은유를 즐겨 사용하셔서 설교하셨다.¹⁰³ 이 보다 좀 더 긴 비유들도 사용하셨는데, 즉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이다.¹⁰⁴ 이런 비유들은¹⁰⁵ 선재(先在)했던 것인데 예수님 같은 창조적인 스토리텔러(storyteller)에 의하여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⁶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식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연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이런 형태의 교훈은 청중들을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청중으로 하여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셨다. 2) 격언식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을 사로잡고, 말하는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를 투명하게 해준다. 그리하여 청자들을 내러티브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을 품고 있다. 3) 예수님의 격언식 가르침은 초점이 분명하여 명확하게 사물을 이해하도록 한다. 4)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환기시키는 방법이다...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꿔줌으로써 변화하도록 초청한다. 예수님은 이런 경구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려 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셨다.¹⁰⁷

캘빈 밀러(Calvin Miller)도 오스틴(Austin B. Tucker)의 입을 빌어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님은 비유와 다른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에 좋은 설교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사랑할

¹⁰² Eugene L. Lowry,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이주엽 역,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서울: 요단출판사, 2011), 86.

¹⁰³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84.

¹⁰⁴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비유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 자신의 기술, 통찰력 및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근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들을 창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Kistemaker, *예수님의 비유*, 16.

¹⁰⁵ 키스트메이커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와 비유적인 말씀들을 총 40개로 선별하여 그의 책에서 다루었다.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하여 다음 부분도 참고하라. Christopher Hudson, *Clues for the clueless*, 배웅준 역, *하루만에 꿰뚫는 성경관통* (서울: 규장, 2007), 87-92.

¹⁰⁶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85.

¹⁰⁷ Ibid., 86.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¹⁰⁸ 내러티브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핵심 통찰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에 개입한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다 우리의 이야기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윤리를 다룸으로써 그것이 실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셨다.¹⁰⁹ 복음은 사실상 진정한 ‘거대 담론’ (metanarrative)이다.¹¹⁰

이렇게 보면 이야기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히브리적 방법’¹¹¹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방법이고¹¹² 성경적인 설교 방법이다. 동시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설교 방법임에 틀림 없다.¹¹³ 결국,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어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설교방법은 내러포 설교 방법과 다르지 않다.¹¹⁴ 그렇다고 할 때,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¹¹⁵ 성경으로 설교하여¹¹⁶ 회중의 변화와 성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¹⁰⁸ Calvin Miller, 박현신 역,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238.

¹⁰⁹ McGrath, *신학이란 무엇인가?*, 308.

¹¹⁰ John R. W. Stott,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83.

¹¹¹ “히브리적 내러티브에서는 이미지나 함축과 생략, 비유와 은유, 반복 그리고 언어유희 등과같은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20.

¹¹²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서울: 쿰란출판사, 2015), 86.

¹¹³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전폭을 가르치고,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며, 믿는 자로 하여금 행위로 옮기게 하고, 그의 추종자에게 경계하도록 주의를 주기 위하여 비유들을 사용하여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Kistemaker, *예수님의 비유*, 16.

¹¹⁴ “예수님은 이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심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신다. ‘비유’를 통한 이야기는 그분의 놀라운 기술이다. 그분이 청중을 위해 생생하게 그려내신 ‘이미지’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분의 인격과 삶에 담겨 있는 진리를 투명하게 드러낸다.” Härtner,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169.

¹¹⁵ 조병호, *통성경 포플라 지도자 노트*, 5.

내러포의 사용 목적이다.¹¹⁷

¹¹⁶“평신도들은 자녀에게 성경을‘설명’해 주어야 하고, 목사들은 성경을‘설교’해야 한다.” 조병호,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200.

¹¹⁷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내러포적 설교’(Narraphoric preaching)는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명과 삶에 대한 개념을 비틀고 돌려서 전혀 새로운 진리로 바꿔 그들을 인도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내러포를 통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세계관까지도 통째로 바꾸실 수 있었다.” *Giving Blood*, 40.

제 III 장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실행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실행 절차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함안중앙교회 연 간 52주 주일예배 설교로 실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은 통성경 포물라의 40개 스토리 라인이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40개의 중요한 주제들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40개 스토리 라인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성경적인 설교’를 위해서 다뤄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통성경 포물라의 40개 스토리 라인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선정하여 내러포 설교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것을 1년간 함안중앙교회 주일예배 설교로 실행한다. 내러포 설교 본문으로 선정될 통성경 포물라의 ‘40 스토리 라인’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3> 통(通)성경 FORMULA 40 Story Line

	7Track	20 마당		40 Story Line
1	Track 1	하나님의 마음	1	원역사
			2	족장사
2	모세오경	열방을 향한 꿈	3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4	출애굽과 제국

3		만나 세대	5	세계 선교의 꿈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4		신앙 계승	7	만나 세대의 성장
			8	만나 학교 졸업 설교
5		천년 모범	9	약속의 땅 입성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6	Track 2 왕정 500년	마음과 지혜	11	교육의 성공사례
			12	미스바 세대의 탄생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3	왕정의 시작
			14	하나님의 종 다윗
8		절망 앞에선 희망	15	솔로몬과 시가서
			16	남북왕국의 분열
9	Track 3 페르시아 7 권	징계, 희망의 디딤돌	17	북이스라엘의 멸망
			18	남유다의 쇠락
10		재건 공동체	19	잠간의 징계
			20	포로민 설득
11	Track 4 신구약중간사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21	제국변경의 밑그림
			22	성전재건
12		기쁨을 위한 탄생	23	성벽재건
			24	고백과 침묵
13	Track 5 4 복음서	한 영혼 사랑	25	헬라제국과 중간사
			26	로마제국과 중간사
14		용서를 향한 열정	27	예수님의 탄생
			28	공생애 3년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29	마지막 일주일

			30	십자가의 승리
16	Track 6	열리는 제자시대	31	열리는 제자시대
			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17	사도행전 30년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19	Track 7 공동서신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겨진 편지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	9권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40	최후 승리의 노래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로 1년 간 52주 주일예배 설교를 진행하려면 40개의 스토리 라인의 주제로 작성된 설교와 최소한 12개의 또 다른 설교를 추가해야 한다. 추가할 설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 차례의 중요한 절기설교를 추가해야 한다. 네 차례의 중요한 교회 절기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다. 여기에 각 절기 전, 후로 연결되는 주일예배에 해당절기와 관련된 특별한 주제의 설교를 추가해야 한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활절기 직전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이때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따라서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제쳐두고 다른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맥추감사절 직전 주일에도 감사와 관련된 주제로 설교한다면, 절기의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회중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추수감사절에는 함안중앙교회의 전도대상자 초청예배인 ‘VIP 초청예배’가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 직전 주일에 교회의 존

재 목적인 ‘영혼구원’ 과 관련된 설교를 행하여 회중들이 전도에 집중하게 한다. 성탄주일에는 마땅히 성탄의 의미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다. 성탄절 직후 주일은 1년 52주의 마지막인 ‘송년주일’ 이다. 그러므로 회중들이 한 해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새해 첫 주 ‘신년주일’ 은 새해에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주제로 한 축복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2월에는 각 급 학교 졸업식이 있다. 함안중앙교회에서는 2월 첫 주를 ‘졸업감사주일’ 로 정하여 지킨다. 그러므로 졸업생에게 권면할 주제를 선정하여 설교한다. 2월 둘째 주는 매년 ‘임원임명예배’ 로 드린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새롭게 임명된 임원들의 헌신을 촉구하는 주제의 설교를 준비한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 첫 주에는 가정과 관련된 주제를 준비하여 설교한다. 또한 5월 둘째 주일은 해마다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린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설교가 적합할 것이다. 5월 24일이¹ 포함된 5월 셋째 주일에는 감리교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이며 이때 회중들에게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여 전한다. 6월(6일-현충일, 25일-6.25기념일) 또는 8월(15일-광복기념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여, 40개의 스토리 라인 주제와 더불어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네 번의 절기 주제가 추가된다. 그리고 또한 이 네 번의 절기 전, 후로 연결되는 주일에 해당절기와 관련된 5개 주제의 설교(종려주일 십자가의

¹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서 일어난 존 웨슬리의 회심 체험.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77.

고난 주제, 맥추감사직전주일 감사 주제, VIP 초청예배 직전주일 영혼구원 주제, 송년주일 회개와 결단 주제, 신년주일 축복 주제)가 추가된다. 거기에 함안중앙교회에서 매년 시행해 온 6번의 기념주일(졸업감사주일, 임원임명예배주일, 가정주일, 전교인 야외예배주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주일) 설교가 더해진다. 이렇게 추가된 주제 설교를 포함되면 총 55개의 설교 커리큘럼이 만들어진다. 1년 52주이기에 3개의 주제가 초과된다. 초과된 3개의 주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1년 설교계획을 큰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 함안중앙교회와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설교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성과 같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시행절차는 타교회의 목회환경에서도 큰 충돌 없이 호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4> 통성경 포물라 스토리 라인에 따른 설교 주제와 추가될 설교 주제

설교 주제	통성경 포물라 스토리 라인	4 대 절기	절기관련주제	함안중앙교회 기념주일주제	총 설교주제
갯 수	40	4	5	6	55

통성경 포물라의 40개의 스토리 라인 안에는 각 스토리와 연관된 중요한 세부 주제 항목들이 들어 있다. 이 항목들은 각 스토리당 5-6개씩 선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문 선정의 고민을 줄일 수 있다. 각 스토리 라인 안의 첫 번째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설교하면 전체 스토리의 흐름에 장애(障害)를 받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40 스토리와 각 스토리의 세부 주제 항목들을 순차적

으로 설교한다고 가정할 때, 약 5년 간의 설교 본문을 확보할 수 있다. 만일 각 주제 안에 연관된 주제를 한 가지씩만 더 세분(細分)한다면 10년 간의 설교본문을 미리 확보하여 체계적인 설교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40개의 스토리 안의 각 주제와 연관된 또 하나의 주제를 세분할 경우에는 통성경 포물라 step 4, ‘묵상기도하기’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통성경 포물라 ‘step 4’에는 성경 전체를 365가지의 주제들로 요약 정리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40개의 스토리 라인의 주제 항목들 외의 추가항목을 선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² 연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이 될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40 스토리와 차후 약 5년 간의 설교본문이 될 각 스토리의 세부 주제 항목들은 <부록 III>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과 세부 주제 항목’을 참고하라.

‘통성경 포물라의 40 스토리 라인’과 각 스토리에 따른 세부 주제항목들을 본문으로 선정한 설교를 진행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을 토대로 1년 간 설교 스케줄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다. 각 스토리 라인에 따른 5~6개의 세부 주제항목으로 차기(次期)년도의 주일예배 설교 스케줄을 작성한다. 같은 방법으로 차차기(次次期)년도의 주일예배 설교 스케줄을 작성하면 최소 5년 간의 설교 본문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다 40개의 스토리 안의 각 세부 주제와 연관된 또 다른 세부 주제들을 구분하면 10~12개의 주제 항목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10년 간의 주일예배 설교 본문 선정이 가능하다. 각 세부 주제와 연관된 또 다른 주제들을 세분할 때는 통성경 포물라 step 4, ‘묵상기도하기’ 부분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다. 포물라 step 4, ‘묵상기도하기’에는 성경 전체가 365가지의 주제들로 요약 정리되어

² 조병호, *통성경 포물라 지도자 노트*, 106-125.

있다. 그 가운데서 40개의 스토리라인의 주제 항목들 외의 추가항목을 선정하는 일은 쉽다.

전장에서 고찰한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총 52편의 설교를 개발하였다. 이 설교들을 2015년 1년 간 본 교회 주일 낮 11시 예배 설교시간에 회중들에게 선포하였다. 설교 시간은 평균 35분에서 40분 이다. 시행된 내러포 설교의 설교 제목과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표5> 2015 전반기 주일예배설교 제목 및 본문(1월~6월)

월	일	제 목	성경	본 문	비 고
1	4	2015년 성경으로 통(通)하라	신약	요21:24~25	신년주일
	11	2015년 성경으로 통(通)하라2	구약	신6:6~9	서 론
	18	하나님의 마음	구약	창1:26~31	
	25	하나님의 마음2	구약	창13:14~18	
2	1	큰 꿈, 큰 사람, 큰 사랑	구약	창50:15~21	졸업주일
	8	네 등을 내게 보이라	신약	고전11:21~30	임원임명주일
	15	한 사람, 한 민족, 온 세계	구약	출1:8~11	
	22	말씀의 사람, 큰 사람	구약	출2:1~10	
3	1	설득하시는 하나님	구약	출3:10~14	
	8	내가 가는 이 길이	구약	출13:17~22	
	15	파도 속으로, 사막 한 가운데로	구약	출14:15~21	
	22	깨끗하게 하시리라	구약	레14:30~32	
	29	그 손을 만져라!	신약	눅22:50~51	
4	5	다시 사셔서 다시 창조하시다	신약	요20:19~23	부활주일
	12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불순종	구약	신1:19~25	
	19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구약	민21:16~20	

	26	깊은 강을 건너기 전에	구약	수3:1~6	
5	3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약	수14:6~15	
	10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신약	고후1:8~11	야외예배
	17	그 후로 보김은 사라졌다	구약	삿2:1~10	
	24	마른 막대기 하나로	구약	삿3:12~20	
	31	반전(反轉) 드라마	구약	룻1:15~18	
6	7	흔들리지 않는 기둥	구약	룻4:13~17	
	14	기도로 복수하십시오!	구약	삼상1:9~11	
	21	무모한 순종 무한한 은총	구약	삼상2:6~10	
	28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대	구약	삼상7:1~4	

<표6> 2015 하반기 주일예배설교 제목 및 본문(7월~12월)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비 고
7	5	부득이할 지라도	구약	삼상13:8~15	
	12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구약	시51:1~7	맥추감사
	19	창끝을 네 안으로 겨누어라	구약	삼상18:10~16	
	26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구약	삼상24:1~4 시 142:1~7	
8	2	양산박, 양주산채, 셔우드 숲 그리고 아둘람 굴	구약	삼상22:1~2 시 34:11~20	
	9	솔로몬에게 걸핍된 것	구약	왕상10:23~29	
	16	여우와 신포도 그리고 백합화	구약	전12:13~14	
	23	두 개의 돌판 대(對) 두 개의 금송아지	구약	왕상12:25~33	
	30	가지 않은 길	구약	왕상15:25~34	
9	6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	구약	왕하17:1~6	
	13	듣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구약	렘38:1~6	
	20	Rivers of Babylon(바벨론의 강가에서)	구약	겔1:1~3	
	27	늑대는 비스킷으로 유혹할 수 없다	구약	단1:1:8~9	
10	4	말씀에 동감하지 말고 감동하라	구약	스1:1~6	

	11	어디까지 무너졌든지 여기부터 시작하라	구약	느3:1-6	
	18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약	말1:1-5	
	25	슬럼프(Slump)가 슬로프(Slope)가 되게 하라	신약	마3:1-3	
11	1	사람의 가장 나쁜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신약	눅2:1-5	
	8	불평하면 불통(不通), 감사하면亨통(亨通)	구약	시103:1-5	추수감사
	15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신약	행16:30-32	VIP 초청
	22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가시는 분	신약	요1:9-12	
	29	두려워하며, 놀라며, 찬송하며	신약	눅2:51-52	
12	6	한 사람을 온 세상처럼, 온 세상을 한 사람처럼	신약	막1:40-42	
	13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실 때	신약	마26:47-54	
	20	‘예수 그리스도’ 그 행복한 포만감	신약	요6:41-51	성탄주일
	27	증언(證言)을 거부한 증인	신약	행1:6-11	송년주일

다음으로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40개 스토리가 본 교회에서 이미 시행된 주일예배 설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아래 도표로 살펴 볼 수 있다.

<표7> 2015 전반기 주일예배설교에 대한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의 적용

월	일	순서	제 목	본 문	해당 40 스토리 라인
1	4	1	2015년 성경으로 통하라	요21:24~25	신년주일 설교
	11	2	2015년 성경으로 통하라2	신6:6~9	통성경 포물라 내러포 설교 서론
	18	3	하나님의 마음	창1:26~31	01 원역사
	25	4	하나님의 마음2	창13:14~18	02 족장사
2	1	5	큰 꿈, 큰 사람, 큰 사랑	창50:15~21	졸업주일 설교
	8	6	네 등을 내게 보이라	고전11:21~30	임원임명예배 설교
	15	7	한 사람, 한 민족, 온 세계	출1:8~11	03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22	8	말씀의 사람, 큰 사람	출2:1~10	04-1 출애굽과 제국 1

3	1	9	설득하시는 하나님	출3:10~14	04-2 출애굽과 제국 2
	8	10	내가 가는 이 길이	출13:17~22	05-1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나라1
	15	11	과도 속으로, 사막 한 가운데로	출14:15~21	05-2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나라2
	22	12	깨끗하게 하시리라	레14:30~32	0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29	13	그 손을 만져라!	눅22:50~51	종려주일 - 십자가와 고난
4	5	14	다시 사셔서 다시 창조하시다	요20:19~23	부활주일 설교
	12	15	합리적이고 민주적 불순종	신1:19~25	07-1 만나세대의 성장1
	19	16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민21:16~20	07-2 만나세대의 성장2
	26	17	깊은 강을 건너기 전에	수3:1~6	08 만나학교 졸업설교
5	3	18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14:6~15	09 약속의 땅 입성
	10	19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고후1:8~11	야외예배 설교
	17	20	그 후로 보김은 사라졌다	삿2:1~10	10-1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1
	24	21	마른 막대기 하나로	삿3:12~20	10-2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2
	31	22	반전(反轉) 드라마	룻1:15~18	11-1 교육의 성공사례1
6	7	23	흔들리지 않는 기둥	룻4:13~17	11-2 교육의 성공사례2
	14	24	기도로 복수하십시오!	삼상1:9~11	12-1 미스바세대 탄생1
	21	25	무모한 순종 무한한 은총	삼상2:6~10	12-2 미스바세대 탄생2
	28	26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대	삼상7:1~4	13-1 왕정의 시작1

<표8> 2015 하반기 주일예배설교에 대한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의 적용

월	일	순서	제 목	본 문	해당 40 스토리 라인
7	5	27	부득이할 지라도	삼상13:8-15	13-2 왕정의 시작2
	12	28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시51:1~7	맥추감사주일 설교
	19	29	창 끝을 네 안으로 겨누어라	삼상18:10-16	14-1 하나님의 종 다윗1
	26	30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삼상24:1~4 시 142:1~7	14-2 하나님의 종 다윗2

8	2	31	양산박, 양주산채, 셔우드 숲 그리고 이돌람 굴	삼상22:1-2 시 34:11~20	14-3 하나님의 종 다윗3
	9	32	솔로몬에게 걸땀된 것	왕상10:23~29	15-1 솔로몬과 시가서1
	16	33	여우와 신 포도 그리고 백합화	전12:13~14	15-2 솔로몬과 시가서2
	23	34	두 개의 돌판 대(對) 두 개의 금송아지	왕상12:25-33	16 남북 분열 왕조
	30	35	가지 않은 길	왕상15:25-34	17 북이스라엘의 멸망
9	6	36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	왕하17:1-6	18 남 유다의 쇠락
	13	37	듣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렘38:1-6	19 잠깐의 징계
	20	38	Rivers of Babylon (바벨론의 강기에서)	겔1:1-3	20 포로민 설득
	27	39	늑대는 비스킷으로 유혹할 수 없다	단1:1:8-9	21 제국 변동의 밑그림
10	4	40	말씀에 동감하지 말고 감동하라	스1:1-6	22 성전 재건
	11	41	어디까지 무너졌든지 여기부터 시작하라	느3:1-6	23 성벽 재건
	18	42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1:1-5	24 고백과 침묵
	25	43	슬럼프(Slump)가 슬로프(Slope)가 되게 하라	미3:1-3	25 헬라 제국과 중간사
11	1	44	사람의 가장 나쁜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눅2:1-5	26 로마 제국과 중간사
	8	45	불평하면 불통(不通), 감사하면 형통(亨通)	시103:1-5	추수감사전주일 감사설교
	15	46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행16:30-32	VIP 초청예배 설교
	22	47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가시는 분	요1:9-12	27 예수님의 탄생
	29	48	두려워하며, 놀라며, 찬송하며	눅2:51-52	28 공생애 3년
12	6	49	한 사람을 온 세상처럼, 온 세상을 한 사람처럼	막1:40-42	29 마지막 일주일
	13	50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실 때	미26:47-54	30 십자가의 승리
	20	51	‘예수 그리스도’ 그 행복한 포만감	요6:41-51	성탄주일
	27	52	증언(證言)을 거부한 증인	행1:6-11	31 열리는 제자시대

2015년 1년 동안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체험하게 될 성도들의 이해가 우선시 되었다. ‘통(通)성경’이라는 용

어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생소했다. ‘내러포(narraphor) 설교’ 역시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본 교회의 소속목사로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의 경우도 여기에 대하여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두 가지 사전 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통성경 포물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체 세미나 및 새벽기도:

2014년 11월 23일 주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주 간에 걸쳐 주일오후 예배 시간에 통성경에 대한 자체 세미나를 가졌다. 본 연구자는 통(通)성경 프로그램에 관한 강사 자격이 주어지는 ‘통성경 렉처러 코스’³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통성경의 교재인

‘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와 ‘통성경 길라잡이’를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은 통성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고 특별히 성경통독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강한 도전을 받았다.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성경의 주제가 담긴 ‘통성경 노래’를 외워 부르고 통성경 포물라의 ‘7 Track’을 각자 그릴 수 있도록 여러 번의 반복 실습을 하였다.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구자는 칠판에 ‘통성경 포물라의 7 Track’을 직접 그려가며 설명했다. 그리고 통성경 20마당과 40개의 스토리 라인을 암기하여 쓰는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이것은 칠판에 미리 40개의 빈칸을 그려두고 성경 역사순 40개의 스토리를 차례로 암기하며 채워나가는 방식이었다. 1~40번까지의 스토리를 암기하여 적고, 다시 역순으로 40~1번까지 스토리를 암기하여 적었다. 각각의 스토리에 해당되는 설명을 간단히 덧붙여 성도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성도들은 통성경 포물라에 대한 연구자의 준비가 충분했고, 이것

³ 연구자는 성경통독원에서 주관하는 ‘통성경 렉처러 코스 20기’를 수료하고 통성경 프로그램에 관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본 교회에서 ‘통(通)성경’ 관련한 21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하며 성도들에게 통성경 포물라에 관한 생소함을 해소하고 내러포 설교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였다. 21일 특별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성경으로 통(通)하게 하라” 로 정했다. 특별새벽기도회는 통성경 자체 세미나를 가졌던 2014년 11월 24일(월)부터 12월 14일(주일)까지 21일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는 통성경 포물라의 2 단계(2 step)인 하나님의 마음 읽기 ‘20과’ 를 주제로 설교를 시행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소개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성도들은 통성경에 대하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통성경 읽기 방식의 성경통독’ 시행: 통성경 자체 세미나와 통성경을 주제로 한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 통성경 읽기 방식의 성경통독 운동을 병행하였다. 이것은 전 성도가 통성경 포물라에 익숙해지며 주일에 배마다 시행될 내러포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위밍업을 한 것이다. 특별히 통성경 읽기 방식의 성경통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독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폰 어플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스마트 폰 어플은 현재, 전세계 20만 명 이상이 매일 활용하고 있으며, 성경통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 ‘듣기’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통(通)박사 조병호가 역사순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낭독하였고 빠르기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본 교회에서 2015년 동안 스마트 폰 어플을 활용하여 통성경 읽기 방식의 성경통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경 1독 이상한 성도는 총 33명이며, 이 가운데 2독을 한 사람은 4명, 3독은 1명, 4독은 2명, 5독, 6독도 각 1명씩이다.⁴ 성경통독을

⁴ 2015년 성경통독자: 총 33명 (1독 24명: 고 건, 문영애, 이정남, 김춘국, 오정희, 양재수,

병행한 것이 통성경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경건생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쉽고 효과적으로 성경통독을 하여 유익했다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프로젝트 진행 결과 40개의 ‘통 성경 줄기(tong story line)’ 가운데 1년 안에 다루지 못한 주제는 9개이다. 원래의 계획대로 40개 주제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다. 이것은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몇 가지의 주제들을 시리즈 형식의 설교로 다루다 생긴 오차이다.⁵ 이것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이며 차후에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실행과 평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 실행 이전의 문제점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에 대한 필요성 가운데 하나는 성경 전체를 회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찾게 된다.⁶ 연구자는 최근 몇 년 간, 무작위적인 본문선택으로 회중들에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을 설교하지 못했다. 연구자의 본문선택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편향적 선택이었고, 이와같은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설교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⁷

박후선, 신진희, 김혜경, 황민희, 선정희, 김춘금, 한재훈, 이유자, 강복임, 김열자, 이현아, 이준호, 이희망, 이희옥, 전윤배, 고 은, 정명숙, 이해순. 2독 4명: 고승모, 이필숙, 조규청, 유은혜. 3독 1명: 임구자. 4독 2명: 김재호, 이수정. 5독 1명: 이종욱. 6독 1명: 이성민.

⁵ 1주 이상 설교했던 통성경줄기의 주제는 비교적 내러티브 요소가 풍성했던 총 9개 주제였다. (04출애굽과 제국, 05세계선교의 꿈과 제사장나라, 07만나세대의 성장, 10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교육의 성공사례, 12미스바 세대의 탄생, 13왕정의 시작, 14하나님의 종 다윗, 15솔로몬과 시가서.)

⁶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한 본문이나 단락 또는 한 장, 아니면 크게 잡아 한 책 정도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한 권의 책이다.” John Timmer, *They Shall Be My People*, 박혜영의 역, *성경, 흐름을 잡아라* (서울: 주식회사 흥성사, 2001), 12.

⁷ 본문 선택에 실패한 설교자의 실수와 관련한 Vaughan Roberts의 다음 지적은 유익하다.

설교자가 주일예배 설교를 위하여 성경 본문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본문 선정에 대한 학자들의 방법들 역시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동소이 하다고 할 수 있다. 존 킬링거는 성경 본문 선정하는 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설교자가 한 가지 주제를 나름대로 정하여 시작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자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⁸ 첫 번째 방법은 많은 설교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인데, 일상생활 가운데 독서나 대화 또는 설교 주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영감이나 독창적인 설교 아이디어를 메모해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성경을 읽어가며 적합한 본문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설교자가 평소 개인 경건생활에 충실하며 성경 묵상과 연구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성경 메시지를 지향(志向)하고 있지 않다면, 선정된 성경본문으로 작성된 설교가 회중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본문 자체를 선정하여 설교하는 방법인데, 설교자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 근거하거나 성서일과나 또 다른 방식으로 짜인 성구집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다분히 개인적인 사고나 경험에 기초해서 설교를 시작하다가 범하게 될 성경 본문과의 거리감이나 회중의 삶과 무관한 주제를 다루는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한다. 설교자는 어떤 강사(講士)나 연사(演士)이기 전에 성실한 성경 연구가와 성숙한 신학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책’(one book)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잠언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말들은 전후문맥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의 아무 페이지나 펴서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한 절(節)만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각각의 절(節)은 그 절이 속한 장(章)의 문맥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하며, 각각의 장(章)은 그 장이 속한 책(冊) 전체 내용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책은 성경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Vaughan Roberts, *God's Big Picture*, 이용복 역, *성경 꿰뚫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울: 규장, 2007), 17-18.

⁸ John Killinger, *Fundamentals of Preaching*, 곽주환 역, *평생 유용한 설교방법의 백과사전*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0), 39.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연속설교, 교회력에 따른 설교, 개교회의 목회 계획, 설교자의 선택에 의해서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교본문 선정에 위한 일반적인 방법의 기초로 말하고 있다.⁹ 크래독은 설교 본문 선정에 대하여, 설교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과 성서일과(lectionary)에 따르는 것을 제시한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선정할 경우는 무작위 선택, 사건이나 주제에 따른 선택, 교회의 행사를 홍보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선택, 성경 메시지나 주요 주제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본문을 선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런데 설교자가 본문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경우, 설교자는 강단에서 다룰만한 가치 있는 문제가 분명하게 제기되지 않는 수많은 주일에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설교 주제가 아닌 일상 대화의 소재(素材)에나 적합할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사로잡힌 채, 강단 위로 올리는 실수를 범한다.¹⁰

크래독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인 성서일과(lectionary)를 따르는 방법은 매 주일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는 설교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회중들에게는 보다 균형 잡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설교자가 본문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성서일과와 같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된 설교가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준비된 설교보다 낫다고 말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설교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미 선정된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여 메모하고 일상에서 설교 준비가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그 선정된 본문과 생각들이 마치 자석처럼 다른 관련

⁹ Long, *설교자는 증인이다*, 90-93.

¹⁰ Craddock, *크래독의 설교 레슨*, 154.

된 생각들과 관찰들을 끌어당기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 구체적이고도 힘든 설교 준비 작업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¹¹

성서 일과(lectionary)를 따라서 설교 본문을 선정하는 방법은 회중으로 하여금 성경의 많은 부분을 듣고, 사회자와 함께 읽을 수 있다. 성서 일과는 성경 구절의 양만이 아니라 성경 봉독이나 설교를 위한 성경 구절의 폭에서도 목회자의 무작위적 선택보다 훨씬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교자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만 골랐을 때는 고를 수 없었던 성경의 다른 구절까지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설교자는 성서 일과를 사용해서 성경 본문을 선정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성서 일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교자 개인의 외로운 목소리 대신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것도 설교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성경 구절들이 전통과 고백에 입각해서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게 된다. 그러한 설교는 설교자의 사사로운 견해에서 태어나거나 사사로운 견해로서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효과 면에서는 더욱 강력하다고 하겠다.¹²

크레독의 성서일과에 따른 설교본문 선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설교자의 무작위적 본문선택에 비하여 많은 장점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본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성서일과(Lectinary)는 기독교에서 교회력에 따라 배치한 성서 읽기 표를 말한다. 이에 따른 설교본문 선정은 본문이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¹¹ Ibid., 155.

¹² Ibid., 160.

는 있고 연중(年中) 설교의 흐름을 회중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는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통성경 포플라’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설교가 성경전체의 줄기를 균형 있게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드러난다.

성서 일과 본문들은 교회에서 예배 시에 사용하면 3년을 주기로 한 번 완독할 수 있도록 배열해 놓았다. 교회 예배 시에 3년 동안 걸쳐 읽으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확고히 해 주는 성경 본문들을 모두 접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 스토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본문 읽기가 다른 본문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사순절에서 오순절에 이르는 기간에 대부분의 성서 일과는, 그 주간의 예배를 위해서 같은 주제를 가진 본문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제의 통일성이 언제나 쉽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오순절 이후 사순절까지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의 통일성에 대한 노력이 완화되고 여러 주일에 걸쳐서 사무엘상이나 이사야, 혹은 마가복음 등 커다란 크기의 자료들을 연속해서 확대시켜 나간다.¹³

여기서 통일성과 흐름을 놓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통일성과 흐름은 성경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선정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핵심 교리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 주제¹⁴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

¹³ Ibid., 158.

¹⁴ 성경의 주제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비교하라. “창세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동산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는다. 에덴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한다면 성경 속에 흐르는 이야기의 뼈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23-24.

이 있다.¹⁵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내려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는 것과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의 성경 본문 선정 방법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목 받는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연결성’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¹⁶ 이것은 단편적인 조각의 집합체로 전락하고 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그림자에 비쳐져야 할 유익한 조명(照明)이다. ‘연결성’은 유기체적인 결합을 전제하며 그 안에 일종의 생명의 흐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¹⁷

‘통성경 포물라’에서 통(通)이란 ‘부분’을 분석적으로 보는 것을 기반으로 각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다른 개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개체가 관념으로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모든 파편들을 전체로 놓고 그 각각이 전체 속에서 어떠한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려는 노력이다.¹⁸

¹⁵ “성경은 에덴동산(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야기로 시작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대단원을 맺는 책이다. 이외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과 회복이란 큰 주제 안에 있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Ibid.

¹⁶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60.

¹⁷ ‘상호연결’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미래의 기본적인 단위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고, 공동의 집단도 아니며, 상호의존적인 집단이다. 상호의존적이 될수록, 개인적인 독특성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개인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상호작용은 세 번째 실체, 즉 ‘연결된 자아’를 낳는다.” Sweet, McLaren, Haselmayer,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75-76.

¹⁸ 이와 관련하여 레너드 스윗의 다음 주장은 충분히 참고할 만 한다. “성경을 참되게 알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그것은 모던 시대가 물려준 분석과 해석이라는 기존 관념이다...청중이 설교의 요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기억하고 즐긴다...성경 이야기의 전달이 당신의 목표라면, 성경의 절(節) 구분은 편리하나 가장 위험한 것이며, 최악의 경우 관점을 훼손하는 추한 혼란이 될 수 있다.”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서울: 한시미션, 2007년 5. 22) 소개팸플렛, 16-17.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통(通)성경’이다. 통(通)성경 읽기는 첫째,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고, 둘째,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고,¹⁹ 셋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通)으로 보면 교리와 신학뿐만 아니라 거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 구(句)와 절(節)을 분석하고 나누어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표현하는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²⁰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의 본문 선정은, 통성경 읽기를 통하여 성경을 유기적인 결합과 역사적인 흐름을 가진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성경의 중요한 장면들을 되도록 빠뜨리지 않고 다 정리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40과의 스토리로 나눈 것에 기초한다. 구약 전체를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24개의 스토리로 정리하였고, 신구약 중간사를 2개의 스토리로, 신약 전체를 14개의 스토리로 구성하여서 성경 전체를 총 40개의 스토리로 정리했다. 이것에 따라 설교 본문을 선정하고 연간 52주의 주일설교를 진행한 결과 함안중앙교회의 회중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작업이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최근 5년 간의 주일예배 설교 본문 선정 상황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의 결과를 보면 설교자의 무작위적인 설교 본문 선정이 얼마나 무질서한 메시지의 혼돈으로 나타났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 선정 상황은 다음 표9와 같다.

¹⁹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읽는 것에 대하여 다음 부분을 참고하라. Terry Hall, *Bible Panorama*, 배웅준 역, *성경파노라마* (서울: 규장, 2008), 54-55.

²⁰ 조병호, *통이다* 랫츠 通, 189.

<표9> 최근 5년간 주일예배설교 본문 선정 상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비율(%)
구약본문	18	19	19	27	26	109	42%
신약본문	34	33	33	25	26	151	58%

2010년부터 2014까지 최근 5년간의 주일예배설교 본문으로 선정된 신, 구약 책별 상황을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먼저 신약과 구약의 비율이 균형 잡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일예배설교 본문으로 신약의 본문들이 33회 이상 선정되었다. 이에 반비례하여 구약의 본문들은 19회 이하로 적게 선정되었음을 보게 된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는 본문 선정에 다소간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주일예배 설교가 신약본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 구약 간의 본문 선정의 균형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각 권의 본문 선정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견 된다.

다음 표는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정된 구약과 신약의 각 책별 상황이다. 이 표를 보면 특정한 책이 반복 선정되며 반대로 특정한 책들은 전혀 본문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크래독이 지적한 대로 설교자가 가장 애용하는 재료들로 무질서하게 뒤범벅된 요리를 만드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하겠다.²¹ 본 연구를 위해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 전체를 성서 구분 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²¹ Craddock, *크래독의 설교 레슨*, 154.

<표10>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 구약성서 구분 별 상황

구약본문				권별순위		
구분	빈도수	구약비율	전체비율	순위	권별	선택수
모세오경	40	37%	15%	1	창세기	20
역사서	23	21%	9%	2	시편	19
시가서	31	28%	12%	3	신명기	9
예언서	15	14%	6%	4	이사야	8
합계	109	100%	42%	5	사사기	6

<표11>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 신약성서 구분 별 상황

신약본문				권별순위		
구분	빈도수	신약비율	전체비율	순위	권별	선택수
복음서	69	46%	27%	1	누가복음	23
사도행전	8	5%	3%	2	요한복음	21
서신서	61	40%	23%	3	마태복음	17
요한계시록	13	9%	5%	4	요한계시록	13
합계	151	100%	58%	5	고린도전서	12

위의 표에서와 같이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정된 성경 본문 260편 가운데 구약본문이 109편으로 42%, 신약본문이 151편으로 5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이 다소 높게 선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구약 성

경 중에서는 모세오경과 시가서의 선택 빈도가 높았고, 신약 성경 중에서는 복음서와 서신서의 선택 빈도가 높았다. 권별 빈도수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시편, 신명기 순으로 높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순으로 높았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본문 선정 빈도수가 높은 책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시편, 마태복음 순이다. 신·구약 전체 본문 선정 빈도수 5위까지의 책은 총 100회 본문으로 선정되었고 전체대비 38.4%를 차지했다.

이것은 이전의 설교가 특정한 본문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현상은 설교자의 기호(嗜好)에 따른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무작위적 본문의 선택으로 인한 설교는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의 반복으로 성도들이 예측 가능한 설교를 시행하여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마땅히 다루었어야 할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소외 시킨 오류를 범한 것이다. 통시성을 상실한 설교였기 때문에 새신자들인 경우에는 설교를 통하여 단편적인 성경지식과 해석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성경의 역사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과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²² 만일 이런 식의 설교가 반복 되었다면 새신자인 경우에 성실하게 교회 출석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 걸친 균형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별도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키지 않는 이상 개선의 여지는 없다. 현재, 본 교회에는 별도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새신자가 없다.²³ 이 상황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예측을 할 수 밖에 없

²² “퍼즐의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각을 맞추려고 생각해 보라. 실로 험난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미리 완성도를 보고 퍼즐을 맞추다면 당신은 퍼즐의 한조각 한조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퍼즐 조각들은 문맥을 떠난 성경 말씀이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가 되기 십상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Hall, *성경퍼즐노라마*, 16-17.

²³ 수년간 새신자를 상대로한 성경공부 프로그램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직장 근무로 인하여 평일에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었다. 휴직상태에 있는 새신자 2명을 상대로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2-3개월 일시적으로 시행하였지만 이후 복직하여 중단되었고, 저녁

다.²⁴

한편, 위에서 언급한 설교자의 기호에 따른 자의적인 설교본문 선택으로 인하여 마땅히 다루었어야 할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전혀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정되지 못한 책들은 <부록 V> ‘최근 5년간 주일예배설교 본문으로 선정되지 못한 책별 상황’ 과 같으며,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책들이 단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고 외면당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최근 5년간의 주일예배 설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의 무작위적 본문 선택으로 심각한 본문 편중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평가

2015년 동안 실행된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평가를 위해서 연구자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교회 평신도 대표를 대상으로 한 본 교회 설교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회 평신도 대표들은 집사 이상의 임원으로 구성되었고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지 최소 5년 이상 된 기존 신자들이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고, 최근 5년간 설교자 시행하였던 설교와 2015년 새롭게 진행한 내러포 설

시간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했으나 참여했던 새신자들의 야근과 가사활동으로 인하여 지속하기 어려웠다.

²⁴ 본 교회 새신자의 경우 모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며, 함안군 관내 지역이 아닌 의령군과 창원·마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차량으로 40-50분 이동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새신자 프로그램 진행에 한계를 느꼈다. 현재 본 교회 상황에서는 새신자들이 참석 가능한 주일예배가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으로 판단 된다.

교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둘째, 새가족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존 신자 중심인 교회 평신도 대표들과는 반대로 본 교회 등록한지 1년 전, 후의 새가족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좌담회는 평신도 대표들의 토론회와는 차별성을 두어서 본 교회 설교의 평가나 분석보다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본 교회 설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고자 했다. 더불어 설교의 난이도와 설교자에 대한 요구나 제안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좌담회의 자료는 차후, 새신자 정착에 관련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교회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신자 중심의 평신도 대표 토론회와 새가족 대상의 좌담회를 통하여 특정한 계층의 설교에 대한 반응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전체 회중의 설교에 대한 반응 조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일예배에 참석한 전체 회중을 상대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총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회중들의 인적 사항 및 교회와 설교에 대한 관심도. ② 설교에 관련한 회중의 태도. ③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이다. 이상의 세 주제에 관한 총 25문항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11월 22일 주일예배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12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8매(82%)를 회수하고 분석하였다.

제 IV 장

회중의 삶의 자리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 반응도

함안중앙교회 회중의 상황

목회자가 설교본문으로 채택하는 성경 66권은 언제든지 고정불변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보는 진료지침서는 정기적으로 개정증보판이 나오지만 목회자의 설교본문인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본문으로 작성한 설교를 듣는 회중은 항상 변한다. 목회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들은 있던 자리에서 저만큼 이동해 있다.¹ 이동하는 회중의 궤적을 예측하지 못하면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설교를 하게 되어 회중에게 말씀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대 진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체해부학 (anthropotomy)’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부한다. 의대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진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회중의 영혼을 다루며 그들의 영혼에 발생한 문제점을 고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처럼 ‘영혼의 해부학(the anthropotomy of soul)’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 영혼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병들게 되었는지, 그 병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

¹ 정인교, *설교 살리기*, 69.

요하다.² 인간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맡고 있는 회중의 독특한 상황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설교자가 이해해야 할 회중의 상황은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는 또한 지역사회 속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회중의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함안중앙교회의 소재지인 함안군의 상황과 함안군 안에서의 기독교적 환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안중앙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창원서지방에 소속되어 있다. 감리교 삼남연회³는 특별연회와 선교연회를 제외한 10개 연회 가운데 재정과 교회 수, 교인수가 가장 적다. 또한 함안중앙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함안군의 복음화율은 5.8%로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제주자치도(7.2%)의 복음화율보다도 낮으며 인근 함천군, 의령군, 창녕군등과 함께 전국 최저수준에 해당한다.⁴ 함안군은 복음화율이 낮은 것과 반비례하여 ‘불신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⁵

<표12> 함안군 종교단체 현황

종교별구분	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기타
-------	---	----	-----	-----	-----	----	----

²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375.

³ 감리교 연회는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미주특별연회,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12), 158.

⁴ 경남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거제시(13.1%)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진해시(12%)인데 복음화율이 10%가 넘는 곳은 이 두 곳뿐이다. 김해시(9.6%) 통영시(9.4%)가 그 뒤를 잇는다. 최하위는 함천군(5.1%)이며 함안군의 복음화율은 5.8%로 의령, 창녕등과 함께 5%대에 머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http://kcm.kr/dic_view.php?nid=39397#km(2015년 12월 31일 접속.)

⁵ 함안군의 불교신자와 기독교신자 수를 비교하면 7 : 1의 비율로 불교신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다. 여기에 따르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지역주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어 선교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함안군 내 종교단체 현황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함안군 내에는 사찰 중심의 불교가 대중화되어 있으며 타지역에서도 많은 불교신도와 관광객들이 관내 유명사찰을 방문하고 있다. 함안군 통계정보 http://gun.haman.go.kr/2011/02/01_05_03.jsp(2015년 12월 31일 접속.)

시 설 수	157	81	64	5	1	2	4
신 도 수	27,914	21,760	3,908	1,612	270	210	154

(단위: 개소, 명)

이렇게 함안군은 지역적으로 기독교 선교에 불리한 환경임에 틀림없다.⁶ 뿐만 아니라 함안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함안군 지역의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다소 심각한 선입견의 폐해(弊害)를 입고 있다.⁷ 함안군 내의 기독교 교단을 분석해 보면 장로교단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런 장로교단 중심의 분위기 가운데 감리교단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함안군 내의 감리교회들은 불신자들뿐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⁹

⁶ 함안군의 각종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총 157개(불교 81, 기독교 64, 기타 12) 시설에 신도수는 약 27,914명(불교 21,760, 기독교 3,908, 기타 2,246) 정도로 시설 수는 불교가 전체의 52%, 기독교 41%, 기타 7%이고 신도수를 보면 불교가 전체의 78%, 기독교 14%, 기타 8%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안군 통계정보 [http://gun.haman.go.kr/2011/02/01_05_03.jsp\(2015년 12월 31일 접속.\)](http://gun.haman.go.kr/2011/02/01_05_03.jsp(2015년 12월 31일 접속.))

⁷ 한국기독교 선교 초기에 경남 선교를 담당한 것은 ‘호주장로교’ 파송 선교사들이었다. 따라서 경남 지역 대부분의 교회들은 장로교회였고 감리교회가 처음 설립된 것은 6.25 동란 중에 미감리교단의 지원으로 전쟁구호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함안군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교회는 ‘함안교회’인데, 설립일은 1951년 5월 27일이다. ‘함안교회’를 모교회로 현재 함안지역에 7개의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함안군 내 77개 교회 가운데 9%에 해당하는 적은 비율이다. 이런 상황에 기인하여, 교회 수 6283개, 교인수 1,461,772명, 교역자수 10,326명의 한국 기독교에서 두번째 큰 교단인 감리교회가 함안군에서는 ‘군소교단’으로 취급 당하는 실정이다. (자료근거: 기독교 대한감리회 2015년도 교세현황)

⁸ 현재 함안군 관내 총 77개의 교회 가운데 61개의 교회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다. 함안군 기독교 교단 중에서 장로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79.2%나 된다. 이에 덧붙여 장로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大韓예수敎長老會(高神)/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PCK: Kosin)의 교회가 전체 77개 교회 가운데 36개 교회로 46.8%를 차지하고 있다. 고신 교단은 1952년 한상동, 주남선 목사 등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장로교 교단이다. 따라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던 타교단과 목회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최근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⁹ 1992년 감리교신학대학 교수였던 변선환 · 홍정수의 교리사건이 발생하여 ‘감리교단’이 종교다원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남기게 되었다. 이것은 후에 감리교단과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함안군 내의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각인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까지 이어졌던 ‘감동회장 선거’와 관련된 감리교 교단의 파행(跛行)적 운영으로 인하여 함안군 내의 기독교계 안에서 감리교회는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안게 되고 말았다.

함안중앙교회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지역적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안중앙교회는 복음화율이 선교지와 맞먹을 정도로 낮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해 있다는 점. 둘째, 함안중앙교회의 소속교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입견과 이미지가 고착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선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리한 지역적인 여건들이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하는 ‘핑계’와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¹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지역 복음화율인 5.8%는 반대로 94.2%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감리교단 내에서도 함안중앙교회가 속한 삼남연회는 선교의 불모지라고 불려왔고 목회자들이 개척하거나 파송 받기를 꺼려하는 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무한한 선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로 인식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할 것이다. “복음 전도자들은 끊임 없이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증거들을 찾아야”¹¹하며 그 증거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함안중앙교회가 받은 지역적 소명임을 확신한다.

함안군 선교와 관련하여 다른 농어촌 지역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은 비록 소폭이지만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 최근에는 함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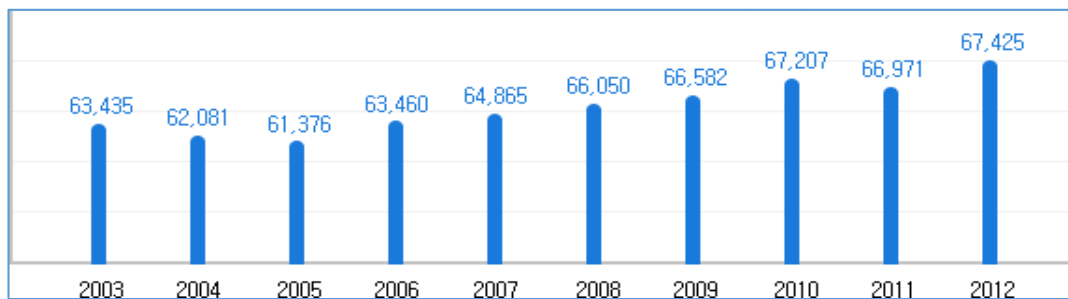
¹⁰ 레너드 스위트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의 박사 과정 학생들 중 한 명은 친한 친구가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주민의 거의 100퍼센트가 무슬림이라고 한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의혹을 갖고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 무슬림 문화 속에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며, 매일 대화와 질문과 모임과 꿈과 비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확신한다.” Sweet, *Nudge*, 278.

¹¹ Ibid.

¹² 함안군의 인구는 해방 이후 1960년대 전반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1990년도에는 59,820명으로 1965년에 비해 무려 52.3%의 감소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200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은 인근 도시지역(진주, 마산, 창원)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주거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고 있어, 앞으로도 인구가 소폭(小幅)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³ 이것은 심각한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적인 농어촌 교회들의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13> 함안군 연도별 인구추이



이렇게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본 교회는 여전히 농·어촌지역의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청년 세대의 단절 현상이다.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세대와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청장년세대와의 사이에 심한 간극(間隙)이 있으며 이것을 메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¹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기본이 되는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기업체 들어서서 직원과 가족들이 이주하였고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군북면에 39사단 사령부가 창원으로부터 이전하며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이주로 함안군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

¹³ 함안군 통계정보 http://stat-info.haman.go.kr/sub/01_03_01.jsp(2015년 12월 31일 접속.)

¹⁴ 함안군 내의 대학교 부재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세대는 타 도시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함안군에서 타도시로 진출하면, 대학졸업 이후 본교회로 복귀해서 신앙 생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른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함안군 내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지 못하다.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그리고 중·소 기업체 이상의 규모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인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성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진다.¹⁵ 청소년 시절까지 철저히 성경 교육이 되지 않으면 부모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기를 시작하게 될 때, 그들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회 생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교회는, 자녀를 향한 성경교육이 가능하도록, 부모 세대가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스토리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연구자는 2003년 10월에 함안중앙교회에서 부임하여 12년간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부임 당시 교회의 상황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로 난제(難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 교회 건축이 미완인 상태¹⁶로 방치된 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¹⁷ 둘째, 교인들 간의 심각한 내부 갈등 상황이었다.¹⁸

당시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Mary Elizabeth Moore)가 높이 평가한 것처럼 존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

¹⁵ 본교회 청년세대는 대부분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졸업 후에 자신이 다녔던 대학의 인근 도시에 정착한다. 그 결과, 본 교회 안에 청소년세대와 청년세대는 단절되고, 청년세대에 대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여 ‘청년선교회’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¹⁶ 교회 건물이 2002년 기존 2층 건물에서 4층 건물로 증축되었는데 건축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사전입주’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증축면적에 대한 토지측량과 전기, 가스, 통신, 소방에 대한 안전검사가 미필된 상태였고 조경과 주차장시설, 장애인 출입시설 등이 아직 미비된 상태였다.

¹⁷ 연구자가 부임 직후부터 교회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에 대한 특별건축헌금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성도들은 이미 교회 건축에 대한 피로도가 심해 심리적으로 탈진한 상태였고 추가적인 건축헌금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여서 건축 관련한 재정을 확보했고 각종 검사와 미비된 시설 공사를 거쳐 2004년에 정식으로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감리교 유지재단에 교회 토지와 건물을 등재하는 절차를 마쳐, 함안중앙교회 예배당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

¹⁸ 이 갈등은 교회 증축 과정에서 전임자와의 의견대립으로 시작이 되었고 일부 성도들은 전임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었다. 곧이어 전임자가 교회를 이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임을 찬성하는 측과 이임을 반대하는 측이 심각하게 대립하여 교회 안에 노골적인 반목(反目)이 발생하였다. 대립하고 있는 성도들은 각각 담임목사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을 중재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했기에 부임 직후 몇 년 간은 연구자의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

다. 웨슬리는 항상 은혜에 대한 한 단면만 담긴 메시지를 반대했다. 그는 논쟁의 어느 한 쪽만을 지향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했고 과격하게 상이한 입장들과도 함께 겨안으려는 자발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반목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태도를 보여준다.¹⁹ 본 연구자는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의견을 듣되, 거기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은 유보했다. 그와 같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개인이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주님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²⁰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다. 주님께서 모든 쓸모 없는 극단들에 제3의 대안을 제시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종종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대립으로 인한 긴장의 압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느끼게 될 때, 자신에게 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아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도 아니다. 그 보다도 현명한 질문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이다.²¹ 당시 교회의 문제들은 장기 목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권태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임자는 삼남연회 마산동지방의 감리사로 선출되어 지방행정책임자로 섬길 만큼 리더십과 성실함을 인정받으며 14년 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성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¹⁹ Lovett H. Weems, Jr., *Leadership In The Wesleyan Spirit*, 원종국 역, *웨슬리안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kmc, 2007), 101.

²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3~14)

²¹ Weems, *Leadership In The Wesleyan Spirit*, 98.

그러던 중에 노후 된 교회건물을 증축하며 대수선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것은 많은 재정과 땀과 눈물이 요구되며, 평균이상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누가 담임목사였든지 누가 교회의 성도였든지 간에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교회에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한 연구자는 긴장을 해소하려는 선부른 시도 대신에 기꺼이 그러한 긴장 가운데 사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교회 안에 예각으로 곤두선 문제에 개입하기 보다는 목회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역량을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집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고 교회에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행해야 할 사명이며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²²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디모데에게 명한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2)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언제나 목회자의 최우선 순위는 변함없이 ‘말씀을 선포’ 하는 일이다. 만일 교회의 회중 가운데 탈진한 사람들과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기 보다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회복을 돕는 일이 급선무이다.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질병에서 치유되고 상처도 신속하게 아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부임 초기부터 ‘설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모든 목회의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으려 노력했다. 본 교회에서 사역한지 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목회 우선순위는 ‘설교’이다. 여타의 목회 프로그램들에

²² John MacArthur, Jr., *The Anatomy of a church*, 한화통 역, *교회의 해부학* (서울: 두란노서원, 2003), 127.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교회에서 적용하기 위해 시도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목회 프로그램들은 도시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적합한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시골교회에 맞지 않아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과 칼을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차림으로 평소 충분하게 훈련된 물맷돌을 들고 나선 다윗처럼 연구자에게는 ‘설교’ 이상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서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존재했던 대립각은 점차 둔각(鈍角)으로 안정화되었다. 좁혀지지 않는 간격으로 벌어져 피차 대립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설득이나 권고도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은 자제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목회자의 태도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을 유지하고 전하는 메시지의 목적도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성에 두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에 두었다. 설교가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은 ‘성경적 설교’에 있다.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성경 본문이 설교의 기초가 되며, 성경 본문 원래의 의미대로 회중에게 전달할 때, 설교의 권위가 본문의 권위에 근거하게 된다.²³

이러한 설교 사역의 집중으로 교회 안의 긴장이 차츰 해소되자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부임 당시 60여명 수준의 주일예배 출석 인원은 현재 평균 120여명의 출석 인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 한 해 동안에 29명의 새가족들이 등록했고 대부분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 교회 재정결산도 부임 초기 2003년에는

²³ Terry G. Carter, J. Scott Duvall, Daniel Hays, *Preach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Preparing, Developing, and Delivering The Sermon*, 김창훈 역, *성경설교*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21.

1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5년 11월 현재 2억 2천 만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 교회의 이러한 작은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목회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를테면, 교회좌석이 꽉 차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다 해도, 목회자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바울의 충고를 마음에 두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 전서 1:31)고 되뇌어야 한다.²⁴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그분의 구원행동이라는 것은 찬양(讚揚)이전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교회의 변화가 설교로 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효과적인 설교에 의한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주님의 손길이 지나가는 통로였음을 밝히는 것뿐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처럼, 그 나귀가 걸어갔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어진 매끄럽지 못한 통로처럼 말이다.

현재 함안중앙교회는 매 주일예배에 120여명 이상이 출석하고 새 가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어떠한 갈등으로 인하여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성도나 이사하여 이명해 온 수평 이동 성도의 비율보다 불신자가 전도 되어 등록하는 새 신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의 경우 기존신자들에 비하여 그 열정이나 헌신도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새 가족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주변에 고령화된 시골교회와는 다르게 청장년층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 안

²⁴ Weems, *Leadership In The Wesleyan Spirit*, 151.

에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과 영·유아들도 많은 편이다. 한국교회 안의 교회학교가 차츰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본 교회의 예후는 밝은 편이라고 전망된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에 대한 반응 조사

본 연구는 설교자로서의 목회자가, 성경 전부를 균형 잡히도록 설교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의미와 생명력을 전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2015년 1년 52주 간 주일예배에서 실시하였고, 이것이 회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함안중앙교회 회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

본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부분은 설문에 응답하는 회중의 인적 사항과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9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설교에 대한 회중의 자세와 설교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7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9 문항으로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본 교회의 회중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적용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연구자가 ‘성서적인 설교’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

를 전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 설문지의 조사대상은 본 교회에 속한 남녀 교인 120여명이다. 본 설문지의 조사기간과 방법은 2015년 11월 22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총 12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8매(82%)를 회수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기술적 조사와 분석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고루 작성하였다. 본 조사가 갖는 한계점은 표본의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함안중앙교회에 한정된 것이므로 한국 교회 전체에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설문지 분석

회중들의 인적 사항 및 교회에 대한 관심도

아래 표는 응답자인 회중의 배경 변인 (성별, 나이, 직분, 교육 정도, 신앙 생활을 시작한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 14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함안중앙교회 회중의 남·여 구성비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파악 된다. 일반적인 경우 교회에서 여자들의 구성비가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함안중앙교회는 남·녀 구성비가 4:6 정도로 비교적 균형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전 연령층의 성도들이 고르게 출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이하의 성도들이 24.6%이고 40대 성도들이 27.4%, 50대 회중이 역시 27.4%로 나타난다. 따라서 40, 50대 회중이 전체 회중의 54.8%를 차지하여 함안중앙교회 회중 분포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60대 회중의 비율은 15.1%이고 70대 이상의 고령층 회중은 5.5%로 나타났다. 60대와 70대 이상 회중을 합하면 전체 회중의 20.6%에 해당하는데, 농·어촌 지역

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회중의 노령화 현상과 비교하면 노년층 회중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청·장년층은 많아 젊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²⁵

<표14> 응답자의 배경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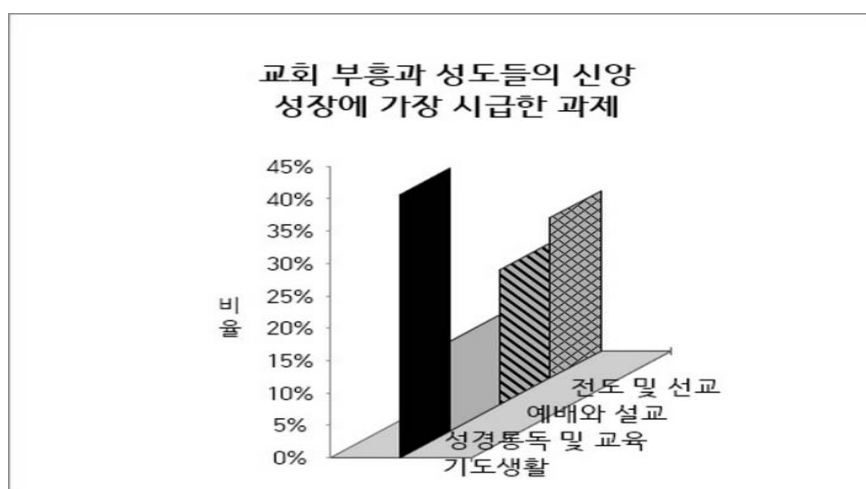
변 인	항 목	백분율(%)
회중 성별	남자	41.9%
	여자	58.1%
회중의 나이	10대	9.6%
	20대	6.8%
	30대	8.2%
	40대	27.4%
	50대	27.4%
	60대	15.1%
	70대이상	5.5%
회중의 직분	없음	32.9%
	집사	46.1%
	권사	18.4%
	장로	2.6%
회중의 교육 정도	초등학교	1.3%
	중학교	11.8%
	고등학교	38.2%
	대학교	43.4%
	대학원이상	5.3%
회중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27.6%

²⁵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본 교회 역시 초고령화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교회의 ‘젊은 교회’의 모습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것이지 객관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직면하게 될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초고령화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최윤식 외,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66.

시작한 시기	초등학교	23.7%
	중 . 고등학교	11.9%
	대학교	6.6%
	결혼 후부터	19.7%
	중년기 이후부터	10.5%

교회 직분에 있어서는 집사가 46.1%로 가장 많았고 직분을 받지 않은 회중이 32.9%로 드러나 새신자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겠다. 교육 정도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이 48.7%로 고학력 신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교회 교인들 가운데 27.6%가 모태신앙이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23.7%나 된다. 그런데 대학교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중년기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비율은 모태신앙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점에서 청소년기 이하의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에게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15>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



회중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도생활’이 42%로 가장 많았는데, 기도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본 교회 새벽기도는 매일 오전 5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려진다. 약 20명 정도 참여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지난 4~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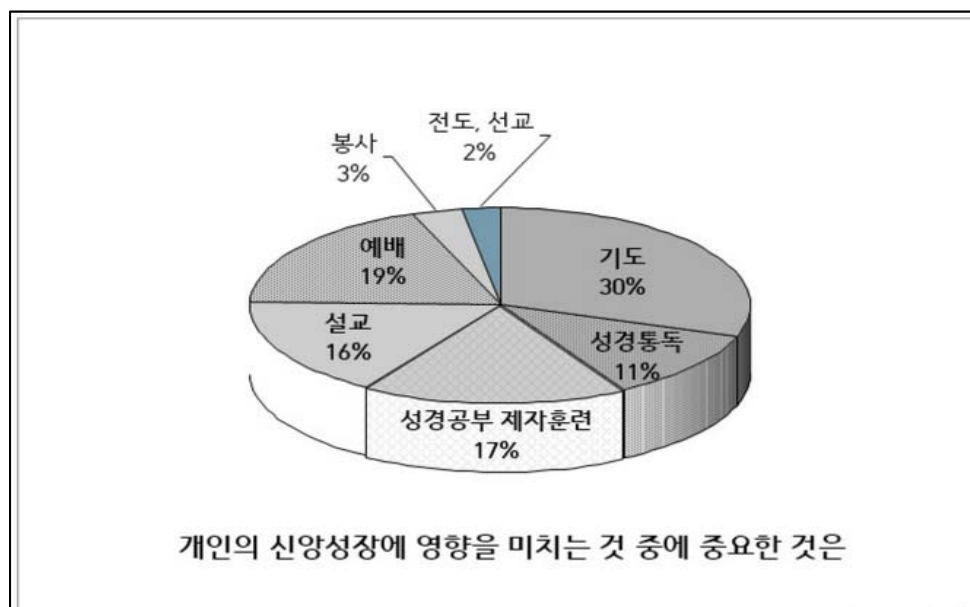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정착되면, 포플라 ‘Step 4: 목상 기도하기’를 새벽기도회에 접목할 계획이다. 포플라 ‘Step 4’는 성경을 역사순에 따라 365주제로 나누어 하루 40분을 투자하면 일년일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이다.²⁶ 성경전체를 1년 365일 동안, 매일 2~4장씩 읽으며 목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든 포플라 ‘Step 4’에 따라 본문을 선택하고 내러포 설교를 준비하여 전달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전도 및 선교’라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는데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²⁷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예배와 설교’라는 응답이 20.5%로 나타나서 예배와 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²⁶ 조병호, *통성경 포플라 지도자 노트*, 105.

²⁷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하고 완수해야 할 다섯 가지 사명이 있다. 즉 ‘선교(전도)’, ‘예배’, ‘교육’, ‘친교(교제)’, ‘봉사’이다...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관점에서 선교와 교육과 치유, 이 세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재근, *크리스천 스트럭처(Christian Structure)*(서울: 도서출판 KMC 2011), 149-150.

<표16> 개인의 신앙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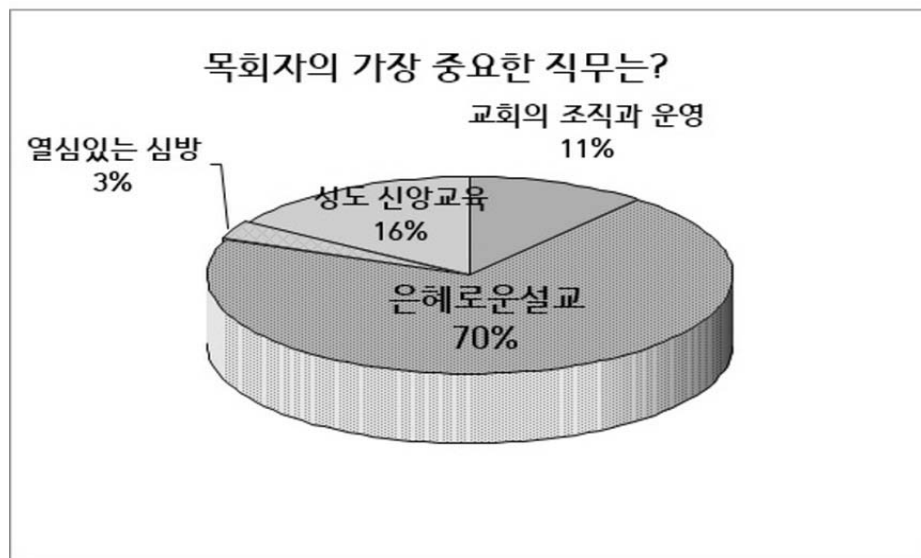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개인의 신앙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중복응답을 각 항목 당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교회부흥과 전체 회중의 신앙성장에 대한 응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성장에 대한 응답 중에서도 기도생활이 가장 많았는데 성도 개인의 신앙성장에 대해서도 ‘기도’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성경공부나 제자훈련 같은 교육의 부분은 17%, 성경통독은 11%로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예배와 설교에 대하여도 19%로 교회성장에 관한 응답과 거의 동일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회성장과 전체 회중의 신앙성장에 대하여 시급한 과제가 전도와 선교라고 답한 회중이 24.7%였던 것에 비하여 개인의 신앙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도와 선교 항목이 2%로 겨우 한 사람이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도와 선교’ 외에 다른 요소들의 비율은 전체회중의 신앙성장과 개인의 신앙성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라는 교회적인 사명에 대해서

는 성도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 개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의지는 빈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교회가 현재 국내 . 외 선교를 위하여 22개 교회 및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중들은 여기에 대하여 교회의 역할로만 인식하지 개인의 사명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의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주제²⁸로 설교할 때 회중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매년 추수감사절 주일에 시행하고 있는 ‘VIP 초청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성도들이 직접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 중인 교회 및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표17>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



²⁸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의 주제들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5 세계 선교의 꿈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 28 공생애 3년, 31 열리는 제자시대, 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등이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무려 70%의 회중이 ‘은혜로운 설교’ 라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하여 신앙 교육은 16%, 교회 조직과 운영의 행정적인 측면의 사역이라는 대답은 11%에 불과하였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열심 있는 심방’ 이라는 항목이 겨우 3%로 응답되었다. 최근 들어서 휴대전화와 SNS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심방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본 교회에서는 질병 때문에 입원한 성도들과 이사 또는 개업 등의 이유로 심방을 요청하는 것 외에 특별히 심방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회중들은 목회자의 역할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것도 ‘은혜로운 설교’ 를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설교에 대한 준비와 실행에 더욱 성실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한다. 이러한 요청은 본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표18> 설교는 본 교회성장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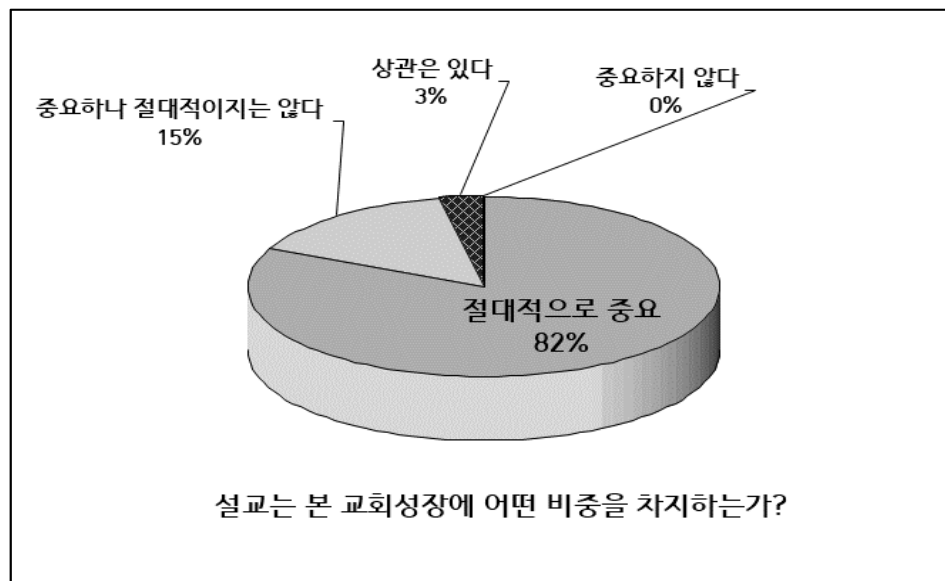


표18은 교회성장과 설교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설교가 교회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82%)고 응답하였다.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성도는 15%에 불과하였고, 설교와 교회성장이 상관이 있다는 소극적인 응답은 극소수인 3%에 불과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설교는 교회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본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장에 설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에 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동시에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에 전폭적인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이 교회의 성장을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 역량에만 책임 전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질문한 항목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9> 회중은 설교자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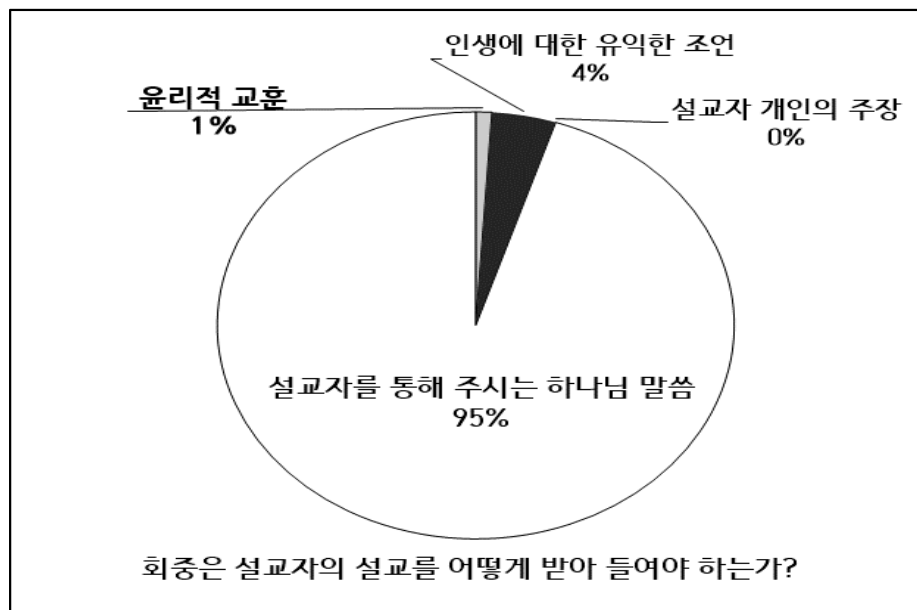


표19는 ‘회중은 설교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선 문항과의 연관성 고려해야 한다. 앞선 표18의 질문인 ‘설교는 교회성장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회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나, 또는 중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응답의 결과는 설교를 ‘설교자의 설교 역량’ 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을 전달하는 ‘설교자의 역할’ 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교회 회중들의 절대 다수(95%)가 설교를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으로 인식하고 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메신저(messenger)이고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설교자 개인의 의견이나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교회의 회중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본 교회 회중들이 생각하는 설교의 본질은 ‘인생에 대한 유익한 조언(4%)’ 도 아니고 ‘윤리적 교훈(1%)’ 도 아닌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다.²⁹ 교회성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役事)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회중의 생각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본 연구자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설교가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태도는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려포 설교를 진행하면서 ‘설교자’ 와 ‘회중’ 모두에게 더욱 확고해졌다고 하겠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가운데 설교가 설교자 개인의 주장(0%)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현재 설교자가 개인의 주장을 펼치지 않고

²⁹ 이와 관련하여 레너드 스윗의 다음 주장을 참고 하라. “성경의 이야기가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훈을 간단한 요점으로 만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서울: 한시미션, 2007년 5. 22) 소개팜플렛, 18.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쳐두고 개인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회중들의 무언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표20> 회중이 설교를 돕기 위해 해야 할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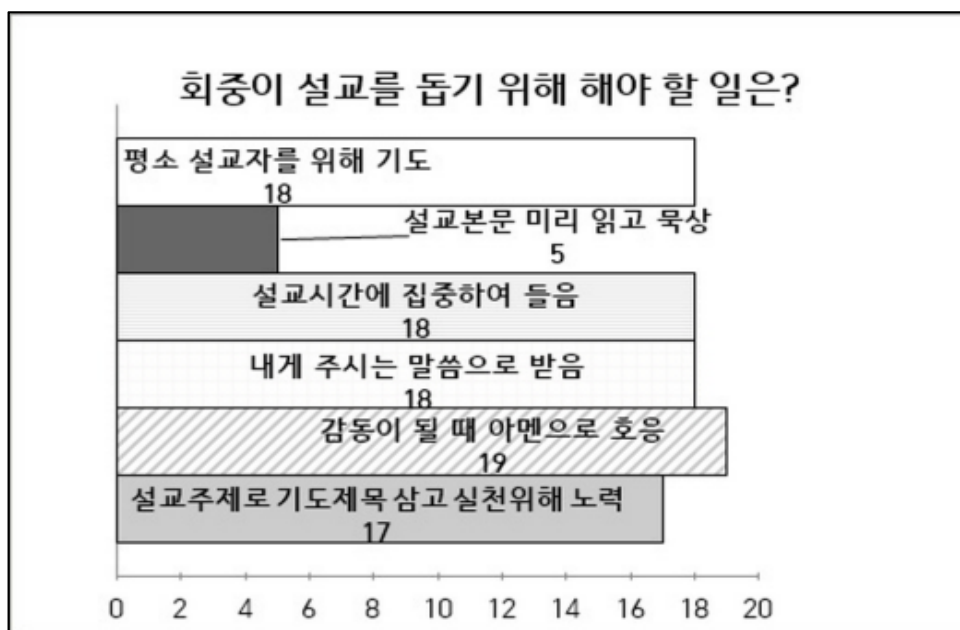


표20은 회중의 자세가 설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교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고, 설교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회중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회중들은 설교자를 위하여 협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회중은 다양한 형태로 설교자를 돕고 있음이 나타났다. 회중이 설교자를 돕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된다. 연구자는 매주 강단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선다. 크래독의 말처럼, 설교자는 회중이 아군이 적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또한, 설교자가 회중의 사랑과 신뢰를 의심하게 되면 회중의 얼굴 표정의 변화나 사소한 동작 하나도 모두 부정적으로

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³⁰ 설교자는 회중의 사랑과 신뢰를 확신하고 회중 역시 설교자에 대한 동일한 확신을 가질 때 설교를 매개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

<표21> 주보에 기록된 ‘통성경 포물라’가 설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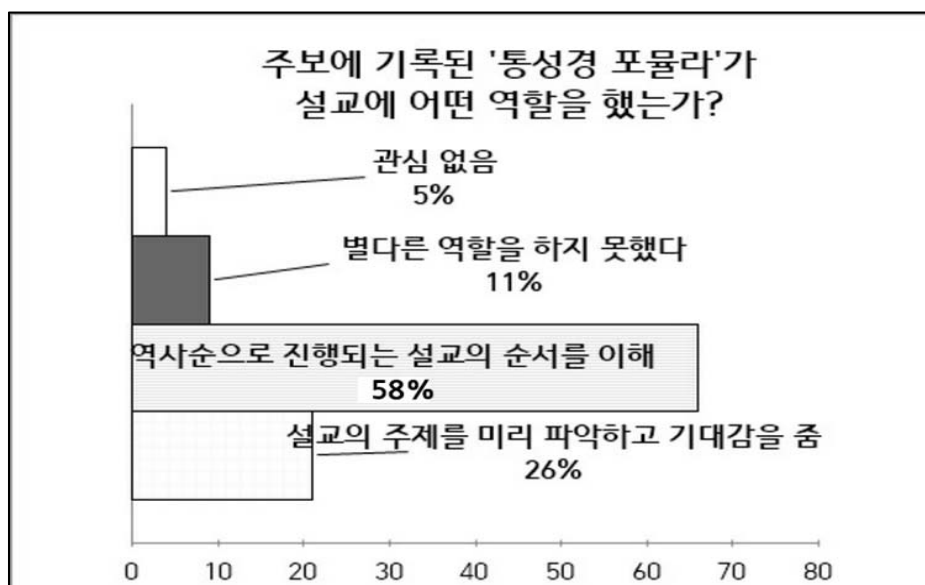


표21은 주보에 미리 기재한 통성경 포물라의 step 2 ‘하나님의 마음 알기’ 20마당과 step 3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이 설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연구자는 매주 설교시작 전과 광고시간을 통해서 주보에 기록된 통성경 포물라의 40 스토리 라인을 따라 성경 역사순으로 설교하고 있음을 회중에게 주지시켰다. 이어서 그날 설교할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회중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회중은 최소한 그날 듣게 될 설교가 통성경 포물라의 40 스토리 라인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하는 주제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된다. 주보에 기록된

³⁰ Craddock, *크래독의 설교 레슨*, 338.

‘통성경 포물라’가 설교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반면에, 설교의 주제를 미리 파악해서 기대감을 주었다는 것과 역사순으로 진행되는 설교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4%를 차지했다.

연구자의 의도는 ‘통성경 포물라’를 회중이 익숙한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고, 역사순으로 진행되는 설교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응답의 결과는 이에 만족할만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22> 설교 시간의 전체 회중의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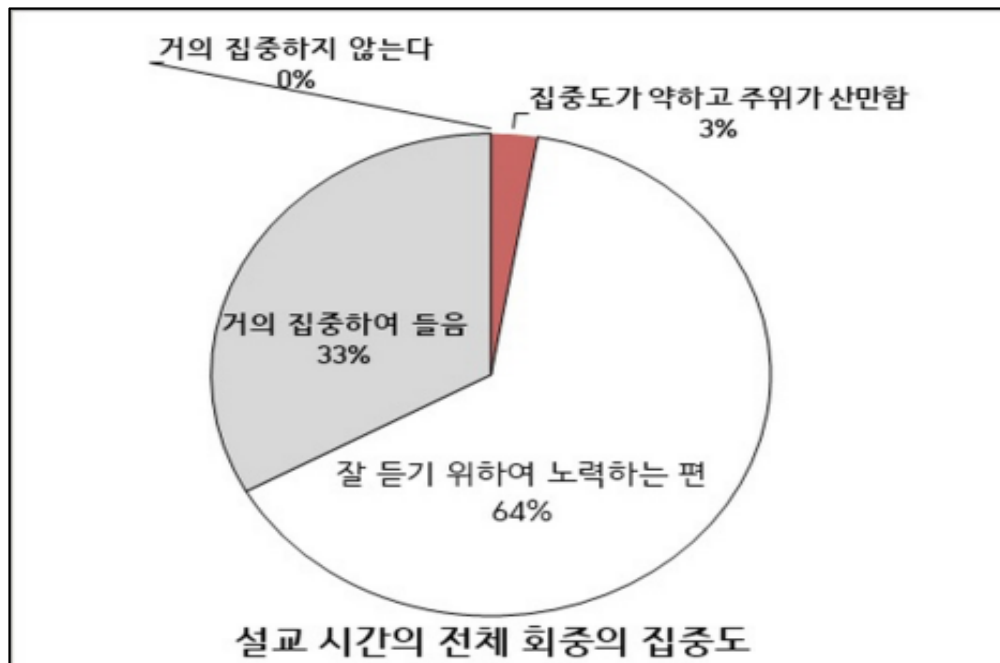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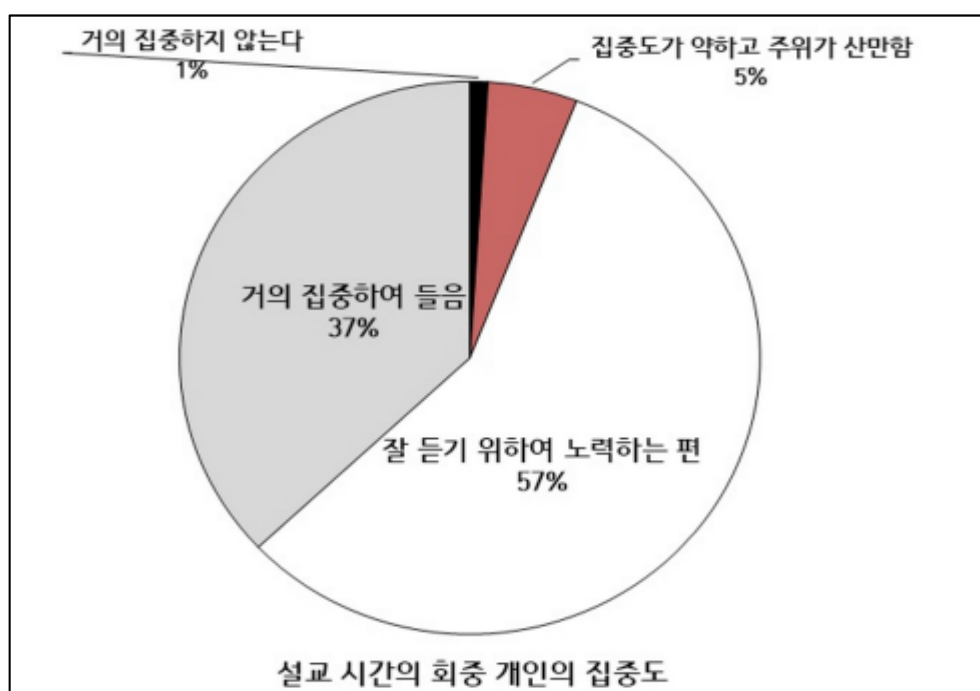


표22는 설교 시간의 전체 회중의 집중도에 관한 결과이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중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느냐에 있다. 설교자가 말하는 것은 설교의 반쪽에 불과한데, 그것도 덜 중요한 반쪽이며 나머지 반은 회중의 듣는 것이라고 말한

찰스 A. 바토우(Charles A. Bartow)의 지적³¹은 설교자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³² 본 교회의 회중들이 느끼는 전체 회중의 집중도는, 긍정적 응답이 97%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아래 표23은 표22과 관련된 회중 개인의 집중도에 관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도 앞의 통계와 거의 같은 수준인 94%의 회중이 개인의 집중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도 설교에 대한 회중의 집중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진행되며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 된다.

<표23> 설교 시간의 회중 개인의 집중도



³¹ Charles A. Bartow. *The Preaching Moment* (Nashville, TN: Abingdon, 1990), 13. 윤영철, “설교유형과 회중의 반응간의 관계분석,”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류대학교, 2002), 76에서 재인용.

³²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회중석과 강단 사이의 관계는 설교자의 수련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이 점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은 회중석에다가 커다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D.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134.

<표24> 설교를 듣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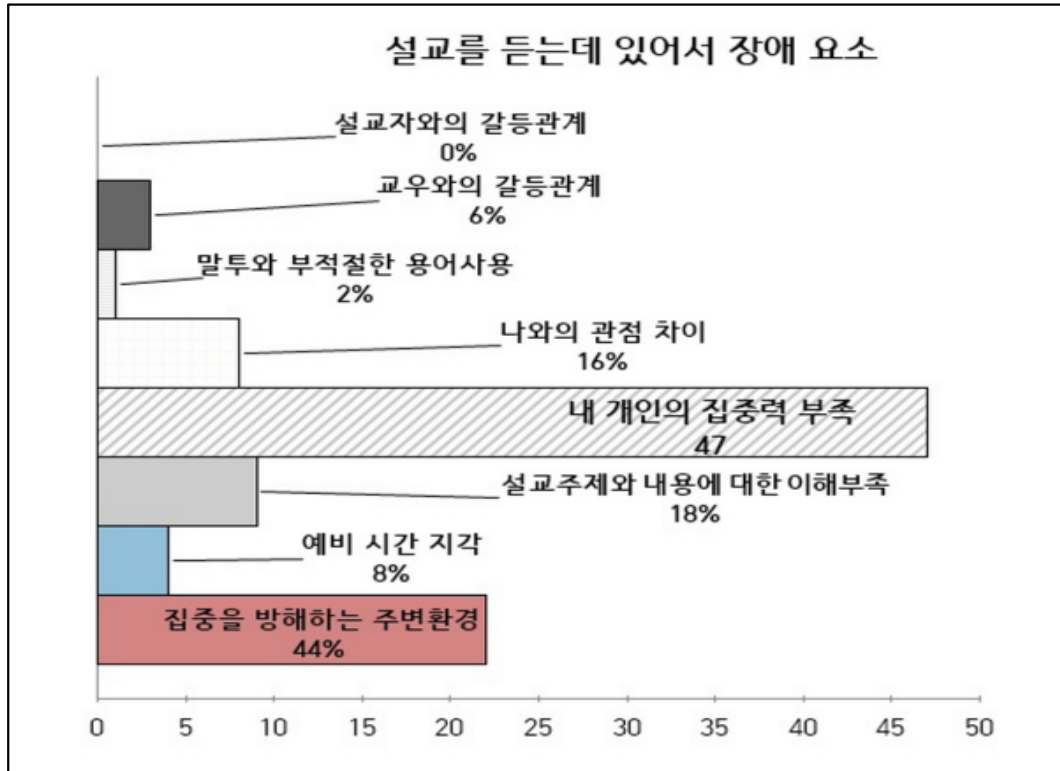


표24는 설교를 듣는데 있어서의 장애 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응답에서 설교자나 교우와의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절반 가량의 회중인 47%는 만일 설교를 듣는 일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집중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설교주제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이 18%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의 집중력과 연관되는 것이다. 회중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집중력을 상실할 때, 설교의 맥을 놓치게 된다. 다음으로 설교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변환경이라고 응답한 회중이 44%가 된다, 이것은 본 교회의 위치가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 빈번한 차량통행으로인 한 소음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 된다.

<표25> 이전 설교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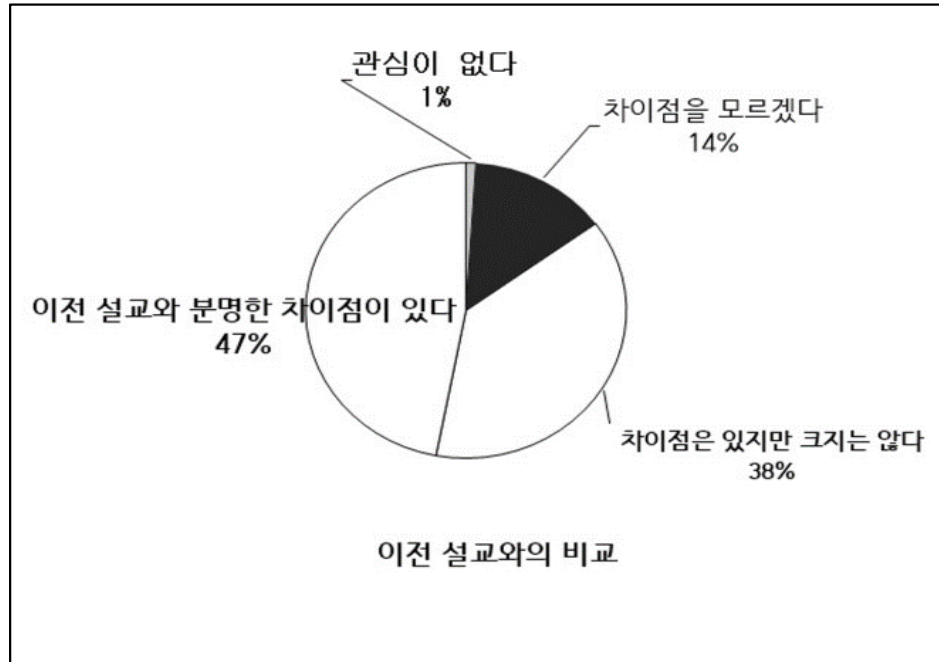


표25는 이전 설교와의 비교에 관한 질문과 그 응답에 대한 통계이다. 그 결과 회중 가운데 이전 설교와의 차이점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회중은 85%이었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이전 설교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중의 절반 정도의 비율인 47%였다. 그런데 현재 설교와 이전 설교의 차이점이 있어도 크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38%가 된다.

이러한 응답을 분석하면,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전체 회중이 특징 있는 설교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중이 내러포 설교만의 뚜렷한 차별성을 파악하기에 본 프로젝트를 시행한 1년은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고 평가된다.

<표26> 설교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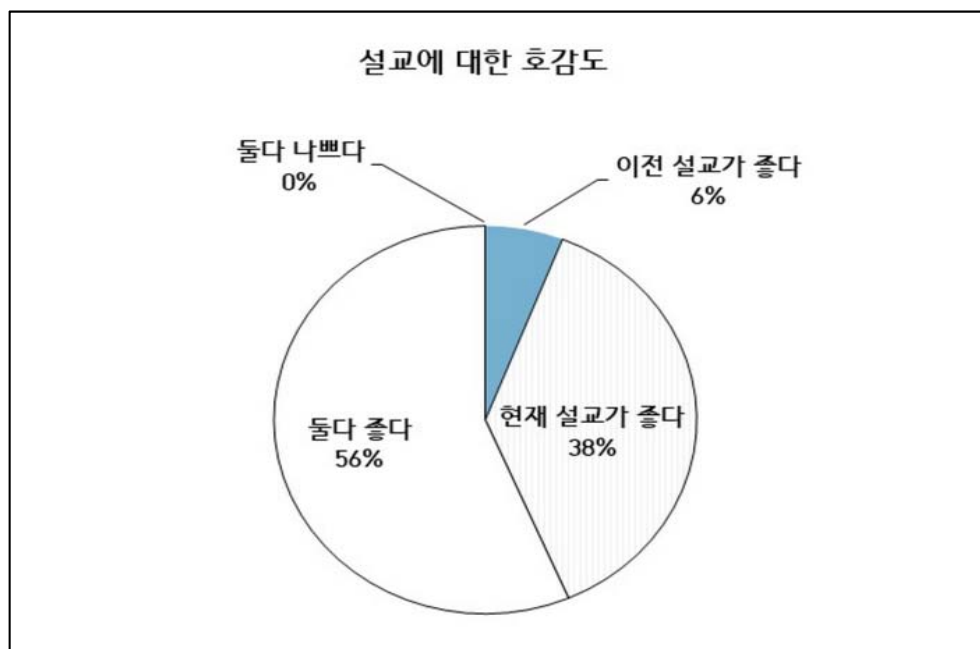


표26은 설교에 대한 호감도에 관한 응답이다. 거의 모든 회중은 연구자의 설교에 대하여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교가 좋다는 응답은 38%이고 이전 설교와 현재 설교 모두에 대하가 좋다는 응답이 56%가 된다. 이것 또한 표30에서처럼 현재의 설교가 차별성을 가진 설교로 인식되기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 설교가 좋다는 응답도 6%다 되는데, 평신도 대표와의 토론회 자료와 비교해 보면 소수의 사람들은 이전의 행해졌던 강해설교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이전의 강해설교에서 현재 성경본문 자체에 집중하는 설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화자료들을 활용했다. 현재 설교는 성서만을 설교해야 하며, 성서 전부를 설교하여야 하고, 오직 말씀과 더불어 설교하여야 한다는 ‘성서적 설교’를 실천하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예화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전의 설교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27>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를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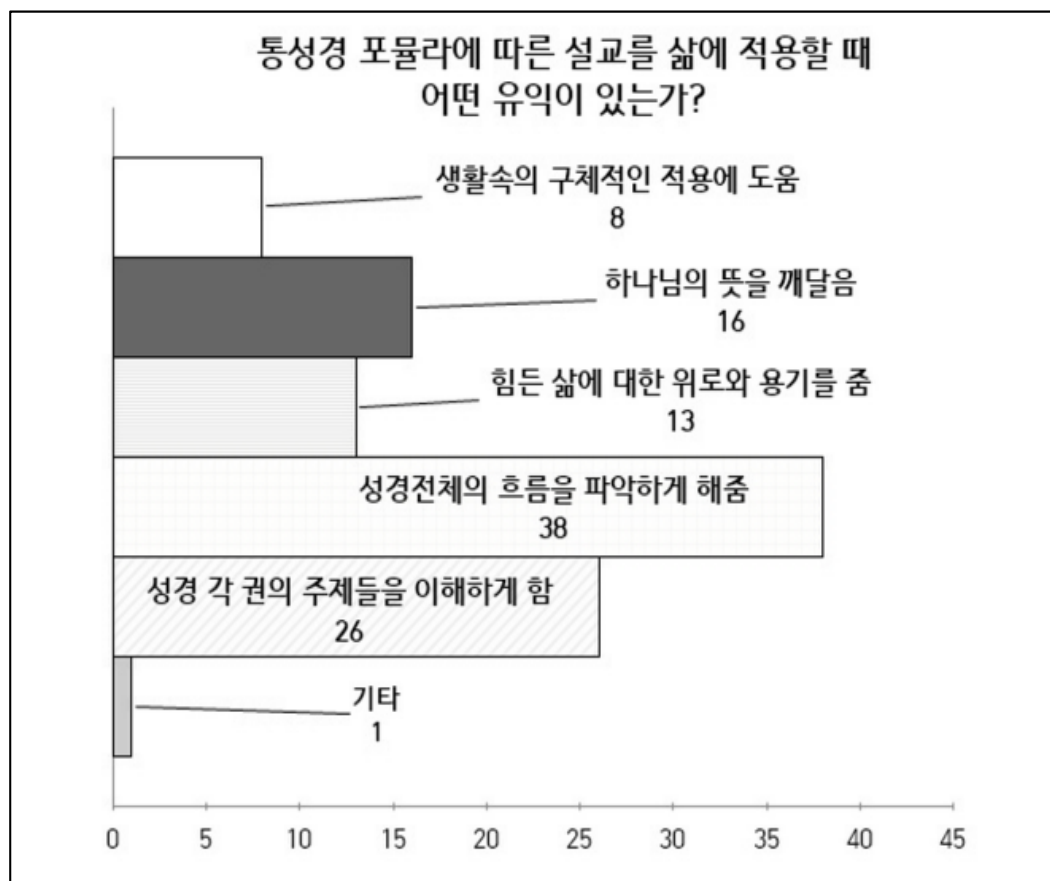


표27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를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유익이 있다고 응답한 회중보다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고 성경의 역사순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훨씬 많다.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데 유익이 있다는 회중은 37명이고,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회중은 64명이다. 먼저 성경의 주제와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의 영역이 확장 될 것이기에 이 결과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28>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가 전달되는 측면의 장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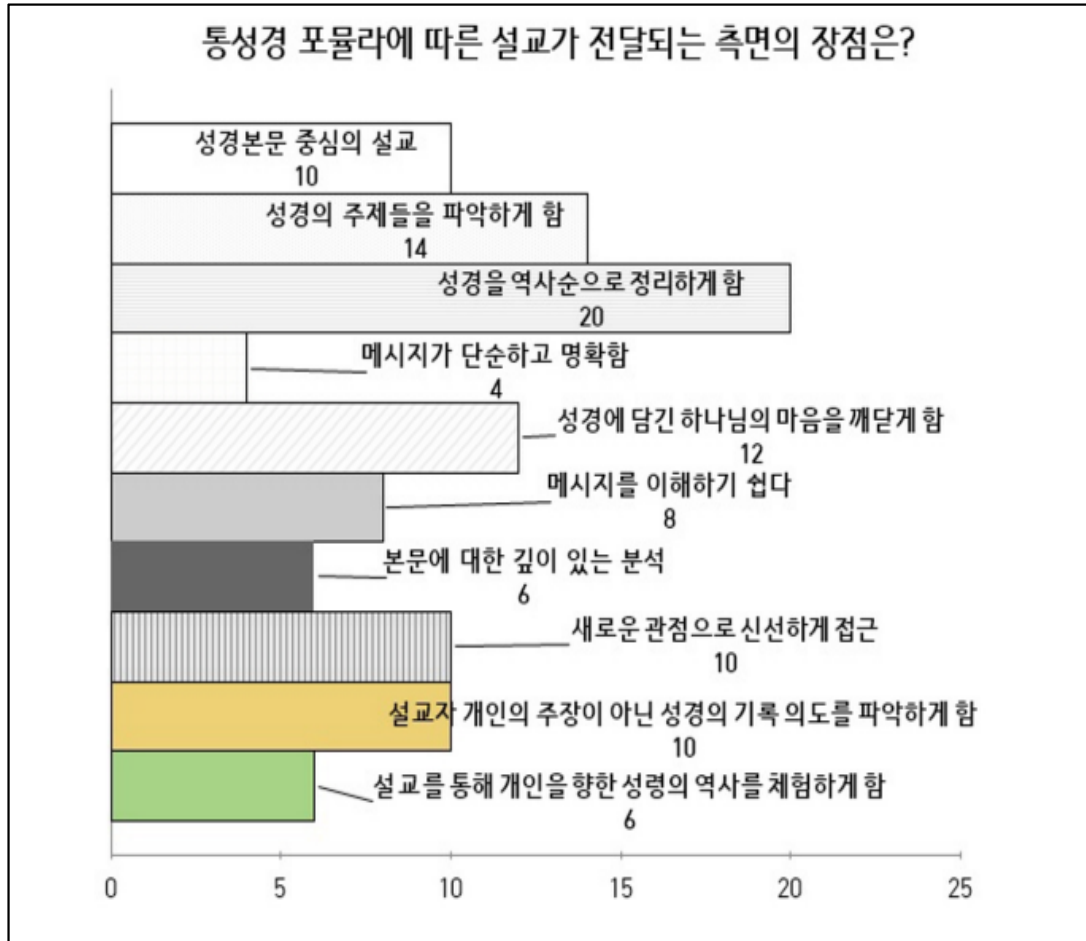


표28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가 전달되는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중복응답의 결과이다. 이 통계자료에서 회중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항목은 ‘성경을 역사순으로 정리하게 함(20명)’, ‘성경의 주제들을 파악하게 함(14명)’,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함(12명)’의 순서이다. 이 응답은 통성경 포물라 설교가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려포설교가 회중들에게 성경적인 설교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9> 매 주일 예배 설교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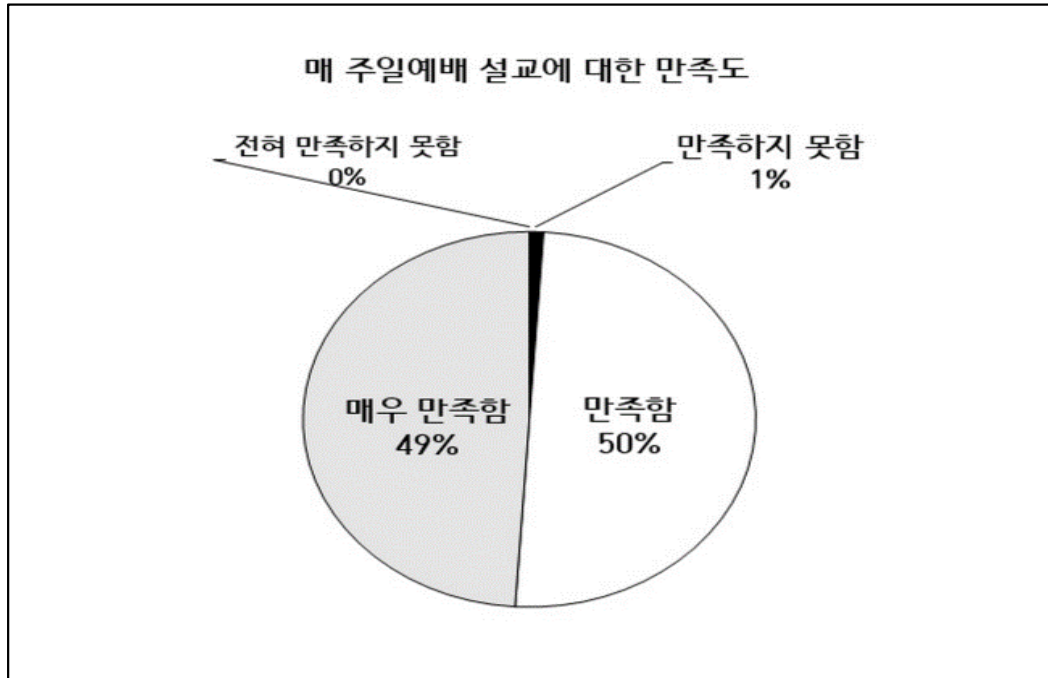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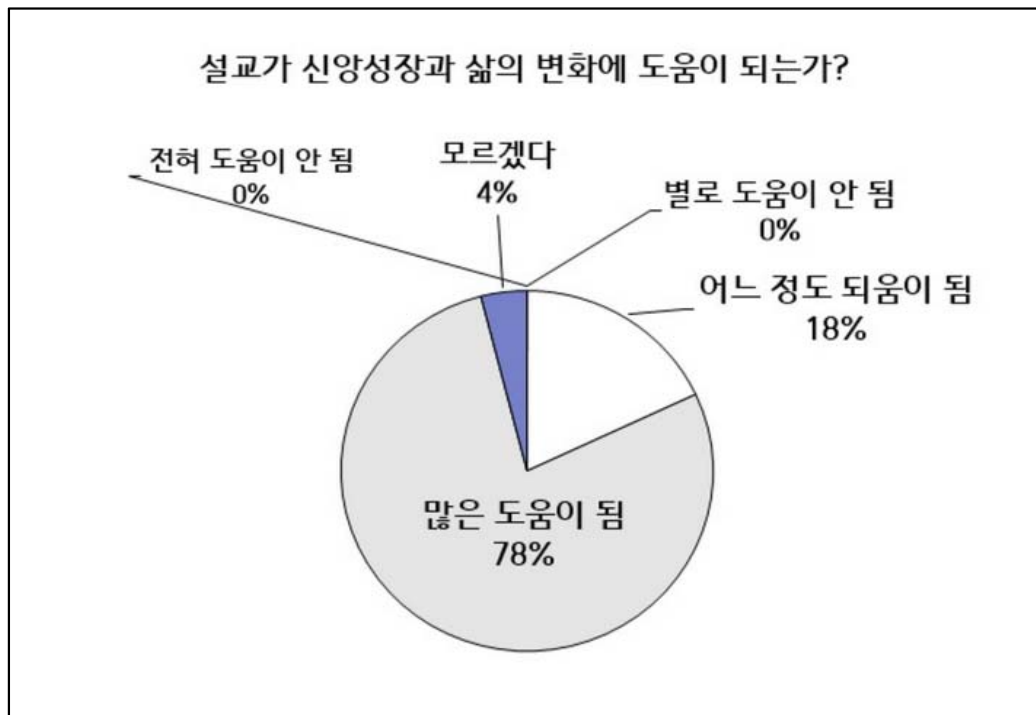


표29는 매 주일 예배 설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9%로 회중들의 주일 예배 설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29일 실시했던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교회에 등록했던 새가족들 가운데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마산·창원지역과 김해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 다니는 성도들의 경우에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지속적인 예배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응답은 현재 회중들이 갖는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해질 설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이기도 한 것이기에 이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어지는 표30은 설교가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분석한 결과는 표29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설교의 효과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극소수인 4%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성도들인 96%는 ‘많이 도움이 된다’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여 설교가 신앙성장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중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도 한결같이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³³ 것이 사실이다.

<표30> 설교가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가?



³³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66.

<표31>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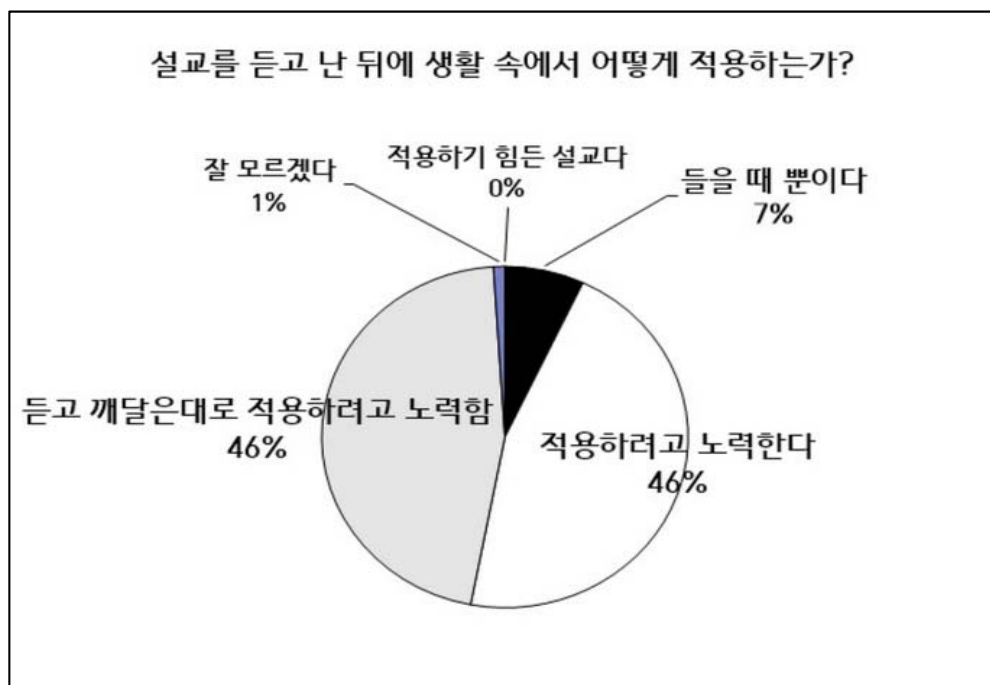


표31은 회중들의 설교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관련성에 관한 설문조사이다. 회중들 가운데 ‘듣고 깨달은 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46%,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46%로 나타나서, 거의 모든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매주 설교를 듣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될지에 대한 ‘각론(各論)’이 정확해야 한다.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회중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적용부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칫하면, 설교가 일반적인 교훈이나 형이상학적 감동으로 그치고 말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긍정적인 변화는 회중들의 적용에 관한 부분이었다.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용과 연결된 결론’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7%의 소수이지만 ‘들을 때 뿐’이라는 설교 실천에 대한 무기력한 회중이 변화될 것이다.

<표32> 설교자의 설교준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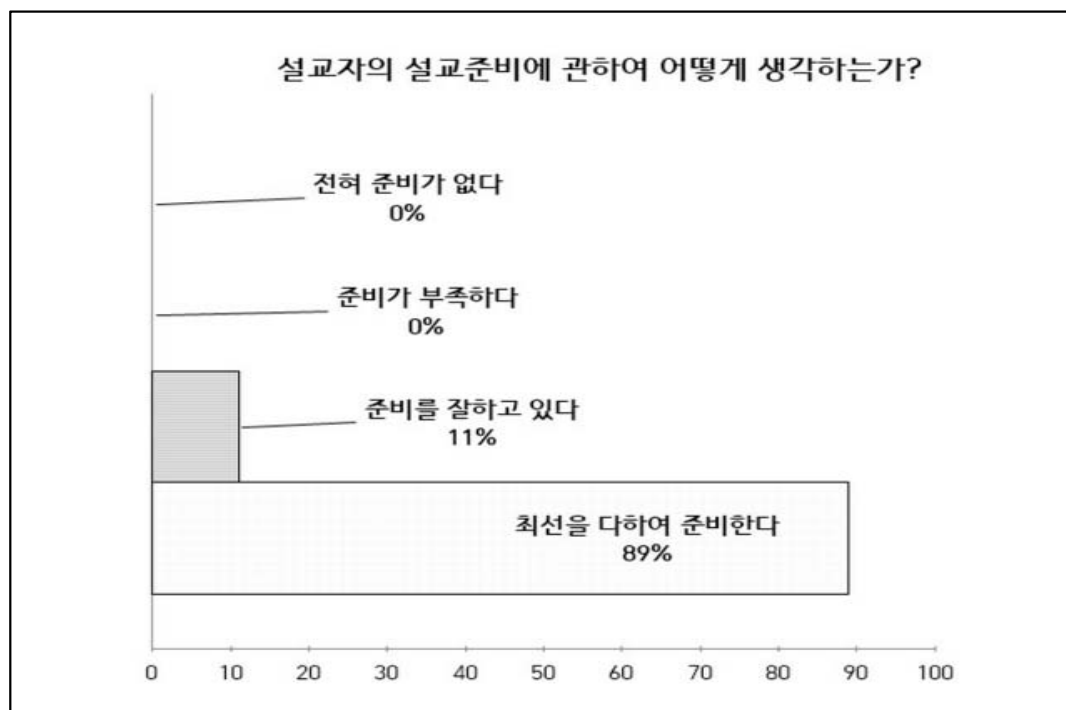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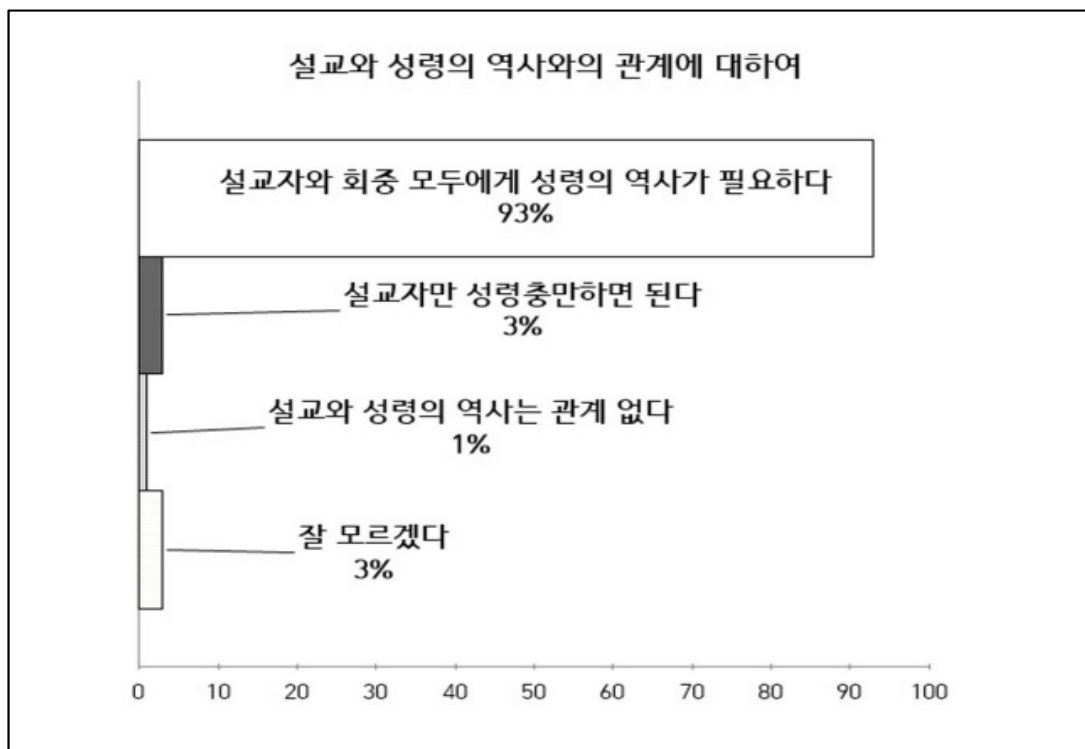
표32는 회중들이 설교자에 설교준비에 대한 설문 조사이었다.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는 의견이 89%로 가장 많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머지 11%를 차지해서 모든 회중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설교자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한 사람도 없었다. 회중들이 현재 설교자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 철저히 준비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전달되는 설교의 만족도에 달린 것이라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대로 회중들이 설교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기에 그 준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한다.

설교준비를 위한 연구의 부분에 있어서 크래독(Craddock)의 조언은 매우 유용하다. ‘설교자는 크든 작든 자신의 연구계획을 교인들에게 공개하고, 설교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³⁴ 다행히

³⁴ Craddock, *크래독의 설교 레슨*, 113.

연구자는 부임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회중들을 설득한 끝에 공감을 얻고 있다. 본 교회 회중들은 설교준비에 관한 시간과 비용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유익한 효과를 얻게 하고 있다.

<표33> 설교와 성령의 역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끝으로 표33은 설교와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회중들의 생각을 조사한 것이다.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고 응답한 회중이 93%로 대다수의 회중은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있다. ‘설교자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 고 응답한 회중이 3%이고, 설교와 성령의 역사는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1%,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응답은 새롭게 등록된 새가족들의 반응으로 분석된다. 본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성령의 역사’

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연구자는 누구보다도 설교가 설교자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잘 전달하고, 회중이 그 말씀으로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전체 평가

본 연구에 대한 전체 평가는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자의 자체 평가를 뜻한다.

평신도 대표와의 토론회에 대한 평가

먼저 평신도대표와의 토론회에 대한 평가이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함안중앙교회 회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15년 11월 22일 평신도대표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교회 평신도 대표들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본 교회에서는 매년 지방회에 참석할 구역 평신도 대표들을 구역회 때 선출하는데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은 2015년 함안중앙교회 구역 평신도 대표들이다.³⁵ 이 평신도대표들은 교회의 평신도들을 대표하여 지방회에 참석할 뿐 아니라 교회 각 부서조직의 대표이기도 하다. 본 교회에서는 집사 이상의 임원으로 최소한 5년이상 무흠하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각 부서의 대표를 맡긴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전체 회중의 대표성을 가지며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³⁵ 2015 함안중앙교회 평신도 대표: 김춘국(장로대표), 하창진(선교부대표), 김양순(교육부대표), 양재수(관리부대표), 김열자(사회봉사부대표), 신종권(교회학교대표), 조용식(권사대표), 이광호(남선교회대표), 이유자(여선교회대표), 이준호(청장년선교회대표), 김현지(청년회대표).

참석 대상 가운데 교육부 대표 김양순 권사는 손목 관절 부상으로 인한 치료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이 어려웠고 청년 대표 김현지 성도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을 제외한 총 참석인원은 김춘국 장로, 하창진 권사, 양재수 권사, 김열자 권사, 신종권 권사, 조용식 권사, 이광호 집사, 이유자 권사, 이준호 집사, 등 9명 이었고 토론회의 사회와 진행은 본 교회 소속 목사인 이성민 목사가 맡아주었다. 평신도대표 토론회 내용을 분석할 결과 전교인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문수록은 생략하였다.

평신도대표들은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설교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본 프로젝트가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정리 요약할 수 있으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하고 성경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 중의 교회성장에 대해서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평신도대표 중의 일부는 이전에 연구자가 해왔던 강해설교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더 나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수 의견은 차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성경을 역사순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의 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게 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평가

다음으로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평가이다.³⁶ 교회 평신도대표들이 본 교회의 기존 신자들 중심이라면 새가족들은 교회에 등록한지 1년 이내의 새신자 중심이다.

³⁶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참석자: 정명숙 집사, 최혜진 집사, 강경태 성도, 유영욱 성도, 전용효 성도, 김원아 성도, 강순애 성도, 선정희 성도, 윤남국 성도, 김선진 성도. (총 10명)

연구자의 기존 설교들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 함안중앙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다.³⁷ 이 들 중에는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신자들 29명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 총 29명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 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힌 10명을 상대로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좌담회 사회와 진행은 본 교회 소속 목사인 이성민 목사가 담당했다.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내용 전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새가족들은 타교회에서 이명해 온 집사 두 분을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신자들이다. 이 좌담회를 통하여 향후 새가족들에게 성경적인 설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들은 교회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이미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고 그 교회들의 설교를 청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현상은 수평이동 신자를 비롯한 새가족들이 정착하기 전에 거치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새가족들은 본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설교’ 라고 응답하였다. 새가족들은 본교회의 설교의 장점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고, 성경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전해지기에 유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새가족들이 설교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지 않고’, ‘내용이 흥미롭고’, ‘성경중심적’ 이라고 평가한 것은 고무적인 반응이다. 통성경 포물라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새가족들은 통성경 내러포 설교

³⁷ 최근 함안중앙교회 새가족 명단 (교회 등록 1년 이내): 김경주, 성기대, 이명문, 윤옥연, 윤남국, 김선진, 임정화, 서희석, 선정희, 박재우, 안덕순, 임외택, 신경숙, 강순애, 김원아, 이태호, 정명숙, 전용효, 박은숙, 최혜진, 김미정, 추경옥, 강경태, 유영옥, 김현정, 김효련, 김성우, 이미영, 김정자 (29명)

를 통하여 성경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자신들의 믿음 성장에 유익하다고 반응하였다. 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새롭게 등록하여 정착한 새가족들이 29명인데, 이것은 연구자가 부임한 이래 가장 높은 새가족 정착률이다. 따라서 통성경 내러포 설교가 새가족 정착과 교회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고 평가 한다.

프로젝트 평가

본 프로젝트는 연구자에게 성경적 설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설교가 성경을 역사순으로 정리하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큰 그림으로 요약하는 성경적 설교임을 확인하였다. 프로젝트 시행 이전의 연구자가 선택했던 설교의 본문들은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었으며 특정 본문들에 편중된 것이었다. 그 결과 회중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들을 수 없었고,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1년 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회중에게 성경에 대하여 보다 선명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였고, 성경의 주제들에 관하여 균형 잡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와 ‘은유’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내러포 설교는 성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기억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중들은 성경 통독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어 이 기간 동안에 33명이 성경을 통독하였는데, 이것 역시 연구자가 부임한 이래 가장 높은 통독률 (27.5%)이다.

프로젝트는 회중에게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성경적 설교를 통하여 회중의 신앙이 성장하며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고 설교자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는 교회를 향

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신앙적인 필요가 만나는 장(場)이 된다고 평가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총 40개 주제의 ‘통성경 즐기(Tong Story Line)’를 전부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1년간 40개의 주제 가운데 31개를 다루었고 9개의 주제가 남았다. 이런 오차는 9개의 주제에 대하여 2주 이상 설교하는 시리즈형식의 설교를 했기에 발생했다. 시리즈 형식으로 설교한 주제에는 내러포 설교에 적합한 ‘이야기’들이 풍부했고, 거기서부터 많은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는 이것을 회중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하고자 했는데³⁸ 그 결과, 1년 동안 통 성경 즐기 전체를 설교하기로 했던 프로젝트 원래의 계획에 차질을 주었다. “청중들이 계속 설교를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신비를 다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³⁹는 유진 로우리(Eugene Lowry)의 충고에 주의했다면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백성이 듣지 않는다고 없어지거나, 예언자가 전달하기를 거부한다고 물러가지 않으며, 비록 청중과 예언자는 실패해도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연구자에게 큰 위안과 소망이 된다.⁴¹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11)

³⁸ “단숨에 텍스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욕심은 삼가야 한다. 텍스트는 우리가 알고 싶은 욕망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또 텍스트 자체 안에서 우리에게 건네진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텍스트로 되돌아가야 함도 인정해야 한다.” 서인석 편저, *기호학 교육론: 복음서의 이야기*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181.

³⁹ Miller, 박현신 역,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401.

⁴⁰ 지도자는 ‘빨리 해결되길 기대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William M. Easum, *Sacred Cows Make Gourmet Burguers*, 안승철 역, *통제: 사사건건 막히는 교회 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401.

⁴¹ 민영진, *설교자와 함께 읽는 율기*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2002), 366.

제 V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I 장의 서론에서 ‘편향적 성경읽기’와 이에 따른 ‘편향적 성경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반성으로 본 연구는 시작된다. 연구자는 성경전부를 역사순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주제들을 균형 잡히도록 설교해야 함을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설교가 가능하도록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제안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 봄으로 본 연구의 기반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어 연구 방법과 범위를 정하였고 연구의 제한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II 장 통성경 포물라에 내러포 설교의 성서적·신학적 이해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통성경 포물라’와 ‘내러포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통성경 포물라(Formula for Tongbible)는 조병호가 25년간 성경통독을 인도해오면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 통성경화(TongBiblization)를 위한 방법론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공식(公式)이다. 그리고 통성경 포물라(Formula for Tongbible) 가운데 40개의 통성경 스토리 라인을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이 말한 내러포, 즉 ‘이야기’와 ‘은유’의 방법으로 설교하는 것이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이다.

‘내러포 설교 (Narraphor Preaching)’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와 ‘은유’로 만들어졌고, ‘이야기’와 ‘은유’로 전달되었으며, ‘이야기’와 ‘은유’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 방법 역시 이야기와 은유를 이야기와 은유 자체로 읽고 듣고 전하는 내러포 방식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가장 성경적인 방법임을 밝혔다.

성경에는 십계명과 산상수훈처럼 명제적이고 교의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많은 비내러티브(nonnarrative) 말씀도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명제들마저도 위대한 이야기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신학들과 명제들을 담아내기 위해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신학을 찾기 위해서는 ‘스토리’로 가야하며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 본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의 성경적·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2015년 1년간 총 52회의 설교를 개발하여 주일예배 시간에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회 평신도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그리고 새가족들과의 좌담회를 가졌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적용 이후, 회중들의 반응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함안중앙교회 회중들의 삶의 자리를 분석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회중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다루었다. 다음으로 총 3가지 주제 25문항으로 된 설문조사를 통계 내고 분석했고, 평신도대표와의 토론회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는 회중들에게 성경의 흐름을 역사순으로 파악하게 하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

해하고 거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회중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 새가족이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고, 회중들이 성경통독에 대한 열의를 갖게 되어, 출석성도의 27.5%(33명) 성경 1독 이상을 실천하였음을 밝혔다.

연구의 결론

만일, 교회가 교회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원칙에 무지하다면, 교회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위해 헌신하지도 못할 것이며, 또한 교회에 강력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우리 후손들과 지역사회에 기독교 유산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케네스 캔저(Kenneeth Kantzer)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하여 경고했다.¹

연구자는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회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이 설교가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따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러포는 성경 자체의 전달과 보존 방식이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² 지나간 모더니즘(Modernism) 시대는 내러티브를 실체(reality)를 접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려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억누르거나 제거하려고 했다. 이런 태도는

¹ George H. Gallup Jr. & D. Michael Lindsayhing, *The Gallup Guide*, 배웅준 역, *교인여론조사* (서울: 규장문화사, 2002), 17.

²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시다... 그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인간의 형태로 가장 온전히 계시된다...우리는 성경과 전통과 교회를 통해 계시되는 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 진리 곧 온전한 진리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Sweet, *관계의 영성*, 129.

특히 성경 해석학 분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³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성경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었다.⁴ 다시 조명을 받게 된 성경 이야기를 가장 적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은유와 이야기에 근거한 ‘내러포’ 설교이다. 이런 주장은 지난 1년간 본 교회에서 나타난 회중들의 변화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1년 간의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용을 심화시킬 것이다. 연구자는 통성경 내러포 설교가 ‘교회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원칙’⁵이며, 적어도 본 교회의 다음세대에 믿음을 전달할 통로임을 확신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독교 유산을 전달할 재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었다. 양자 사이에 여러가지 유사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구체적인 적용’⁶에 대한 측면이다. 내러포 설교는 통성경 포물라에 따라 실행된다. 통성경 포물라는 통성경화(TongBiblication)를 위한 방법론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공식(公式)이다. 이 정교한 공식에 따라 교회에서 설교하며, 가

³ Alister E. McGrath, *Mere Apologetics*, 전의우 역,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235. 한스 프라이(Hans Frei)는 성경의 내러티브적 특성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고, 성경의 역사적 기사와 내러티브 형식을 본질적으로 무시간접 개념으로 축소하려했던 성경 해석학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Hans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Biblical Hermeneu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에서 재인용.

⁴ Ibid. “기독교는 이야기로 꾸며진 세계를 선포하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루는 내러티브에 근거하고 그 내러티브를 통해 형성되는 개념과 가치를 갖는다.”

⁵ Gallup, Lindsayhing, *교인여론조사*, 17.

⁶ 적용에 관한 다음 조언은 유익하다. “메시지의 절반은 본질상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절반은 본질상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James I. Packer, *Truth & Power*, 서원교 역, *하나님의 대변자*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0), 188.

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며, 지역사회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⁷ 내러티브 설교의 최종적인 목적도 성경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다.⁸ 문제는 내러티브 설교에는 통성경 포플라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로 읽거나 내러티브 설교로 들은 성경 이야기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전달 통로 역시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역사적인 순차성’에 대한 측면이다. 성경통독은 역사순 읽기와 듣기가 가장 효과적이다.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는 40개의 중요한 성경의 스토리를 1년 52주 동안 역사순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 설교’는 본문 안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에만 관심을 갖는다. 내러티브라는 예술적, 문학적 방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는 ‘갈등(conflict)과 반전(reversal)’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발단 - 전개 - 위기 - 결말’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된다.⁹ 내러티브 설교는 이러한 갈등 구조의 흐름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만 가능함을 강조하지만, 성경 전체의 역사순 흐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필연적으로, 현재 성경이 편제되어 있는 ‘장르별’ 편제에 따라 설교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역사 흐름이 엇갈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 세계를 경

⁷ ‘통성경 포플라의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큰 그림 순으로 구성 : 짧은시간 안에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 2. 이야기(프레임과 디테일)로 구성 :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전도할 수 있다. 3. ‘STEP 3’을 중심으로 대칭 구성 : 이론 공부와 실천이 가능하다. 4. 제목(459)에 내용을 담아 구성 : 목상과 기도하기. 5.누구나 하기 쉽게 구성 : 5세 유아에게 교육이 가능하다.” 조병호, *통성경 포플라 지도자 노트*, 11-12.

⁸ “성경이...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책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꽃을 피워야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져야 한다...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274-275.

⁹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27.

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⁰

성경은 분절(分節)시킬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 (One story)이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담긴¹¹ ‘큰 이야기’ (Big story)이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인간과 역사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장엄한 이야기’ (Grand story)이다.¹²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이야기’ (Love story)이다.¹³ 이 이야기를 ‘내러포’ 라는 그릇에 담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확신하다. 끝으로 강단의 위기를 맞아 고민하는 설교자들에게 ‘참된 설교’이며 ‘성경적 설교’인 통성경 포플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를 목회 현장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¹⁰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 얻게 되는 유익한 점은 다음과 같다.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연대기적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독해가다 보면…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이 훨씬 더 쉽고 질서 정연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려 그 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6.

¹¹ “메타내러티브는 세상의 온갖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 신념들, 취향들에 의미를 줄 수 있는 단일한 이야기이다…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려면…우리 자신의 이야기 쓰기를 ‘큰 이야기’ 안에 자리매김하게 해주는 메타내러티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Sweet,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46.

¹² Green, Pasquarello III, *내러티브 읽기·내러티브 설교*, 231.

¹³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 대한 기독교의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요…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나라’의 길들과 지혜 속으로 안내하고 계신다.” Sweet, op. cit., 58.

부록 I . 함안중앙교회 주일예배 설교에 관한 설문지

작성자: 고승모 목사

A. 회중들의 인적 사항 및 교회에 대한 관심도

1. 당신의 성별은?

남. () 여. ()

2. 당신의 연령은?

만 ()세

3. 당신의 직분은?

없음().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4. 당신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

5. 당신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모태 신앙().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후부터(). 중년기 이후부터()

6. 당신이 생각하는 본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도생활(). 성경통독 및 교육(). 예배와 설교().
전도 및 선교().

7. 당신 개인의 신앙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2가지는?

기도(). 성경통독(). 성경공부/제자훈련(). 설교().
예배(). 봉사(). 전도 / 선교().

8.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직무는?

교회의 공동체 조직과 운영(). 은혜로운 설교().
열심 있는 심방(). 성도 신앙교육().

7. 설교가 당신의 신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복응답)

신앙과 인격의 변화(). 올바른 삶의 길 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고난과 역경의 위로와 격려(). 복음의 전달().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회개와 변화에 대한 촉구(). 기타().

9. 설교는 본 교회성장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상관은 있다(). 중요하지 않다().

B. 설교에 대한 회중의 자세

1.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자세는 설교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지만 관심 없다().
잘 모르겠다().

2. 회중은 설교자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윤리적인 교훈(). 인생에 대한 유익한 조언().
설교자 개인의 주장().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 회중이 설교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복응답)

평소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한다().
설교본문을 찾아서 미리 읽고 묵상한다().
설교시간에 집중하여 설교를 듣는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깨우침이 있거나 감동이 될 때는 ‘아멘’ 으로 호응한다().

- 설교 후에 설교자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 설교의 주제로 기도제목을 삼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4. 주보에 기록된 '통성경 포물라' 가 설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관심 없다().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역사순으로 진행되는 설교의 순서를 이해하게 했다().
 설교의 주제를 미리 파악하게 하여 기대감을 주었다().
5. 설교시간에 전체 회중의 집중도는 어떠한가?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도가 약하고 주의가 산만하다().
 잘 듣기 위해 비교적 노력하는 편이다(). 거의 집중하여 듣는다().
6. 설교시간에 회중 개인의 집중도는 어떠한가?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도가 약하고 주의가 산만하다().
 잘 듣기 위해 비교적 노력하는 편이다(). 거의 집중하여 듣는다().
7. 설교를 듣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중복응답)
 설교자와의 갈등 관계(). 교우와의 갈등 관계().
 말투와 부적절한 용어 사용(). 나와서 관점의 차이().
 나 개인의 집중력 부족(). 설교주제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예배 시간 지각(). 집중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
 기타().
- C.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에 대한 회중의 반응.
1.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와 이전 설교와의 비교
 관심이 없다(). 차이점을 모르겠다().
 차이점은 있지만 크지는 않다().

- 이전 설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2.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와 이전 설교와의 호감도
이전 설교가 좋다(). 현재 설교가 좋다().
둘다 좋다(). 둘다 나쁘다().
3.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를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중복응답)
생활 속의 구체적인 적용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힘든 삶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준다().
성경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준다().
성경 각 권의 주제들을 이해하게 해준다(). 기타().
4.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설교가 전달되는 측면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중복응답)
성경본문 중심의 설교이다(). 성경의 주제들을 파악하게 해 준다().
성경을 역사순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 준다().
메시지가 단순하고 명확하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준다().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다().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있다().
새로운 관점으로 신선하게 접근하다().
설교자 개인의 주장이 아닌 성경의 기록 의도를 파악하게 해 준다().
설교를 통하여 개인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 ()
5. 매주일 설교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6. 설교가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가?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모르겠다().
7.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적용하기에 힘든 설교다(). 들을 때뿐이다().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듣고 깨달은 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잘 모르겠다().
8. 설교자의 설교 준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준비가 없다(). 준비가 부족하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
9. 설교와 성령의 역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설교자만 성령충만하면 된다()
설교와 성령의 역사는 관계가 없다(). 잘 모르겠다().

부록 II. 새가족들과의 좌담회 전문

- 일시: 2015년 11월 29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함안중앙교회 사무실
- 사회 및 진행: 소속목사 이성민 목사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함안중앙교회 회중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새가족들과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미 교회 평신도대표들과의 토론회를 가졌지만 평신도 대표들은 집사 이상의 임원들이고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지 최소한 5년 이상된 사람들이다. 이들 외에 타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이명해 온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신자들에게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향후 새가족들에게 성경적인 설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새가족들과의 좌담회의 대상자는 최근 1년 전, 후에 함안중앙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다.¹ 이 들 중에는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신자들 33명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 총 33명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힌 10명을 상대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좌담회 사회와 진행은 본교회 소속 목사인 이성민 목사가 담당했다. 아래 좌담회 전문은 내용을 변개(變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을 정리했음을 밝혀 둔다.

좌담회 참석자: 정명숙 집사, 최혜진 집사, 강경태 성도, 유영옥 성도, 전용효 성도, 김원아 성도, 강순애 성도, 선정희 성도, 윤남국 성도, 김선진 성도. 이상 10명

<질문 1>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우리교회 등록한 지 1년 전, 후의 새가족들이십니다. 우리교회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한분씩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태 성도: 저는 많은 시간을 방황한터라 한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찾아 많은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안중앙교회에 오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계속 더 다녀보았고 그래서 결국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옥 성도: 함안중앙교회에 정착하게 된 데에는 목사님의 설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 4개월 정도 교회 예배에만 출석했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정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¹ 최근 함안중앙교회 새가족 명단 (교회 등록 1년 이내): 김경주 성도, 성기대 성도, 이명문 성도, 윤옥연 성도, 윤남국 성도, 김선진 성도, 임정화 집사, 서희석 성도, 선정희 성도, 박재우 집사, 안덕순 집사, 임의택 집사, 신경숙 권사, 강순애 성도, 김원아 성도, 이태호 성도, 정명숙 집사, 전용효 집사, 박은숙 집사, 최혜진 성도, 김미정 성도, 추경옥 성도, 강경태 성도, 유영옥 성도, 김현정 성도, 김효련 집사, 김성우 성도, 이미영 성도, 김정자 성도 (등록순) 2015년 12월 현재 총 29명.

정명숙 집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서야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깨닫게는 되지만 저 스스로 순종하질 않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전용효 성도: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온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아 성도: 제가 함안중앙교회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예배시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순애 성도: 함안중앙교회에 정착하기 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성도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VIP초청 예배 때 여러 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정희 성도: 교회 정착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교회 내 지인이 있어 예배 참석을 하고 되었고 설교를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인의 권유로 등록하고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혜진 집사: 지인의 권유로 함안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윤남국 성도: 성경책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설교는 지루함과 따분함을 줄 수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현세대의 사회문제를 성경과 접목하여 다루기 때문에 잘 와 닿습니다. 설교 중간 중간에 깜짝 유머를 넣는 재치까지 보이십니다. 약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진실함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경직되어서 교회의 분위기를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분위기를 잘 조절해서 설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김선진 성도: 처음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접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함안중앙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함안중앙교회의 설교를 새가족 여러분이 듣고 이해함에 있어서 그 난이도는 적절합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아 성도: 네 생각으로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적절한 비유와 재치 있는 얘기로 유머스럽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성경말씀을 재미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주셔서 친근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순애 성도: 목사님의 설교는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해 주시고 말씀의 소재 역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선정희 성도: 성경 말씀을 쉽게 설명해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성경의 구절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를 경우에 무지한 저로서는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강경태 성도: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명과 나라의 이름들, 현재의 나라 등과의 연관성이 많이 헷갈렸는데 설교를 통하여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이해하기 좋습니다.

유영옥 성도: 제 생각에는 말씀의 이해는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 받아들이고 집중하는 개인의 태도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은 적절한 난이도였고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집사: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설교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용효 성도: 설교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종종 유머스럽게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해 주셔서 우리 같은 초신자가 듣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최혜진 집사: 설교 말씀의 난이도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윤남국 성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습니다. 한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풀어서 해석해 놓으며 때로는 장년에 맞게 때로는 학생들에게 맞게끔 여러 방향을 제시하시고 풀어나가십니다. 듣기 편하고 이해도 쉽습니다.

김선진 성도: 성경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주제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셔서 난이도가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질문 3>.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기독교와 성경에 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옥 성도: 네 저로서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는 기록을 멈추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나 책을 찾아 읽고 배우게 되고 더 성경을 바로 알고 믿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저의 생활 전반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게 됩니다.

정명숙 집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설교를 듣다보면 성경을 가까이 해서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용효 성도: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김원아 성도: 성경 말씀이 오래 전에 일어난 동떨어진 사건이 아닌 지금 현재의 일처럼 피부에 쉽게 와 닿을 수 있게 적절한 비유와 묘사로 전해 주십니다. 설교를 들으면 기 · 승 · 전 · 결이 분명하고 말씀을 파악하기 쉽게 들려주셔서 너무 도움이 됩니다.

강경태 성도: 저는 설교를 통하여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역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순애 성도: 기독교와 성경에 관하여 잘 모르는 편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대부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정희 성도: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말씀의 중요함과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행함을 일깨워주시는 설교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혜진 집사: 주보에 기록된 통성경 포플라의 스토리 라인 순서를 보며 들으니 이해하기도 쉽고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고 말씀을 쉽게 전해 주셔서 성경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윤남국 성도: 저는 설교 말씀을 메모 하고, 말씀을 녹취해서 다시 듣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주제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진 성도: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성경의 흐름을 잘 몰라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통해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의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4>. 본 교회 설교를 통하여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태 성도: 저희 가정의 중점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회를 많이 살피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발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저희 가족의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교회를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서로 묻고 토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영옥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본질과 진리를 가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으며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숙 집사: 1년 전에는 많이 부족한 나였기에 말씀을 통하여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 신앙에 더 많은 변화와 큰 은혜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전용효 성도: 설교 말씀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조금씩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김원아 성도: 주님의 인도함으로 함안중앙교회에 오게 되었고 선하신 목사님 두 분과 교회의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회, 기도회 모임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좋은 교제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설교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애 성도: 한 주간 흐트러진 나의 마음과 주님을 멀리하며 지내온 저의 생활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잡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선정희 성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잘못된 신앙생활과 좋지 않은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이 은혜를 받는 것에 앞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최혜진 집사: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다보니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윤남국 성도: 아직 저에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금씩 믿음의 싹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크나큰 믿음이 생겨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김선진 성도: 설교를 듣고 나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도가 주는 놀라운 기적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5. 혹시 본교회의 설교에 대하여 제안하실 것이 있습니까? 기탄(忌憚)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정희 성도: 저는 가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목상을 통해 저희들에게 성경말씀을 전해주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성경구절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지요? 순간순간 다르시겠지만 특히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잘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제안할 것은 없으나 궁금한 것이 많을 따름입니다.

강경태 성도: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서 달게 먹겠습니다.

유영옥 성도: 우리 교회는 학생들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이라 가끔은 학생들의 잠도 번쩍 깨우는 재미와 감동의 설교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설교에 대한 제안은 아니고 성경공부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참석하고 싶습니다.

전용효 성도: 설교는 지금 하고 계신 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숙 집사: 설교에 대하여 따로 제안 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원아 성도: 늘 감사함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최혜진 집사: 항상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귀에 쫄쫄 들어와서 좋습니다. .

윤남국 성도: 모든 종교에는 분명히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교의 믿음이란 사랑과 자비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미루어 보면 타 종교도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밑바탕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종교가 중요하듯 타 종교의 신앙과 믿음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낮은 곳에,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믿음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길로 나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마음 평생 간직하였으면 합니다.

김선진 성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록 III. 통성경 40 스토리 라인과 세부 주제 항목

1과: 원역사 (Premieral history), 창세기 1~11장

- ① 천지창조: 창세기 1장
- ②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창세기 2~3장
- ③ 가인과 아벨: 창세기 4~5장
- ④ 노아홍수 - 하나님의 눈물: 창세기 6~9장
- ⑤ 족보 - 약속의 성취: 창세기 10장
- ⑥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2과: 족장사 (History of patriarchs), 창세기 12~36장

- 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창세기 12장
- ②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 하나님의 친구: 창세기 13~22장
- ③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23~25장
- ④ 순종과 양보의 사람의 이삭: 창세기 26장
- 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창세기 27장

3과: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Entering Egypt and Birth of the nation),
창세기 37~50장

- ① 요셉의 훈련 시작: 창세기 37~38장
- ② 요셉의 훈련 과정: 창세기 39~40장
- ③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장
- ④ 22년 만의 형제 화해: 창세기 42~47장
- ⑤ 야곱과 요셉의 유언: 창세기 48~50장

4과: 출애굽과 제국 (Exodus and Empire), 출애굽기 1~18장

- ①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출애굽기 1장
- ② 애굽 왕자 모세: 출애굽기 2장
- ③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 ④ 아홉 가지 재앙 - 모세와 바로의 협상: 출애굽기 5~10장
- ⑤ 유월절 - 이날을 기념하라: 출애굽기 11~12장 36절
- ⑥ 출애굽과 홍해: 출애굽기 12장 37절~15장
- ⑦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출애굽기 16~18장

5과: 세계 선교의 꿈 - (The dream of world mission - A Kingdom of Priests), 출애굽기
19~40장

- ①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 ② 십계명 -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출애굽기 20장
- ③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심: 출애굽기 21~31장

- ④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34장
- ⑤ 성막제작 - 아름다운 동역: 출애굽기 35~39장 31절
- ⑥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출애굽기 39장 32절~40장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Textbook for the school of Holy citizens)
레위기

- ① 5 가지 제사: 레위기 1~7장
- ②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레위기 8~9장
- ③ 나답과 아비후 사건: 레위기 10장
- ④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레위기 11~15장
- ⑤ 속죄일 ~ 제사장의 자기반성 레위기 16장
- ⑥ 거룩은 사랑입니다: 레위기 17~22장
- ⑦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 레위기 23~27장

7과: 만나세대의 성장 (Growth of Manna Generation) 민수기

- ①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 민수기 1~8장
- ②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 민수기 9~10장
- ③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VS.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 민수기 11~12장
- ④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3~14장
- ⑤ 레위인들의 반역: 민수기 15~19장
- ⑥ 프리바 사건: 민수기 20~21장
- ⑦ 두 번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 민수기 22~31장
- ⑧ 요단 동편 분배: 민수기 32~36장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Graduation sermon for Manna School) 신명기

- ① 역사 특강 서론: 신명기 1~4장
- ②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5~11장
- ③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신명기 12~26장
- ④ 이어져야 할 언약: 신명기 27~30장
- 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1~34장 / 시편 90편

9과 약속의 땅 입성 (Entering the Promised Land) 여호수아

- ①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여호수아 1장
- ② 여리고 성 정탐: 여호수아 2장
- ③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라: 여호수아 3~5장
- ④ 가나안 점령: 여호수아 6~12장
- ⑤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여호수아 13~22장
- ⑥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여호수아 23~24장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The Period when Judges ruled) 사사기

- ①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사사기 1~2장 10절
- ②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 사사기 2장 11절~5장
- ③ 기드온과 3백 용사: 사사기 6~9장
- ④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사사기 10~12장
- ⑤ 사사 삼손: 사사기 13~16장
- ⑥ 사사 시대 사회상: 사사기 17~21장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Successful case of education) 룻기

- ①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 룻기 1장
- ②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기 2장
- ③ 룻과 보아스의 결혼: 룻기 3~4장 17절
- ④ 보아스의 족보: 룻기 4장 18절~22절

12과 미스바세대 탄생 (Birth of Mizpah generation) 사무엘상 1~7장

- ① 사무엘이 준비되다: 사무엘상 1~3장
- ② 사무엘의 시대 부흥 사역 - 미스바세대의 탄생: 사무엘상 4~7장

13과 왕정의 시작 (The beginning of kings' rule) 사무엘상 8~31장

- ①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무엘상 8장
- ② 사울의 초기 정치: 사무엘상 9~12장
- ③ 변해버린 사울: 사무엘상 13~15장
- ④ 왕으로 예선된 다윗: 사무엘상 16~17장
- ⑤ 다윗의 도피 생활: 사무엘상 18~26장
- ⑥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 사무엘상 27~31장/ 사무엘하 1장/
(역대상 1~10장)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God's servant David) 사무엘하, 열왕기상 1~2장

- 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사무엘하 1~4장
- ②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 사무엘하 5~6장/ (역대상 11~16장)
- ③ 다윗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 사무엘하 7~10장/ (역대상 17~19장)
- ④ 인간 다윗의 모습들: 사무엘하 11~24장/ (역대상 20~29장)
- ⑤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1~2장
- ⑥ 다윗의 시편: 시편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Solomon and poetical books)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 ①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열왕기상 3~10장/ (역대하 1~9장)
- ②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1~31장

- ③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서 1~8장
- ④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열왕기상 11장
- ⑤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전도서 1~12장
- ⑥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욥기 1~42장
- ⑦ 찬양의 책 - 시편

16과 남북 분열 왕조 (Divided dynasties of South and North)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 아모스/ 호세아/ 요나

- ① 남북 분열: 열왕기상 12~16장 14절/ (역대하 10~17장)
- ②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열왕기상 16장 15절~22장/ 열왕기하 1장/ (역대하18~20장)
- ③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열왕기하 2~8장/ (역대하 21~ 22장 6절)
- ④ 예후 왕조: 열왕기하 9~14장/ (역대하 22장 7절 - 25장)
- ⑤ 예후 왕조와 아모스의 사역: 아모스 1~9장
- ⑥ 예후 왕조와 호세아의 사역: 호세아 1~14장
- ⑦ 요나의 사역: 요나서 1~4장

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Destruction of Northern Kingdom Israel)

열왕기하 15~20장, 이사야, 미가

- ① 북왕국의 멸망과 이사야의 소명: 열왕기하 15장/(역대하 26~27장)/ 이사야 1~6장
- ②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열왕기하 16~17장/(역대하 28장)/ 이사야7~14장
- ③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열왕기하 18~20장/ (역대하 29~32장)/ 이사야 15~39장
- ④ 이사야의 미래 예언: 이사야 40~65장
- ⑤ 미가의 사역과 도시 이야기: 미가 1~7장

18과 남유다의 쇠락 (Weakening of Southern Kingdom Israel)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 ① 왕정 총결산: 열왕기하 21~23장/ (역대하 33~35장)
- ② 스바냐의 사역: 스바냐 1~3장
- ③ 하박국의 사역: 하박국 1~3장
- ④ 나훔의 사역: 나훔 1~3장
- ⑤ 요엘의 사역: 요엘 1~3장

19과 잠간의 징계 (Brief discipline) 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댜, 역대상, 역대하

- ①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열왕기하 24장/(역대하 36장 1절~10절)/

예레미야 1~38장

- ②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열왕기하 25장/(역대하 36장 11절~23절)/
예레미야 39~52장
- ③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애가 1~2장
- ④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예레미야애가 3~5장
- ⑤ 오바다의 사역: 오바다 1장

20과 포로민 설득 (Persuading captives) 에스겔

- ①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 1~3장
- ② 유다의 징계와 심판: 에스겔 4~24장
- ③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에스겔 25~32장
- ④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 에스겔 33~48장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The rough sketch of change of empire) 다니엘

- 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다니엘 1~5장
- ② 네 짐승 환상: 다니엘 7~8장
- ③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니엘 6장
- ④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
- ⑤ 미래에 대한 환상: 다니엘 10~12장

22과 성전 재건 (Restoring the temple)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 ①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에스라 1~4장
- ② 학개의 사역: 학개 1~2장
- ③ 스가랴의 사역: 스가랴 1~14장
- ④ 성전 재건의 기쁨: 에스라 5~6장
- ⑤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 1~10장
- ⑥ 2차 귀환: 에스라 7~10장

23과 성벽 재건 (Restoring the wall of Jerusalem) 느헤미야

- ①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장
- ② 3차 귀환: 느헤미야 2~3장
- ③ 성벽 재건: 느헤미야 4~7장
- ④ 성경통독집회와 성벽 낙성식: 느헤미야 8~13장

24과 고백과 침묵 (Confession and Silence) 말라기

- 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 말라기 1장 1절~5절
- ②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 말라기 1장 6절~3장
- ③ 하나님의 침묵: 말라기 4장

25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The Greek Empire and the Intermediate History)

- ① 페르시아 제국 (B.C.539~333년)
- ② 그리스 문명
- ③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B.C.359~323년)
- ④ 프톨레미 왕조 (B.C.301~198년)
- ⑤ 셀루커스 왕조 (B.C.198~165년)
- ⑥ 발흥하는 로마
- ⑦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B.C.165~63년)

26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The Roman Empire and the Intermediate History)

- ① 로마의 통치 (B.C.63년~)
- ② 예수님과 가이사
- ③ 신약시대 로마 총독들

27과 예수님 탄생 (Jesus' birth) 마태복음

- 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1~17/ 마가복음 1:1/ 누가복음 1:1~4, 3:23~38/
요1:1~18
- ② 요셉과 마리아: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1:26~56
- ③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2:1~12/ 누가복음 2:1~21
- ④ 예수님의 어린시절: 마태복음 2:13~ 23/ 누가복음 2:22~52
- 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11:1~19; 14:1~12)/
마가복음 1:2~11 (6:14~29)/ 누가복음 1:5~25, 57~80; 3:1~22(7:18~35)/
요한복음 1:19~34(3:22~36)
- ⑥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1~11/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4:1~13

28과 공생애 3년 (Three year public life) 마가복음

- ① 제자들을 부르심: 마태복음 4:12~25; 10:16~17장/ 마가복음 1:14~20; 2:13~17;
3:13~19; 8:27~9장/ 누가복음 4:14~6:19; 9장~10:24/ 요한복음 1:35~2:12
- ②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 누가복음 6:20~49; 11~12장
- ③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1~34/
누가복음 8:4~21; 13장
- ④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14:13~36; 15:32~39/ 마가복음 6:30~56; 8:1~26/ 누
가복음 9:1~17/ 요한복음 3:1~21; 4:1~42; 6~7장
- ⑤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마태복음 8:1~17/ 마가복음 1:21~3:12; 3:20~35/ 누가
복음 4:14~6:11; 7:1~17; 8:40~56/ 요한복음 4:43~5장: 9장
- ⑥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18~27/ 마가복음 4:35~41/
누가복음 8:22~25
- ⑦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심: 마태복음 8:28~34/ 마가복음 5:1~20/

누가복음 8:26~39

- ⑧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태복음 9장; 11:20~12장/ 마가복음 5:21~6:13; 10:1~16/ 누가복음 7:36~50; 10:25~42
- ⑨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 마태복음 19:16~30/ 마가복음 7:1~23; 10:17~31/ 누가복음 12:13~21; 16장; 18:18~43
- ⑩ 소외된 자들의 친구 예수님: 마태복음 15:1~31; 18장~19:15/ 마가복음 7:24~37/ 누가복음 14~15장; 17장~18:17; 19:1~10/ 요한복음 8, 10~11장

29과 마지막 일주일 (The last week) 누가복음

- ① 제자들의 오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32~52/ (누가복음 9:46~48)
- ②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 21:1~11/ 마가복음 11:1~11/ 누가복음 19:28~40/ 요한복음 12:1~19
- ③ 성전 청결: 마태복음 21:12~46/ 마가복음 11:12~12:12/ 누가복음 19:41~48/ 요한복음 12:20~43 (2:13~25)
- ④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치심: 마태복음 22~23장/ 마가복음 12:13~44/ 누가복음 20장~21:4 (11:37~54)
- ⑤ 종말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24~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9:11~27; 21:5~38/ 요한복음 12:44~50
- ⑥ 마지막 만찬: 마태복음 26:1~35/ 마가복음 14:1~31/ 누가복음 22:1~38/ 요한복음 13~17장
- ⑦ 잡히신 예수님: 마태복음 26:36~56/ 마가복음 14:32~52/ 누가복음 22:39~53/ 요한복음 18:1~11
- ⑧ 빌라도의 재판: 마태복음 26:57~27:31/ 마가복음 14:53~15:20/ 누가복음 22:54~23:25/ 요한복음 18:12~19:16

30과 십자가 승리 (Victory oh the Cross) 요한복음

- ① 계약과 관계의 신비: 마태복음 27:32~54/ 마가복음 15:21~39/ 누가복음 23:26~48/ 요한복음 19:17~37
- ② 예수님 곁에서: 마태복음 27:55~56/ 마가복음 15:40~41/ 누가복음 23:49(8:1~3)/ 요한복음 19:25~27
- ③ 부자 요셉의 헌신: 마태복음 27:57~66/ 마가복음 15:42~47/ 누가복음 23:50~56/ 요한복음 19:38~42
- ④ 부활의 첫 증인: 마태복음 28:1~15/ 마가복음 16:1~11/ 누가복음 24:1~12/ 요한복음 20:1~18
- ⑤ 제자들을 찾아오심: 마태복음 16:12~14/ 누가복음 24:13~43/ 요한복음 20:19~18
- ⑥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 파송: 마태복음 28:16~20/ 마가복음 16:15~20/ 누가복음 24:44~53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Unfolding Discipline Era) 사도행전 1~12장

- ① 증인이 된 제자들: 사도행전 1장
- ②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 ③ 변화된 제자들: 사도행전 3~5장
- ④ 일곱 집사 선출과 스테반 순교: 사도행전 6~8장
- ⑤ 사울 회심과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9~12장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Paul' s first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 13장~15장 35절

- ① 안디옥교회의 파송: 사도행전 13:1~3
- ②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4~14장
- ③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1~35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Paul' s second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 15:36~18:22, 데살로니가전 · 후서, 갈라디아서

- 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사도행전 15:36~41
- ②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18장 22절
- ③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1~5장
- ④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 1~3장
- ⑤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1~6장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Paul' s third missionary journey)

사도행전 18:23~19장, 고린도전 · 후서

- ①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23~19장
- ②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16장
- ③ 고린도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0~13장
- ④ 고린도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9장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Paul' s journey to Jerusalem)

사도행전 20~26장, 로마서

- ①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행전 20:1~3 /로마서 1장~15:13
- ②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서 15:14~16장
- ③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사도행전 20:4~21:16
- ④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사도행전 21:17~23장
- ⑤ 가이사랴에서의 2년: 사도행전 24~26장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Ecclesiology and love letter)

사도행전 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 ①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행전 27~28장

②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6장

③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1~4장

37과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Christology and miracle letter)

골로새서, 빌레몬서

① 골로새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1~4장

②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1장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Letters left to sons of faith)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6장

②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1~3장

③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1~4장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Letters for the righteous fight)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 후서, 유다서

① 믿음에 관한 편지: 히브리서 1~13장

②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 1~5장

③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1~5장

④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1~3장

⑤ 유다의 편지: 유다서 1장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Song of victory)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①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1~5장

②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이서 1장

③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요한삼서 1장

④ 일곱 교회를 향한 권면: 요한계시록 1~3장

⑤ 미래에 대한 환상: 요한계시록 4~20장

⑥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22장

부록 IV.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1. 2010년 전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1	3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신약 딤편	딤편3:4~7
	10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약 눅	눅3:7~14
	17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투	신약 엡	엡6:10~13
	24	교회의 건강 진단	신약 고전	고전12:12~27
	31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신약 요	요3:16~17
2	7	좁은 문, 좋은 문	신약 마	마7:13~21
	14	양(量), 질(質), 본체(本體)	구약 창	창12:1~5
	21	크리스천 프리즘(Prism)	신약 딤편	딤편3:8~13
	28	가슴에 담기에 벅찬 꿈	신약 요	요5:19~20
3	7	소통의 은혜	신약 엡	엡2:12~22
	14	당신이 죽으면 누가 울어줍니까?	신약 행	행9:36~43
	21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신약 요	요19:28~30
	28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들	신약 히	히10:10~18
4	4	가장 큰 애벌레, 가장 큰 나비	신약 고전	고전15:42~44
	11	생명은 절망을 밀어냅니다	신약 마	마28:1~10
	18	갑자기 사람 좋아진 이유	신약 고전	고전15:50~58
	25	거룩한 편 가르기	구약 대하	대하28:16~25
5	2	기도로 미래를 사라	신약 눅	눅23:27~28
	9	보관하지 말고 휴대해야 할 귀중품	구약 창	창12:1~9
	16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의 선택	신약 롬	롬14:17
	23	부흥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사람	신약 살전	살전3:10
	30	내가 두드려야 할 문은 어디입니까?	신약 눅	눅11:9~13
6	6	그 은혜의 빛 앞에 서라	구약 램	램17:5~10
	13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구약 시	시34편
	20	책망이라면 받아야 합니다	신약 요	요21:15~17
	27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구약 신	신12:1~3

2. 2010년 하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7	4	처음 열매를 드리고 나면	신약 막	막11:12~14
	11	감사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구약 창	창14:17~24
	18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았다	구약 온	온3:1~10
	25	믿음의 과선을 막기 위하여	신약 딤편	딤편1:18~19
8	1	밀가루, 계란, 소금 그리고 슈크림 빵	신약 롬	롬8:26~30
	8	엘리야의 겹옷	구약 왕하	왕하2:12~18
	15	스토리가 스펙(Spec)을 이긴다	구약 창	창4:16~26
	22	슬로브핫 가문의 딸들	구약 민	민27:1~11
	29	큰 기쁨의 하나님	구약 시	시43:1~5
9	5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신약 계	계21:1~4
	12	100년 전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구약 율	율2:12~18
	19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이 됩니다	신약 뵤전	뵤전2:24
	26	죄인도 선대한 자를 선대합니다	신약 뵤전	뵤전2:24
10	3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신약 요	요15:1~6
	10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구약 사	사53:1~5
	17	갈대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약 약	약5:13~18
	24	깨어라, 깨져라, 그리고 깨뜨려라	구약 창	창32:24~32
	31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구약 민	민14:6~10
11	7	내리막길에 서 있는 기독교	신약 딤후	딤후4:1~5
	14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신약 딤후	딤후1:8~12
	21	당신은 영원을 준비하십니까?	신약 요	요3:3,3:16
	28	당신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구약 신	신8:1~10
12	5	하나님, 보우하소서 이 나라를!	구약 사	사31:1~9
	12	고도(Godot)는 결코 오지 않는다!	신약 요	요14:1~4
	19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신약 빌	빌2:5~14
	26	마구간을 왕궁으로 만들라	신약 눅	눅2:1~14

3. 2011년 전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1	2	새로운 변화의 열쇠	구약 느	느9:32~38
	9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신약 고전	고전16:15~18
	16	배부른 돼지는 굶주린 늑대에게 먹힌다	구약 느	느4:14~23
	23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약 고전	고전4:1~2
	30	허들 넘기 신앙	신약 마	마15:21~28
2	6	당신만의 신발을 만들어라	구약 전	전11:9, 12:1,2
	13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약 막	막1:21~28
	20	잘 먹어서 배부르고 살지면	구약 신	신31:14~22
	27	귀가 가려운 사람들	신약 딤후	딤후4:3~4
3	6	일어나 일으켜 불들라	구약 창	창21:14~20
	13	우리의 영적주소는 어디입니까?	구약 수	수1:1~9
	20	죽은 자들이 보내는 싸인	신약 마	마24:3~8
	27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신약 눅	눅13:1~5
4	3	십자가, 용서의 끝 사랑의 시작	신약 눅	눅23:34~37
	10	십자가, 구원의 갈림길	신약 눅	눅23:39~43
	17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	신약 고전	고전1:18
	24	부활절에 부활하라	신약 요	요11:25~27
5	1	부활하신 주님을 대접하라	신약 눅	눅24:36~43
	8	우리 함께 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약 시	시133:1~3
	15	창(窓)이 열린 교회	신약 마	마16:18~19
	22	베드로는 왜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나?	신약 마	마16:15~24
	29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약 골	골3:17~19
6	5	왕의 자녀여 다스리라	구약 시	시8:1~9
	12	거룩한 확신, 위대한 선택	구약 수	수24:14~18
	19	억지로라도 오게 하라	신약 눅	눅14:16~24
	26	백문일답(百問一答)	신약 행	행4:12~21

4. 2011년 하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7	3	눈먼 자들의 도시	신약 요	요9:39~41
	10	성소(聖所)에서의 시각교정	구약 시	시73:12~19
	17	천국보다 더 많이 기록된 말씀	신약 눅	눅16:22~31
	24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하라	구약 왕하	왕하4:1~7
	31	임기응변은 임시방편이 아니다	신약 마	마4:1~11
8	7	푸른 풀밭은 목적지가 아니다	구약 시	시23편
	14	내일 당신이 해고 된다면?	신약 눅	눅16:1~9
	21	천국 대사관으로 진입하라	신약 마	마11:12~14
	28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구약 사	사30:21~26
9	4	불확실 속의 확실성	신약 히	히11:8~12
	11	빛더미 위의 크리스천	신약 눅	눅7:17~22
	18	분별	신약 마	마24:23~27
	25	행복의 비결	신약 요	요15:7~11
10	2	할 수 없을 때 하라시는 주님	신약 막	막3:1~5
	9	주치의와 특효약	신약 막	막5:25~34
	16	씨앗과 함께 눈물을 심는 사람	구약 시	시126:1~6
	23	마이네리그 생존법	구약 삼상	삼상21:1~6
	30	기도에 날개를 달아라	신약 요	요17:8~13
11	6	도울만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구약 창	창39:1~6
	13	내 삶의 괴로운 날에	구약 시	시102:1~2
	20	비트겐슈타인의 오리-토끼	구약 시	시30:11~12
	27	영성 응급상황	구약 레	레6:12~13
12	4	돈키호테(Don Quixote) 크리스천	신약 마	마16:18~19
	11	흑연과 다이아몬드	신약 고후	고후4:7~12
	18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까?	신약 마	마1:18~25
	25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신약 마	마2:1~6

5. 2012년 전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1	1	앞이 캄캄할 때 부르짖으라	구약 샏	샏16:28~31
	8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구약 창	창24:34~36
	15	가장 소중한 날 “오늘”	신약 히	히3:7~14
	22	예수님은 명절에 무엇을 하셨는가?	신약 요	요7:11~19
	29	“In and Out”	구약 신	신28:1~6
2	5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신약 고전	고전4:1~2
	12	힘들고 아파야 어른이다	신약 눅	눅2:25~35
	19	영적인 절대미각을 소유하라	구약 시	시34:1~8
	26	견디는 사람이 ‘강한사람’ 이다	구약 욥	욥1:1
3	4	이름을 부르지 않아 ‘잡초’ 가 된다	구약 시	시139:1~4
	11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신약 고후	고후6:4~10
	18	복 되고 형통한 삶	구약 시	시1:1~3
	25	당신의 사순절은 어떠합니까?	신약 갈	갈5:19~24
4	1	“십자가” 그 이름의 능력	신약 고전	고전5:1~5
	8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활’	신약 고전	고전15:1~8
	15	우리를 업어 주시는 하나님	구약 사	사46:3~4
	22	당신이 맡은 그 일은 “거룩합니다.”	구약 대상	대상9:28~34
	29	그것을 손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구약 레	레6:14~18
5	6	그 맥은 평안하십니까?	구약 신	신12:5~8
	13	하나님은 ‘합창’ 을 좋아하십니다	신약 계	계19:5~8
	20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십시오	구약 수	수24:15~18
	27	거룩한 ‘불’ 에 텐 사람	구약 사	사6:1~7
6	3	꿈과 비전의 사람들	신약 마	마9:35~10:4
	10	돌보는 사람 없이 상록수는 어떻게 푸를까?	구약 왕상	왕상18:24~29
	17	다음세대가 분명히 알게 하라!	구약 샏	샏2:10
	24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구약 수	수4:19~24

6. 2012년 하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7	1	꿈장어와 물메기 그리고 낙타 턱뼈	구약 샷	샷15:14~20
	8	환경을 바꾸라 아니면 내가 바뀐다	구약 샷	샷11:1~10
	15	눈물이 나와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신약 빌	빌3:17~21
	22	‘교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신약 엡	엡1:20~23
	29	마귀의 ‘아킬레스 건(Achilles heel)’	신약 계	계12:10~11
8	5	하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신약 고후	고후5:10
	12	실패할 수 없는 “실패의 법칙”	신약 눅	눅15:11~19
	19	방향감각을 상실한 마라토너들	신약 유	유1:11~13
	26	도우시는 분의 ‘도움’ 을 받으라	신약 요	요14:16~20
9	2	영혼의 ‘건강진단’ 을 받으시다	신약 고후	고후13:5
	9	걸어 다니는 ‘시체’ 들의 시대	구약 겔	겔37:1~10
	16	모든 나무는 죽은 씨앗의 부활이다	신약 요	요12:24~25
	23	상실의 바다에서 소망을 건져 올린다	신약 눅	눅7:11~17
	30	40의 절망과 470의 소망	신약 행	행23:12~23
10	7	가시 때문에, 가시 덕분에	신약 고후	고후12:7~10
	14	온전케 함의 열쇠	신약 엡	엡4:1~16
	21	성지에는 성지(聖地)가 없다!	신약 계	계2:1~7
	28	에스프레소(Espresso) 크리스천	신약 고전	고전15:1~4
11	4	처음 사랑을 버린 후에	신약 계	계2:1~7
	11	그 향기를 얻기까지	신약 계	계2:8~11
	18	내가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신약 히	히9:27~28
	25	나는 거부한다, 주님 아닌 모든 것을!	신약 계	계2:12~17
12	2	이세벨과 루디아	신약 계	계2:18~19
	9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착각	신약 계	계3:1~6
	16	열쇠와 기둥	신약 계	계3:7~13
	23	믿음을 포토샵(Photoshop) 하지 말라	신약 계	계3:14~22
	30	일년과 일생은 다르지 않다	신약 딤후	딤후4:6~8

7. 2013년 전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1	6	미신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약 램	램10:1~7
	13	바다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	신약 눅	눅17:5~6
	20	10,000,000 대 1	구약 시	시3:1~8
	27	당신은 프러포즈를 받았습니까?	신약 요	요12:1~8
2	3	배낭 메고 히말라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구약 겔	겔37:15~22
	10	꽃이기에 샘을 내는 것이다!	구약 욕	욕3:1~10
	17	물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	구약 출	출17:1~7
	24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은혜	구약 사	사51:12~15
3	3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은 옳지 않다	구약 삿	삿21:25
	10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구약 출	출29:1~4
	17	십자가가 나를 지게 될 것이다	신약 마	마27:27~31
	24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신약 요	요3:1~7
	31	당신은 부활절 특사(特赦)입니다	신약 고전	고전15:12~19
4	7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한다	구약 아	아5:2~6
	14	중년은 청년보다 더 아프다	구약 시	시102:23~28
	21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신약 마	마25:31~46
	28	내 인생을 불타게 하소서	신약 눅	눅12:49
5	5	위기 속에 들어야 할 목소리	구약 삼상	삼상23:15~18
	12	비밀의 정원	구약 창	창2:5~15
	19	즐겁게 응답하고 반갑게 응답받으라	구약 느	느8:5~12
	26	카이로스의 고공침투	신약 요	요7:1~9
6	2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유전자	구약 민	민23:7~12
	9	예수님을 더 잘 믿으세요	신약 막	막6:1~6
	16	‘두려움’ 은 두려움 없는 자를 두려워한다	구약 시	시27:1~14
	23	한계상황(限界狀況)이 한계를 만날 때	신약 요	요4:46~54
	30	가장 나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된다	구약 왕하	왕하2:19~22

8. 2013년 하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7	7	밤중에 감사하고 아침에 기뻐하라	구약 읍	읍1:20~22
	14	순간을 살며 영원을 지향(指向)하라	신약 뱀전	뱀전1:22~25
	21	거룩한 눈치를 가진 사람	구약 창	창18:1~8
	28	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신약 살전	살전5:16~18
8	4	주님이 내리시는 내 인생의 결론	구약 창	창15:12~16
	11	중년은 청년보다 더 흔들린다	구약 삼하	삼하6:20~23
	18	지으시고, 선택하고, 구원하신다	구약 사	사43:1~7
	25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	신약 롬	롬1:21~32
9	1	천사의 음성이 들리나요?	신약 행	행12:7~8
	8	하나님의 힐링센터	신약 고후	고후1:3~10
	15	지쳐도 거쳐야 한다	신약 행	행28:11~16
	22	하나님의 제육감(第六感)	구약 출	출3:6~8
	29	커피 루왁(Coffee Luwak)	신약 고후	고후12:10
10	6	믿음으로 꿈꾸고 삶으로 해석하라	구약 창	창41:17~24
	13	인생의 가을이 오기까지	신약 갈	갈6:7~9
	20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구약 시	시72:1~20
	27	나의 눈물을 수집하시는 하나님	구약 시	시56:1~13
11	3	쓰레기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	신약 눅	눅15:8~10
	10	홀리우드(Hollywood) 최고의 배우	신약 고전	요일4:6~9
	17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신약 요일	요일4:7~8
	24	거룩한 왼손잡이가 되라	구약 삿	삿3:26~30
12	1	명품은 마무리가 깔끔하다	신약 요	요6:8~13
	8	기적을 생기게 하는 생기(生氣)	구약 겔	겔37:11~14
	15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신약 빌	빌2:12~16
	22	못난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신약 눅	눅2:1~7
	29	“Sweet little boy2”	신약 엡	엡1:17~19

9. 2014년 전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1	5	생각과 전혀 다른 시간(時間)	구약 창	창47:1~12
	12	존경받는 사람 · 존경받는 교회	구약 잠	잠22:1~6
	19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은 사람	구약 창	창24:10~27
	26	작은 선생님 “개미”	구약 잠	잠6:6~11
2	2	작은 교수님 “개미”	구약 잠	잠6:6~11
	9	충성의 야전교범(Field manual)	구약 창	창24:50~60
	16	고난의 강을 건넌 사람들	신약 뱀전	뱀전3:18~22
	23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해도 독야청청(獨也靑靑)하라!	구약 수	수14:6~12
3	2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행복	구약 삼상	삼상17:50~58
	9	종말을 일상으로 만들라	신약 롬	롬13:11~14
	16	언더 독(Under Dog) 일어서다	구약 삼상	삼상7:5~12
	23	에노스가 부를 이름	구약 창	창4:25~16
	30	지금은 노아의 시대	신약 눅	눅17:26~30
4	6	지금은 노아의 시대2	신약 히	히11:7
	13	하나님이 친구 삼은 사람	신약 히	히11:18~19
	20	‘부활’ 그 강렬한 빛과 열기	신약 눅	눅24:32~35
	27	주님이 처음 만나 주신 사람	신약 막	막16:9~14
5	4	‘세월호’ 는 세월 속에 묻힐 수 없다	신약 계	계20:12~15
	11	큰 소리 내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	구약 시	시150:1~6
	18	크리스천 명가(名家)를 세워라	구약 욥	욥1:1~5
	25	진짜배기 크리스천의 삶	신약 빌	빌1:27~30
6	1	쓰임받기	신약 행	행13:20~23
	8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것을 찾는다	구약 단	단4:34~36
	15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신약 요	요3:1~3
	22	중보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구약 욥	욥42:10~17
	29	감사로 그리고 감사로 이어가라	구약 신	신16:9~12

10. 2014년 하반기 주일예배 설교 제목 및 본문

월	일	제 목	성 경	본 문
7	6	거룩한 습관 “감사”	신약 골	골2:6~7
	13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구약 시	시18:1~3
	20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신약 요일	요일4:18~21
	27	성막은 살아있다	구약 출	출25:8~22
8	3	행동하는 신앙인	신약 마	마5:17~20
	10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신약 눅	눅2:41~51
	17	은혜의 땅, 축복의 나라	구약 사	사60:21~22
	24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진다!	신약 딤후	딤후3:1~11
	31	함부로 이름을 붙이지 말라	구약 창	창2:19~23
9	7	한가(閑暇)할 때 생각해야 할 것	구약 레	레23:33~43
	14	힐링캠프(Healing camp)로 초대합니다1	신약 막	막1:29~31
	21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게 하셨다	구약 창	창39:19~23
	28	실패하는 인생의 DNA	신약 약	약5:9~11
10	5	반응하라 반전이 일어난다!	신약 마	마11:15~19
	12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라	신약 요	요9:35~41
	19	부케팔로스(Bucephalus) 길들이기	구약 사	사30:18~26
	26	장미(Rhoda)의 이름으로	신약 행	행12:1~16
11	2	골든타임(Golden Time)	신약 계	계22:20
	9	백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해	구약 창	창26:1~11
	16	쓰나미 기념비(Tsunami Monument)	신약 딤후	딤후3:1~5
	23	처음과 마지막 마지막과 처음	신약 막	막15:47
	30	어려울수록 기본에 집중하라	구약 신	신12:11~12
12	7	거룩한 나라의 꿈	신약 행	행22:24~28
	14	되지도 않는 말, 되는 말씀	구약 창	창11:1~9
	21	크리스마스의 조연 배우	신약 눅	눅2:8~14
	28	세상을 버린 사람, 세상으로 버리진 사람	신약 딤후	딤후4:9~12

부록 V.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정되지 못한 책별 상황

1. 2010년~2012년

구 분	구 약		신 약	
	권 수	해당 권명	권수	해당 권명
2010년	29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기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오바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라갸, 말라기	11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2011년	29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기상·하, 에스라, 에스더, 욥기, 잠언, 아가,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2012년	29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상·사무엘하, 열왕기하,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3	마가복음, 로마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2. 2013년~2014년

구 분	구 약		신 약	
	권수	해당 권명	권수	해당 권면
2013년	25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룯기, 열왕기상, 역대기상 · 역대기하, 에스라, 에스더, 잠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4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테전서, 디모테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2014년	28	민수기, 사사기, 룯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4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테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5년간 주일예배 설교본문으로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책	13	룯기, 에스라, 에스더, 호세아, 아모스, 오바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5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3.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정된 구약 책별 상황

	책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구 약 성 경	1 창세기	5	2	1	4	8	20	
	2 출애굽기				3	2	5	
	3 레위기		1	1		1	3	
	4 민수기	2			1		3	
	5 신명기	2	1	4		2	9	
	6 여호수아		2			1	3	
	7 사사기			4	2		6	
	8 룻 기							
	9 사무엘상		1		1	2	4	
	10 사무엘하				1		1	
	11 열왕기상			1			1	
	12 열왕기하	1	1		1		3	
	13 역대기상			1			1	
	14 역대기하	1					1	
	15 에스라							
	16 느헤미야		2		1		3	
	17 에스더							
	18 욥 기			1	2	2	5	
	19 시 편	2	7	3	5	2	19	

20	잠 언					3	3	
21	전도서		1		1		2	
22	아 가				2		2	
23	이사야	2	1	2	1	2	8	
24	예레미야	1					1	
25	예레미야애가				2		2	
26	에스겔			1			1	
27	다니엘					1	1	
28	호세아							
29	요 엘	1					1	
30	아모스							
31	오바댜							
32	요 나	1					1	
33	미 가							
34	나 훔							
35	하박국							
36	스바냐							
37	학 개							
38	스가랴							
39	말라기							
본문 선정 횟수 합계		18	19	19	27	26	109	

4. 최근 5년간 주일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정된 신약 책별 상황

		책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체	
신 약 성 경	1	마태복음	2	10	1	2	2	17	
	2	마가복음	1	3		1	3	8	
	3	누가복음	4	8	3	4	4	23	
	4	요한복음	7	4	3	5	2	21	
	5	사도행전	1	1	1	2	3	8	
	6	로 마 서	2			1	1	4	
	7	고린도전서	3	3	4	2		12	
	8	고린도후서		1	3	2		6	
	9	갈라디아서			1	1		2	
	10	에베소서	2		2	1		5	
	11	빌립보서	1		1	1	1	4	
	12	골로새서		1			1	2	
	13	데살로니가전서	3			1		4	
	14	데살로니가후서							
	15	디모데전서	2					2	
	16	디모데후서	2	1	1		2	6	
	17	디 도 서	1				1	2	
	18	빌레몬서							
	19	히브리서	1	1	2		1	5	
	20	야고보서	1				1	2	
	21	베드로전서			1		1	2	
	22	베드로후서							
	23	요한일서				1	1	2	
	24	요한이서							
	25	요한삼서							
	26	유다서			1			1	
	27	요한계시록	1		9	1	2	13	
본문 선정 횟수 합계			34	33	33	25	26	151	

부록 VI.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 설교 원고

제 목: “그 손을 만져라”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러포설교 - 십자가와 고난 주제 설교)

일 자: 2015. 3. 29

본 문: 누가복음 22:50-51

설교자: 함안중앙교회 고승모 목사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손을 가리켜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가 뇌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일 중에 손이 가장 다양하고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손은 사물을 만지고 알아채서 눈의 역할을 대신하고, 손짓으로 말하여 입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금의 문명을 이룬 것도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예술의 정신은 뇌에서 나오지언정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바로 손입니다.

손은 인체 기관 중 가장 많은 뼈로 구성돼 있다. 사람의 뼈의 총 개수는 206개, 이 중 양손이 차지하는 뼈의 개수는 무려 54개입니다. 말 그대로 ‘손바닥만 한’ 기관에 우리 몸 전체 뼈의 25%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손은 14개의 손가락뼈, 5개의 손바닥뼈, 8개의 손목뼈로 구성돼 자유자재로 또 특이한 각도로까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감각점이 발달한 기관입니다. 특히 손가락 끝에 감각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미묘한 차이를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가락 감각은 세계적으로도 특별해서 병아리 감별, 위조지폐 감별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지문은 섬세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손의 마지막 장치입니다. 지문이 있기 때문에 손은 적당한 마찰력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집거나 도구를 사용할 때 보다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지문으로 손의 표면적은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감각점의 수를 늘려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손에 있는 지문은 사람을 구별하는 고유한 식별 코드 역할을 합니다. 지문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며, 일생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걸모습과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만큼은 서로 다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뇌의 역할이 가장 크겠지만, 손은 ‘제 2의 뇌’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기관입니다. 손에 적당한 마사지만 해도 몸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 만점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며 박수칠 때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손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손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며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어루만져주셨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인 여인을 위하여 땅에 글씨를 쓰셨고, 허울뿐인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지적하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차근차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겼다면 틀림없이 씻어준 사람은 낮은 신분이고 씻김 받은 사람은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주님의 고귀한 손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을 것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배신자 가룟유다의 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발을 씻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지만 유다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족식’은 사람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며 학생부 수련회를 갔을 때을 일입니다. ‘천로역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족식 순서를 넣었습니다. 선생님들 5명을 세족식 코너에 배치했습니다. 그 코너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10시 쯤 끝났어야 하는데 11시 30분이 넘어서도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 세족식하는 장소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묵묵하게 세족식을 진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박한 사람도 세족식에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발을

존경하는 선생님이 씻어 주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유다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못된 마음을 먹었다가도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마음이 녹아졌을 텐데 가롯유다는 미동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다가 ‘이 녀석이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치사하게 저주까지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정나미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다가는 ‘못된 녀석이라 발도 더럽구나....무좀에 각질까지 있다니...’ 아마 발 씻던 물을 유다에게 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버릴 제자들의 발을 그 손으로 씻겨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 먹을 원수의 발까지도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손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주님은 이때에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배신자 가롯유다에게 떡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복음 13: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처럼 식사자리에서 음식을 건네주는 것은 특별한 호의의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가롯유다는 예수님이 음식을 건네주실 수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님은 그를 가까이에 두시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음식을 빼고 포크로 찢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가롯 유다는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는 그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가롯 유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대적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로잡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 곧, 대체사장들과 종교권력자들은 가롯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습니다. 이 은 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의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유다에게 은 30이나 지불한 것은 ‘고급정보’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 고급정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들과 분리되어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인 것입니다. 주님이 군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감히 주님께 손대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이 반발하여 들고 일어날 것이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려면 군중들과 분리된 예수님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1-3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 2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 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지라”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을 무장시켜서 이끌고 왔습니다. 가롯유다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두었습니다. 자기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 다른 사람 잡지 말고 그 사람을 잡으라고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가복음 14: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 46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입을 맞추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근한 인사법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안고 가볍게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 친근한 애정이 표현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삼은 것은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자가 대적들과 미리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사로잡으려는 사인을 하는 것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배신자를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가롯 유다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밀쳤거나 그 뺨을 후려쳤을 것입니다..

4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제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양 옆에서 주님의 팔을 붙들어 제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7절입니다. “결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둘렀는데 그 바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 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왜 귀를 베었습니까? 칼로 상대방을 찌를 때 본능적으로 목을 찌릅니다. 베드로도 말고의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가 피하다가 귀가 잘려진 것입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자 잠시 주님은 군병들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가 튀자 아수라

장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제압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주님께로부터 손을 뗐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의 손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때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사로잡고 있던 자들의 손이 풀리는 순간 어둠 속으로 도망을 쳤다면 충분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50-51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 51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워서 그것을 그 귀에 도로 붙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순간에도 주님은 다른 사람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귀가 잘라져서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상처를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흥기를 들고 나타난 원수입니다. 피 흘리고 아파해도 제 탓이라고 내버려두어도 할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두 사람을 구하신 것입니다. 귀가 잘려나갔던 ‘말고’ 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를 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말고가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면 베드로 역시 그 자리에 체포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둘러 그 사건을 수습해주셨습니다. 말고의 귀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잡혀서 ‘살인미수’ 죄로 중형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주님의 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손이셨습니다.

그 거룩한 손에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자비의 손, 그 사랑의 손에 흉악한 뜻을 박은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손에 굶은 죄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이 내 미시는 손을 거절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손을 얼마나 자주 외면했습니까? 주님께서 붙드시는 손을 싫다고 뿌리치고 세상길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그 손으로 무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50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예

배 때 마다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꼭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개 목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주님의 그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손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

제 목: “기도로 복수하십시오!”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리포설교 - 12-1 미스바세대의 탄생 1)

일 자: 2015. 6. 141

본 문: 사무엘상 1:9-11

설교자: 함안중앙교회 고승모 목사

어떤 가족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 했습니다.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을 썬더라, 지루하고 졸리고 길기는 또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그렇게 설교할 거면 나도 하겠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옆에 타고 가던 엄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설교도 엉망 이었지만...찬양대는 왜 그렇게 죽을 썬!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찬양 따로, 찬양 대원들은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부부가 한참을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뒷자리에 잠자코 앉아 있던 초등학교 아들 녀석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그럼~ 천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뭐! 어제 토요일에 비싼 돈 내고 본 영화는 재미 있었잖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는 더더욱 힘이 들어서 ‘무자식이 상팔자’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자식은 상팔자’ 가 아니라 ‘하팔자’ 입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애물단지’ 같은 그 자녀를 ‘보물단지’ 처럼 고대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이 겪는 슬픔과 한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사시대 맨 마지막 부분의 기록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교육을 실패하여 무려 350년 동안 길고 긴 불신앙의 터널을 지나야 했던 시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각자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방탕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끝에 하나님께서는 한 위대한 신앙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무엘’ 이라는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士師)입니다.

사무엘을 거론할 때 그의 어머니인 ‘한나’ 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을 말할 때 어머니 ‘모니카’ 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존 웨슬리를 말할 때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를 빼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그의 어머니 ‘한나’ 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떤 가정에서 살았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삼상1:1-2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 ‘엘가나’ 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 외에도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없었습니다. 가정에 여인이 둘이면 풍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속담에 ‘시앗 싸움에 요강장수 돈 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첩들이 서로 싸우다가 요강을 깨니 요강장수만 어부지리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두 여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더군다나 한 여인이 자녀가 있고 다른 여인이 자녀가 없다면 ‘자녀’ 를 무기삼아 그 싸움은 더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자녀가 있는 브닌나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브닌나라는 이 여인이 번번이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삼상 1:6-7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이 없는 한나는 첩이었던 ‘브닌나’ 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브닌나는 ‘한나’ 를 격분하게 만들어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언제 한나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평상시에도 힘들게 해겠지만 ‘여호와의 집’ 에 올라갈 때 더욱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힘들었던 것입니까?

엘가나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

장이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삼상 1:4-5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도로 받아 나누어 먹는 제사는 ‘화목제’ 나 ‘서원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가나가 드렸던 제사는 화목제나 서원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닐까?’ . 서원제를 드릴 때에도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도 없는 내가 무슨 서원을 한단 말인가?’ 모르긴 해도 브닌나는 별나게 티를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자녀가 많다! 그런데 누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지 자녀가 하나도 없다’ 브닌나는 자녀가 하나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자녀’ 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서원하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서원을 할까?’

자녀가 있는 브닌나는 미래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만일 한나가 계속해서 자녀가 없는 채로 남편인 엘가나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가나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브닌나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가 받을 몫을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의 노년을 상상해보면 더욱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남편 있을 때에도 무시를 당했는데 남편이 없는 노후에는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한나는 매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마다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격분하고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릴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얼마나 못됐습니까? 첩인 주제에 건방지게 정실부인을 무시하고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한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한나는 인내에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받는 고통보다 고통을 주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입니다. 매일 눈뜨면 쳐다봐야 하는 사람이나의 ‘적’ 이고 원수라면 이것은 거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견디기 힘든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한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보통사람 같으면 브닌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브닌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별의 별 수단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브닌나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위대한 점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한나가 원수같은 브닌나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상 1: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한나에게 고통의 원인을 물어보았을 때에도 ‘당신이 몰라서 묻는냐?’ 고 브닌나의 악행을 고자질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남편’ 에게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래 되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멋대로 살던 그 때에 이 믿음의 여인 한나만은 ‘기도’ 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받도 먹기 싫고 물도 마시기 싫을 만큼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수인 ‘브닌나’ 에게 기도로 복수하였습니다. 한나는 적에게 기도로 상대했습니다.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할퀴지 않았습니다. 마주서서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사특한 방법으로 암수(暗數)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복수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효과적인 복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상 1: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지금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

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그 심층까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브닌나에게 여보란 듯이 의시대면서 살겠다는 것입니까? ‘이 여자야 너만 아들있냐? 나도 있다!’ 이러면서 자식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한나는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법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6:5,7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7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열매조차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죽어도 그 시신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진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아론의 가문이 아님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조항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사사’ 들처럼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 아론의 직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무를 나실인만은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향하여는 ‘사사’ 처럼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되면 ‘가족’ 들과도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에 약속되어 있는 나실인 법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때입니다. 각자 자기 좋을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성직자인 제사장들도 극도로 타락하여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할 때 한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켰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결부’ 시켰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합당하며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논문 쓸 때, 각주를 분명하게 달아야 합니다. 그 주장이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논문이 아니라 수필이 되고 맙니다. 기도에도 각주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성경 말씀 어디를 근거한 것인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기도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한나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동시에 자기 자녀이지만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롯이 바쳐진 존재이므로 함께 살수도 없고, 만일 자기가 위독해도 그 자식이 자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운명하게 되면 절대 시신에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지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를 드린 목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지 알게 됩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얻어 브닌나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나실인’ 서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치마폭에 감싸서 함께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브닌나의 자식의 수만큼 자녀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시다. ‘단 한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식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과 설움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고통이 있었습니까? 브닌나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삼상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격분하다는 말 ‘카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에서 55회나 등장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왕하 23:19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한나는 브닌나에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도 열 아들 보다 더 좋은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브닌나는 엘가나의 첩입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에브라임에 파송되어 살던 레위인 가문의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지 못하고 각지파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지도를 맡아 헌신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심지어는 레위인들마저 타락해서 한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그것이 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타락했고 제사장들마저도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레위인의 그런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었다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자기 아내가 자녀가 없다할지라도 하나님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했지, 첩을 들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만 했다면 한나도 것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간절한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 혼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자신과 같은 고통 받는 여인들이 없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한풀이나 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풀 보기 싫은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한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젖을 떼자마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과 헤어져서도 담담하게 살 수 있었는지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까? 성경이 대답입니다. 350년의 부패하고 타락한 사사시대의 죄악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이며 제사장이 나타나서 완벽하게 척결하고 ‘미스바’ 세대라는 부흥의 세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격노케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제 목: “무모한 순종 무한한 은총”

(통성경 포물라에 따른 내리포설교 - 12-2 미스바세대의 탄생 2)

일 자: 2015. 6. 21

본 문: 사무엘상 2:6-10

설교자: 함안중앙교회 고승모 목사

성경을 통틀어 가장 신앙교육을 잘한 어머니를 꼽으라면 ‘한나’ 를 들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에게 기쁨지고 특별한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던 사사시대에 오직 한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나의 순수한 믿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 드립니다.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울 신앙의 모범은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자칫 무모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첩이었던 브닌나가 본부인이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주었지만 한나는 브닌나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주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삼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괴롭다’ 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괴롭다’ 또는 ‘쓰다’ 라는 뜻을 가진 ‘마라’ 라는 말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마라’ 와 같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마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라’ 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지 3일 만에 물이 떨어져 갈증에 시달리다가 광야에서 ‘물’ 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의 이름이 ‘마라’ 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② 사사시대 베들레헬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폐가(廢家)망신(亡身)하였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식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같은 나오미도 하나님만을 붙들 때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쓰디 쓴 인생의 고통으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는 마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삼상 2:6-8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 7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스올(지옥)에서 올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비천한 자리에서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마라’의 삶이 변하여 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나의 신앙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 ‘엘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태만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신명기 18:5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성막이나 성전에는 제사장의 의자가 없습니다. 항상 서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삼상1: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처럼 그는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는데 늘 의자에 앉아 있기 좋아하던 엘리는 결국 의자에서 죽고 맙니다. 삼상 4:18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늘 자기가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기에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한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상 1:12-14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 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

각한지라 /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오래 지속하여 기도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탈진했습니다. 입술만 겨우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하는데 엘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살겠는가 포도주를 끊으라’ 고 혼을 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나와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중에는 소리를 낼 힘도 없어 입만 움직이며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목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집사님! 술을 언제까지 잡수려고 합니까? 이제 좀 끊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날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목회자 욕을 했을 것입니다. 정황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항의하지 않았습니 다. 그저 차분하게 자신의 처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엘리가 얼마나 머쓱했겠습니까? 뒤늦게야 상황을 파악한 엘리는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삼상 1: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의 축복은 문맥으로 살펴보면 진정성이 부족한 지극히 사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처한 민망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저 길치레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엘리와 같은 형편없는 목회자가 건성으로 복을 빌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면박을 줄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잘 하세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말하는게 무슨 권위가 있겠나?’ 하며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서 섬기야 하는데도 매일 의자에 앉아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그가 빈 축복이 응답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형편없는 목회자의 축복을 온전히 순종하며 받습니다. 삼상 1: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축복이 곧 응답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엘리한테 은혜 받을 것이라고 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 날 이후로는 근심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왜 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들’ 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믿을만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엘리같은 사람의 말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모한 순종에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상 1: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무모한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 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6:4-9을 쉼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쉼마와 사무엘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분명한 신앙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목회자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격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이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무능력한 종으로부터도 능력을 얻고, 부족한 종으로부터도 응답을 받고, 미련한 종으로부터도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무모한 순종이 무한한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면 ‘그 전하는 자’ 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무모한 순종은 계속됩니다. 한나가 귀한 아들 사무엘은 낳은 후에 아이가 젖 땔 무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 때 사무엘이 어

렸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삼상 1:24 “젓을 떼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겨우 젓 떼 유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한나는 세 마리의 소와 밀가루와 포도주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가서 사무엘을 맡겼는데 그때 사무엘은 너무 어렸습니다. 가장 엄마가 필요한 때에, 엄마가 가장 아이가 필요한 때에 둘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영 헤어집니다.

삼상 1: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영 아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 아들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순종합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열 두 번도 더 변할 수 있는데 한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모리아산으로 이사를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버 랩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정말 금쪽 같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러 가는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이지만 한나는 배 아파서 낳고 젓먹인 엄마입니다. 아마 자식을 떼어 놓기가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모한 순종으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한나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더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한나가 사무엘을 맡긴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은 더욱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소문난 악당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아들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2: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라고 말했습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마귀의 아호(雅號)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삼상 2: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

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에 함부로 손을 댔습니다. 주님께 바치기도 전에 저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제물을 마음대로 갖다 먹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도중에 가로채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봉헌하기도 전에 헌금봉투를 열어 제멋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목회자’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한 술 더 떠서 성적인 범죄마저 저질렀습니다. 삼상 2: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엄히 책망해야 할 엘리라는 제사장은 무능하고 나태해서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이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나는 엘리의 무능함과 그 아들들의 사악함을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약속한대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같으면 ‘비록 하나님과 약속은 했지만 상황이 이런데 아이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전에 맡기는 일을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형편없는 담임목사와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여성도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아들들이 부목으로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결사적으로 뜯어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이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기의 어린 아들을 맡겼습니다. 이 무모한 순종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삼상 2: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 을 믿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자를 지키시고 모든 악인을 멸하심을 한나는 믿었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모한 순종에 무한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한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삼상2:20-21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형편없는 엘리의 축복으로 사무엘 외에 세명의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삼상2: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더욱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 Barth, Karl.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rans. B. E. Hooke, Philadelphia: Westminster, 1963.
- Bartow, Charles A. *The Preaching Moment*. TN: Abingdon, 1990.
-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St. Louis: Chalice Press, 2001.
- Forsyth, P. T.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rdern Mind*. New York: Eaton and Mains, 1907.
- Frei, Hans.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Biblical Hermeneu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Schmidt, Thomas E. *A Scandalous Beauty: The Artistry of God and the Way of the Cross*. Grand Rapids, MI: Brazos, 2002.
- Stott, John R. W. *The Bible for Today*. Leicester: IVP, 1982.
- Sweet, Leonard. *From Tablet to Table: Where Community is Found and Identity is Formed*.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14.
- Sweet, Leonard.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 Sweet, Leonard.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 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10.
-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Colorado Springs, CO: WaterBrook Press, 2008.

번역서적

- Bright, John. *The Kingdom of God*. 박일영 역. *하나님의 나라*,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컨콜디아사, 1996.
- Bryson, Harold T., James C. Taylor. *Building Sermons to Meet People' s Needs*. 정성영 역. *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8.

- Carter, Terry G. · Scott Duvall J. & Daniel Hays. *Preaching God's Word : A Hands-on Approach to Preparing, Developing, and Delivering The Sermon*. 김창훈 역. *성경설교*.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Chrysostom, John. *De Sacerdotio*. 김성호 역. *성직론*.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 Craddock, Fred B. *Preaching*. 이우제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2.
- Easum, William M. *Sacred Cows Make Gourmet Burguers*. 안승철 역. *통제: 사사건건 막히는 교회 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Foster, Richard J. *Streams of Living Water*. 박조앤 역. *생수의 강*.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0.
- Gallup, George H. Jr., D. Michael Lindsayhing. *The Gallup Guide*. 배응준 역. *교인여론조사*. 서울: 규장문화사, 2002.
- Green, Joel B., Michael Pasquarello III. *Narrative Reading, Narrative Preaching: Reuniting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Proclamation*, 내러티브 읽기 · 내러티브 설교, 이우제 역. 경기: 크리스찬 출판사, 2006.
- Hall, Terry. *Bible Panorama, 성경파노라마*, 배응준 역. 서울: 규장, 2008.
- Hamilton, Adam. *Unleashing the Word*, 유성준 역. *말씀을 해방시켜라: 계시 목적 열정이 있는 설교*. 서울 : 도서출판 KMC, 2009.
- Härtner, Achim. *Predigen Lernen*, 손성현 역. *다시 설교를 디자인하라!*.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 Hudson, Christopher. *Clues for The Clueless*, 배응준 역. *하루만에 꿰뚫는 성경관통*. 서울: 규장, 2007.
- Killinger, John. *Fundamentals of Preaching*, 광주환 역. *평생 유용한 설교방법의 백과사전*,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0.
- Kistemaker, Simon J. *The Parables of Jesus*. 김근수, 최갑중 역. *예수님의 비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Lane, Denis J. V. *Preach the Word*. 최낙재 역. *강해설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90.
- Langford, Andy. *Transitions in Worship*. 전병식 역. *예배를 확 바꿔라*. 서울: 도서출판 KMC, 2006.
- Lloyd-Jones, D.M.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Lloyd-Jones, D.M. *An Exposition of Ephesians*, 서문강 역. *에베소서강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서병채 역. *설교자는 증인이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Lowry, Eugene L.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이주엽 역.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서울: 요단출판사, 2011.
- Lowry,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MacArthur, John jr. *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김동완 역. *강해설교의 재발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MacArthur, John Jr. *The Anatomy of a church*. 한화룡 역. *교회의 해부학*.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3.
- McGrath, Alister E.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김기철 역.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사람, 2014.
- McGrath, Alister E. *Mere Apologetics*, 전외우 역.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Mawhinney, Bruce. *Preaching with Freshness*. 오태용, 김광점 역. *목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6.
- Miller, Calvin. *Preaching: The Art of Narrative Exposition*. 박현신 역. *설교: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박현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4.
- Oden, Thomas C. *Pastoral Theology*. 이기춘 역. *목회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Outler, Albert C. *John Wesley's Sermons: An Introduction*, 조종남 역. *웨슬리 설교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Packer, James I. *Truth & Power*. 서원교 역. *하나님의 대변자*.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0.
- Perkins, William. *The art of prophesying & The calling of the ministry*. 채천석 역.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Peterson, Eugene H. · Marva J Dawn. *The Unnecessary Pastor*. 차성구 역.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서울: 좋은씨앗, 2001.

- Roberts, Vaughan. *God's Big Picture*. 이용복 역. *성경 꿰뚫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울:규장, 2007.
- Stott, John R. W.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 Sweet, Leonard. *The Three Hardest Words*. 윤종석 역.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 Sweet, Leonard.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 Sweet, Leonard. *Jesus Drives Me Crazy*. 윤종석 역.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 Sweet, Leonard, Brian D. McLaren, Jerry Haselmayer. *A is for abductive*. 김영래 역.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9.
- Timmer, John. *They Shall Be My People*. 박혜영 외 역. *성경, 흐름을 잡아라*. 서울: 주식회사 흥성사, 2001.
- Weems, Lovett H. Jr. *Leadership In The Wesleyan Spirit*. 원종국 역. *웨슬리안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kmc, 2007.
- Wiersbe, Warren W., Howard F. Sugden. *Answers to Pastors' FAQ's*. 조천영 역. *목회자 지침서*, 제9판. 서울: 종합선교 나침반사, 1991.
- Wiersbe, Warren W.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이미지에 담긴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7.

한국어서적

- 권진호 외. *루터, 겨울에 설교하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 김동건. *김동건의 신학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4.
-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설교를 묻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5.

- 김중기. *삶에 적용하는 구약*.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09.
-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남호.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 서울: 도서출판 KMC, 2002.
- 노우호. *성경통독집*. 서울: 도서출판 하나, 2007.
- 류모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서울: 두란노, 2013.
- 말씀목회공동체. *슬로 바이블*. 서울: 두란노서원, 2015.
- 민영진. *설교자와 함께 읽는 율기*.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2002.
-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서인석 편저. *기호학 교육론: 복음서의 이야기*.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 윤철호. *신뢰와 의혹*,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이연길.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 서울: 콤파출판사, 2015.
- 이재근. *크리스천 스트럭처(Christian Structure)*. 서울: 도서출판 KMC, 2011.
- 이형기. *성경의 내러티브 신학과 교회의 공적책임*. 서울: 한들출판사, 2010.
- 이형기. *역사 속의 내러티브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장경철. *신학으로의 초대*.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2009.
- 정인교. *설교 살리기*.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0.
- 정인교. *설교자여 승부수를 던져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정인교. *현대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 서울: 청목출판사, 2010.
- 정장복. *설교학 서설*. 서울: 엠마오, 1992.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스티디북*.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4.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9.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09.
- 조병호. *통(通)성경 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3.
- 조병호. *통성경 포플라 지도자 노트*. 서울: 통독원, 2014.
- 최윤식 외.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논문, 잡지

- 김성병. “성경교육으로서의 성경통독 방법론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6-554.
- 박병도. “성서정과를 따른 설교를 통한 설교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주의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3.
- 유광진. “성경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내러티브 본문설교의 원리와 실제”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 윤영철. “설교유형과 회중의 반응간의 관계분석”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류대학교, 2002.
- 전재균.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의 설교론적 활용 방안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 정만영. “한국교회 설교 위기와 극복의 가능성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1.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eungmo Ko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Sep.29, 1967

Parent's Names: Sunyoung Ko and Bangja Jung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Hanbat High School 58 Singalmano, Seo-gu, Daejeon,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87
Collegiate:	Colloge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88 Doanbukno, Seo-gu, Daejeon, South Korea	B.A.	Feb. 24, 1995
Graduat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88 Doanbukno, Seo-gu, Daejeon, South Korea	Th. M.	Feb. 24, 200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eungmo Ko

Name typed

May 6, 2016

Date